

제2장 인물

제1절 고대·중세

1. 상신()

● 유삼재()

기계 유씨(兪氏) 시조로 신라시대 아찬 벼슬을 지냈다. 부운재(富雲齋)와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묘소는 기계면 미현리 비학산 남쪽에 있다.

● 윤신달(尹莘達)

파평 윤씨(尹氏) 시조로 고려태사 벼슬을 지냈다. 묘소는 기계면 봉계리에 있으며 봉강재(鳳岡齋)가 있다.

● 신몽삼(辛夢森)

고려태사 보문각 대제학 검교 영원부원군(檢校, 靈元府院君)을 지냈으며 숙연사(肅然祠)가 있다.

● 최 호(崔湖)

고려시대 예종 때 검교(檢校)신호위대장군을 지냈으며 곡강부원군으로 곡강최씨(曲江崔氏) 시조이다. 묘소는 흥해읍 남송리 방산에 있으며 영모재(永慕齋)가 있다.

● 정몽주(鄭夢周)

본관은 오천으로 고려 문하시중을 지냈다. (충의편 참조)

2. 충의(忠義)

● 정습명(鄭襲明)

본관은 영일, 고려 인종때 국자사업, 기거주지제고(國子司業, 起居注知制誥)등을 역

임하고 최자, 김부식, 이충, 최주등과 함께 시폐십조(時弊十條)를 상주하다가 거부당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의종이 즉위한 후 다시 벼슬에 나아갔으나 김존중, 정함 등의 간사한 무리들에게 유혹되어 정사를 돌보지 않은 의종에게 직언하다가 김존중, 정선등의 참소로 왕명을 거역하여 스스로 자결하였다. 고려의 충신이며 대유학자였다.

● 정몽주(鄭夢周)

고려 말의 충신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정습명의 후손이며 오천에서 출생하였다. 고려 공민왕9년에 삼장(三場)시험에 연달아 장원급제하였고 벼슬이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정치가이며 외교관으로서 일본과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기우러져 가는 고려왕조를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에게 선죽교에서 피살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역사편 참조)

● 이귀춘(李貴春)

고려 말 창녕에서 출생 했다. 호는 옥야(沃野) 본관은 창녕, 벼슬은 중직대부 지현사(中直大夫 知縣事)를 지냈다. 성품이 대쪽 같아 한 때는 창녕 옥야에 묻혀 살다가 공양왕 때 장기현감으로 왔으나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살면서 충절을 지키며 살았다.

● 이양길(李陽吉)

자는 의노(義老) 호는 여남(麗南) 본관은 청안(淸安) 벼슬은 검교시랑 예빈시사정(檢校侍郎 禮賓寺司正)을 지냈다. 1356년 9월 공민왕의 사자(使者)로 제주에 가 목호(牧胡) 가을적, 홀고탁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순문사 윤시우, 목사 장천년과 함께 1356년 10. 19. 피살되었다. 벽상일등공신(壁上 一等功臣)에 녹훈되고 청안군(淸安君)에 봉록되었으며 익호를 충원공(忠元公)이라 했다.

● 오방우(吳邦佑)

자는 동도(東道) 호는 계헌(癸軒) 본관은 해주. 고려 충선왕 계축년(1313)에 태어나 충혜왕 을유년(1345)에 급제한 후 예의산랑 승정시랑전(禮儀散郎 承政侍郎典)을 거쳐 공민왕 때 오도안찰사를 제수 받았으나, 당시 이성계 일파들이 집권하여 많은 현량들을 축출함에 낙향하여 강원도 평해에 숨어살다가 경주 사방에 이주 하였다가 다시 장기로 이거하였다.

그 후 조선 영조 때에 후손들이 영모재사(永慕齋舍)를 창건한 후 경덕사(景德祠)라 개칭하였다가 지금은 덕림서원(德林書院)을 세워 배향하고 있다.

3. 고승(高僧)

● 원진국사(圓眞國師)

속성은 신씨(申氏)이름은 승회(承廻) 자는 영회(永廻) 상락산양인(上洛山陽人)으로 유가출신이며 일찍 부모를 여의고 7세에 운문사(雲門寺)에서 연실선사(淵實禪師)에게 집도(執導)받은 후 희양산 봉암동(曦陽山 鳳岩洞)에서 삭발하고 금산사(金山寺)에서 계단(戒壇)을 받은 후 고려 명종 때 국사도행(國師道行)에 초선되어 화엄경(華嚴經)과 인심종(印心宗)을 품계 하여 이름을 떨쳤다. 을해년 가을에 청하 보경사 주지로 부임한 후 고종 경진년 봄에 대상왕 제사자(大上王 第4子)를 손수 삭발하여 진병사(珍兵寺) 주지선사로 지내게 하였다. 신사년(辛巳年)8월 28일 목욕하고 7월 2일 입적(入寂)하니 국사(國師)로 추증하고 시호(諡號)를 원진(圓眞)이라 하였다.

● 배천희(裵千熙, 1307~1382)

호는 설산(雪山), 본관은 흥해, 고려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낸 아버지와 어머니 최씨 사이에서 (大德 丁未年 5월21일) 태어났다. 어머니 최씨가 꿈에 배를 보았는데 많은 스님들이 범패(梵唄)를 하고 있었고, 그 물이 대문 앞까지 오는 태몽(胎夢)을 꾸고 임신하였다고 하며, 만삭이 되었을 때 백학(白鶴)이 그의 복부를 쪼아 청첩가사(靑帖袈裟)를 입은 한 스님이 뛰어나오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고 한다. 충숙왕 6년(1319) 화엄 반용사(華嚴 盤龍寺)의 일비(一非)에게서 중이 되어 1325년 승과에 급제한 후 금생사 덕천사(金生寺, 德泉寺)등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원(元)나라에 들어가(1364~1366) 강남(江南)의 몽산(蒙山)에게서 의발(衣鉢)을 받고 귀국했다.

신돈과 친했으며 공민왕 16년(1367)에 국사(國師)가 되고 영주 부석사의 주지로 전우(殿宇)를 중수하기도 했다. 대사(大師)가 국사(國師)로 책봉되어 출생지인 흥해현(興海縣)이 흥해군으로 승격되었고, 시호(諡號)는 진각(直覺) 호(號)는 대각원조사(大覺圓照師)이며, 대사의 비(碑)가 경기도 화성군 창성사(彰聖寺) 터에 남아있으며, 고려말 불교계의 거성이었다. 묘소가 흥해읍 양백리 뒷산 갈점 壬坐에 있다.

● 원각조사(圓覺祖師, 1379~1460)

이름은 마힐(摩訶) 속성은 김씨이며, 아버지는 김백광(金白光) 어머니는 정덕(淨德)이다. 해와 달의 광명을 거두어 품에 안고 임신하여, 고려 우왕5년(1379) 2월 15일 신시(申時)에 청하현 조사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여섯 살에 사서(四書)를 통달하고 아홉 살에 시경(詩經) 열 살에 서경(書經) 열한 살에 주역(周易)을 읽어 시문은 물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답답하던 가슴

이 환하게 터져옴을 느낀 후에 인생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조선 태조 5년에 과거가 있었지만 응시하지 않고 21세 되던 해에 야성(野城) 유씨(劉氏)와 결혼한 후 평범하게 밭 갈고 우물 파서 살아가는 백성들 속에 섞여 살았다. 집에서 가까운 보경사와 성도암에 가서 높은 스님과 불법(佛法)을 문답하고 불경을 읽으면서 참다운 生의 진리를 깨달은 후 남들에게 그의 도담(道談)을 알려주면서 일기와 농사일에 대한 풍흉(豐凶)을 예측하기도 하고 130년 후에 왜군이 나라를 침범한다는 일과 송라(松羅)에 역(驛)이 생긴다는 것을 예언하니 사람들이 이인(異人) 또는 성인(聖人)이라 하였다. 81세로 조용히 숨을 거두니 불제자(佛弟子)들이 불교 의식에 의하여 화장하고 사리 수십과를 거두어 상태사(常泰寺)에 부도를 세웠다.

제2절 근 세

1. 충의(忠義)

● 한봉산(韓奉珊)

본관은 청주, 청성군(淸城君)의 6세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효성스러웠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묘 3년을 살고, 나라에 문정왕후, 명종대왕, 인성왕후가 세상을 거둬 떠나자 9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여묘살이를 하는 동안 아내가 아파도 모르는 체하다가 아내가 죽은 뒤에 비로소 곡(哭)을 했으니,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가상하였다.

이러한 일은 고금에 없다고 하여 삼강록(三綱錄)에 등재하고 충효상성상당(忠孝雙成上黨)을 내리고 정려각(旌閭閣)을 세웠다. 정려각은 포함 용흥동에 있다.

● 김현룡(金見龍, 1550~1620)

조선조 명종5년(1550)에 연일현에서 출생, 자는 덕보(德普) 호는 수월재(水月齋) 또는 월동(月洞)이다. 본관은 水原이고 신라 경순왕의 후예다. 어려서부터 그릇이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세인들의 칭송을 받았고 학문에 힘써 식견(識見)이 높아 향리(鄕里)의 추앙을 받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친동생 원용(元龍) 사촌동생들과 의병을 일으켜 화왕성 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 두 모포진만호(豆毛浦鎭萬戶)를 제수 하였으나 사양하고 월동서사(月洞書舍)에서 시문(詩文)을 즐기다가 1620년에 세상을 떠나니 나라에서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증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역사편 참조)

● **김우정(金字淨)**

임진왜란 때 사촌형 김현용(金見龍)을 따라 의병활동을 하다가 안강, 영천, 경주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남기고 도산(島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김문용(金文龍)**

자는 용포(龍浦) 호는 보의(甫義) 본관은 김해이다. 조선 명종 22년 정묘년(1567)에 출생하였다. 성균진사, 선무원종공신(成均進士, 宣武原從功臣)으로 순국한 김득경(金得鏡)의 아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이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의병진에 뛰어들었다. 망우당 광재우 휘하에서 3년을 종군하는 동안 많은 전공을 남겼다. 선무원종삼등공신(宣武原從三等功臣)을 제수받고 그 후에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증직 받았다.

● **윤락(尹洛)**

자는 득중(得中) 호는 동호(東湖) 본관은 과평이다. 청하 금정리 출생으로 9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어린 나이에 여묘3년을 살았으며,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병이 삼남지방을 침공할 때 주복야행(晝伏夜行)으로 왜적의 동정을 살피어 3회에 걸쳐 삼남지방 왜적의 동향을 주상께 보고하니 선조 임금의 장하게 여겨 경릉참봉을 제수하고 정려(旌閭)하니, 비문은 흥해군수 성대중(成大中)의 글이다.

● **박문우(朴文虞)**

임진왜란 때 의병에 종군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만호(萬戶)를 제수 받았다.

● **서극인(徐克仁)**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동해연안을 침공, 장기고을에 입성하여 만행을 저지르게 되자 장기향교에 봉안된 오성위패(五聖位牌, 孔子, 顏子, 曾子, 子思, 孟子)를 석굴(石窟)속에 보관했다가 난(亂)이 평정된 뒤에 복위(復位) 하게 한 공으로 봉사(奉事)를 제수 받았다.

● **김경록(金景祿)**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으로 많은 전공을 세워 주부(主簿)벼슬을 제수 받음.

● **황보억(皇甫億)**

충정공 황보인(皇甫仁)의 후손으로 임진왜란 때 영천에 사는 최응사(崔應泗)와 함

게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웠다. 본관은 영천이며 종군기록은 유정 최응사의 창수록(唱酬錄)에 등재되어있다.

● **황보 순(皇甫淳)**

황보 억(皇甫億)의 손자로 임진왜란 때 종군, 많은 전공을 세워 훈련원사평(訓練院司評)을 제수 받았으며, 학문이 뛰어나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선생과 학문을 토론하였고 죽음에 이르러 여헌 선생이 제문을 지어 슬퍼하였다.

● **정유록(鄭維錄)**

본관은 영일로 친형인 정유서와 함께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장기성을 지키는 공(功)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그 후에 장기고을에서 의병에 참전한 문중이 충열계(忠烈契)를 모아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 **이몽태(李夢台)**

일명은 이추(李追)라고 불렀으며, 호는 계헌(溪軒) 본관은 경주이다. 안성군수로 재직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삭녕(朔寧)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그 곳 백성들이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표절사(表節祠)를 지어 배향하였다.

● **김 순(金 洵)**

자는 윤명(尹明) 호는 우계당(友溪堂) 본관은 월성이다. 중종 무자(戊子)년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봉열대부(奉列大夫)에 올랐으며,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웠고 경상우도 절도사를 지냈다.

● **최극기(崔克淇)**

자는 국경(國卿) 본관은 경주, 진사(進士)급제 하였으나 임진왜란이 이러나자 학봉 김성일 의병진에 들어가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많은 공을 세우고 충무공 김응하와 함께 전사하였다.

● **유기창(兪起昌)**

자는 자성(子聖) 호는 서호(西湖) 본관은 기계이다. 조선 성종조에 급제하여 아홉 고을 현감을 지냈다. 성품이 청백 고결하여 남에게 굽히지 않았다. 나라가 어지러워 간신배들이 참소하므로 낙향하여 초야에 묻혀 살면서 시문을 즐기다가 세상을 떠나니, 병조판서를 증직했다. 시호는 충숙(忠肅) 비인(庇仁) 충절사에 배향하였다.

● 이의택(李宜澤)

자는 율연(栗然) 호는 오의정(五宜亭) 본관은 여강(驪江)이다.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의 손자로 임진왜란 때 경주성 수복(慶州城收復)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이충무공(李忠武公) 휘하에 들어가 한산도 전투에 참전 많은 공을 세웠다.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문무겸전한 훌륭한 인물이라고 조정에 보고하여 군자감직장(軍資監直長)을 제수 받았다.

● 서방경(徐方慶)

자는 군길(君吉) 호는 직재(直齋) 본관은 달성, 장기현에서 출생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병이 동해안으로 북진하자 이에 분개하여 칼을 뽑아 맹세하고, 종질 서극인과 죽계 이대임(竹溪 李大任)등과 향교로 달려가 오성팔현 위판(五聖八賢 位板)을 용암석굴에 안장(安藏)한 후 의병을 모집 장기현을 지키다가 곽재우 휘하에 들어가 많은 전공을 남기고 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와 오성팔현의 위판(位板)을 다시 모셔오니, 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경주판관 청주판관(慶州判官, 淸州判官)을 제수하고 사후(死後)에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 兵曹參判)을 증직 받았다.

● 이일돈(李日敦)

자는 회경(晦經) 본관은 여강(驪江)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 강원도 삼척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전세(戰勢)가 불리하여 남쪽 해안으로 후퇴 청하에서 왜적 1개부대와 격돌, 전세가 불리함을 알고 손가락을 깨물어 옷소매에 자신의 이름을 혈서로 쓴 다음 왜적이 항복할 것을 권유하자 자결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라에서는 어모장군 부사맹(禦侮將軍 副司猛)을 증직하였다.

● 이 질(李 晔)

자는 명가(明可)이며 사맹(司猛)을 지낸 이일돈의 친동생이다. 형이 전사한 원수를 갚기 위해 이일돈이 이끌던 의병을 인솔하여 곽재우 휘하에 들어가 왜적과 싸워 많은 전공을 쌓았다. 전쟁이 끝난 후 선무원종공신록에 등재하고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을 증직 받았다.

● 김광복(金光福)

호는 죽포(竹圃) 본관은 월성으로 문충공 김순(金洵)의 아들이다. 효성이 지극하고 얼굴이 준수하며 문무를 겸전한 인물이었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혈서를 써서 의병을 모집함에 의병 500명과 함께 경남 창녕에 소재한 화왕산성 대첩에 가담하여 곽재

우, 김인심재(金忍心齋)등과 함께 전공을 크게 올렸다. 선무원종공신록에 등재하고 후세에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유현사(遺賢祠)에 제향 하였다.

● **이순성(李洵, 1565~1638)**

자는 사임(士任) 호는 운서(雲棲) 본관은 경주이다. 명종 기축년(1565)에 기계에서 태어났다. 도원공 이말동(桃源公 李末全)의 증손이며 두곡공 이습(杜谷公 李燾)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동생 이복성(李復性) 이안성(李安性)과 함께 삼형제가 의병에 출정하여 대구의장회맹(大邱義將會盟)에 참가하였다. 화왕산 전투에서 탁월한 전공을 세웠으며 광재우 장군이 공의 의병진이 엄한 규율을 보고 감탄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선무원종이등공신으로 등재되고 첨중추부사(僉中樞府使)를 증직 받았다.

● **이대임(李大任)**

자는 사중(士重) 호는 죽계(竹溪) 본관은 창녕, 조선조 선조7년(1574) 4월10일 장기현 서학리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남과 달리 준엄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침묵과 언 하여 인근 사람들로부터 큰 그릇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홉 살에 부친상을 당하여도 예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고 열여섯 살에 모친상을 당하여는 여묘3년을 살았다. 학문에 힘써 20세 이전에 경사(經史)에 통달하였다. 임진년에 왜적이 장기 땅에 밀어닥쳐 소란할 때 공(公)은 사당(祠堂)에 들어가 신주(神主)를 뒷산에 묻은 다음 향교로 달려가 서방경, 서극인, 이눌 등과 더불어 오성팔현(五聖八賢)의 위패를 용암 석굴 속에 봉안한 후 의병을 모집 경주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나자 조정에서 공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청주병마사(淸州兵馬使)에 제수하고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 兵曹參判)을 증직하였다. 학삼서원(鶴三書院)에 봉향하고 있다.

● **최신린(崔臣隣)**

호는 구계(龜溪) 본관은 경주, 만력(萬曆) 무오년(1619)에 진사를 지냈다. 임진왜란 때 종군하여 많은 전과를 남기고 은거 하면서 후생 교육에 힘썼다.

● **정응성(鄭應星)**

호는 국포(菊圃) 본관은 오천, 학문이 뛰어나 청하 훈도(訓導)를 제수 받고 다시 영천교수(永川教授)의 부름을 받았다. 특히 수학에 뛰어났으나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벼슬길을 포기하고 은둔하다가 병자호란 때 임금님이 몽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한 산성 아래로 달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다가 병을 얻어 고향에 돌아와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위국충정(爲國忠情)은 변함이 없었다. 장기 봉산(蓬山) 북쪽 골짜기 공당에 은거하였다.

● **이복성(李復性, 1566~1603)**

자는 사술(士述) 호는 옥계(玉溪) 본관은 경주로 조선 명종 병인년에 기계에서 태어났다. 이말동(李末叟)의 증손이며 징사(徵士) 직장 이습(直長 李燾)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둘째형 순성(循性) 막내 동생 안성(安性)과 함께 삼형제가 의병에 출정하여, 경주성(慶州城)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박무의공 진중(陣中)에서 많은 전공을 남기고 울산 서생포 전투에서 동생 안성이 전사하자 중형 순성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동생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 지내니, 사람들은 일가삼충(一家三忠)이라고 일컬었다. 전쟁이 끝난 후 봉직랑사재감첨정(奉直郎司宰監僉正)을 제수 받았다.

● **이안성(李安性)**

기계에서 출생하여 임진왜란 당시 仲兄 순성과 막내 형 복성과 함께 삼형제가 의병에 출정하여 경주성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남겼다. 公은 특히 팔 힘이 남보다 뛰어나 전쟁터에서 활시위를 당기는데 크게 공헌했다. 울산 서생포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니, 당시 나이 겨우 열여덟 살이었다. 조정에서 교위(校尉)벼슬을 증직 받았다.

● **권여정(權汝精)**

자는 자중(子中) 본관은 안동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에 출정하여 많은 전공을 남겼다. 전과기록은 광재우 동고록(同苦錄)에 등재되어 있다. 호를 송헌(松軒)이라 하고 대쪽 같은 절의로 살았다. 늦게 학문이 뛰어나 참봉(參奉)을 지냈다.

● **이 열(李 說)**

자는 천퇴(天賈) 호는 애일당(愛日堂) 본관은 학성(鶴城) 충숙공 이에(忠肅公 李藝)의 6세손으로 침묵과언하며 대장부다운 기질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 호군공 이봉수(護軍公 李鳳壽)를 따라 의병으로 출정하여 많은 왜적을 무찌르고 여러 차례 전과를 올려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제수 받고 가선대부 지중추(嘉善大夫 知中樞)에 올랐다. 공(公)의 실기(實記)가 전하며 흥해 출신이다.

● **이인석(李仁碩)**

자는 덕겸(德謙) 호는 낙암(洛岩) 초휘(初諱)는 금석(今碩)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어려서부터 풍체가 장대하고 기골이 빼어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목(耳目)을 끌었다. 명문가의 후예로서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연산군이 재위하여 백성은 학정에 시달리고 북쪽에는 여진족이 침범하고 남쪽에는 왜구가 자주 노략질하였다. 종종 때 삼포왜란이 있어 첩사 이호증이 살해되고 삼남일대를 짓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개한 나머지 동지들을 규합 전장에 달려가 수십 차례 전투를 벌인 끝에 수십 명을 무찌르고 종횡무진으로 전쟁터를 휩쓸고 다니니 모두가 상산 조자룡의 전술이라며 감탄하였다. 만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늙은 몸으로 부자간에 의병에 출전하여 화왕산 전투에 참가 많은 전공을 남겼으나 애석하게도 아들 이응남(李應男)을 전장에서 잃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경주 기계현 오도(吾道)에 은거한 후 경독이망세(耕讀而忘世) 하며 벽상에 도연명 귀거래 도면을 걸어놓고 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었다.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나니 장지는 기북면 관천리 태화산에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선무원종삼등공신(宣武原三等從功臣)으로 등재하고 판관(判官)을 제수하였다.

● 이경남(李慶男)

자는 봉지(鵬之) 호는 계림(溪林) 본관은 영천(永川) 고려신호대장군李大榮의 11세손으로 판관(判官) 이인석(李仁碩)의 장남이며, 선무원종2등공신 이응남(李應男)의 백형이다. 조선조 1544년 갑진(甲辰)에 기북면 오덕리(吾道)에서 출생했다. 체구가 장대하고 성품이 호탕하여 장군의 기상이 있었다. 선대부터 무공으로 가문을 빛낸 명문가의 후예로서 학문과 무예가 뛰어나 북진정벌에 크게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 어모장군으로 녹훈(錄勳)되었고 묘소는 기북면 관천리 태화산에 있다.

● 이응남(李應男)

자는 사계(士季) 호는 오계(吾溪) 본관은 영천(永川) 조선조 명종 정사년(1557) 기북면 오덕리에서 태어났다. 판관 이인석(李仁碩)의 둘째 아들이요 어모장군(禦侮將軍) 이경남(李慶男)의 친동생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접물(接物)에 사리통달하고 의협심이 강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이었다. 문무에 뛰어났으며 경사에 통달하고 무예를 연마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동래를 거쳐 경주성을 침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경주성에 나아가 경주부윤 박무의공(朴武毅公) 진영에 합세하여 왜적과 격돌, 많은 전공을 남기고 영남전역 대규모 의병진을 규합하기 위한 팔공산 회맹에 가담한 후 화왕산 전투에 가담하여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가 불리함에 돌격대를 조직하여 선봉대에 서서 대원들을 지휘 왜적 수십 명의 목을 베고 전세가 호전될 즈음 왜병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광재우 장군이 그 광경을 보고 公의 시체를 거두려 했으나 물 밑듯이 밀어닥치는 위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함께 종군한 장수들이 公의 원수를 갚으려고 말을 달려 칼을 내려쳤지만 허사였다. 전쟁이 끝난 후 公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녹훈(錄勳)하고 동중추(同中樞)를

제수하였다. 공의 시체는 끝내 거두지 못하고 후손들이 초혼하여 기북면 관천리 태화산 옥녀봉에 단(壇)을 만들어 제향하고 있다.

● **정인헌 (鄭仁憲)**

자는 사중(士重) 호는 사의(四宜) 본관은 오천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출전하여 광재우 진영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난(亂)이 평정된 후에 계공랑군자감직장(啓功郎軍資監直長)을 재수받았다.

흥해 약전들 가운데 정자를 세우고 사의정(四宜亭)이라 하니 송의(松宜) 야의(野宜) 산의(山宜) 수의(水宜)의 뜻으로 편액(扁題)하였다.

● **김덕수(金德洙, 1550~1620)**

자는 춘여(春如) 호는 소정(蘇庭) 본관은 의성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에 출정하여 흥해에서 왜적과 싸워 승리하고 1593년 팔공산 회맹에 참석하고 1595년 서생포에서 왜적을 격퇴시키는데 크게 전공을 세워 전쟁이 끝난 후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녹훈되고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 어모장군(兵曹參判 同知義禁府事 禦侮將軍)을 제수 받았다.

● **류복례(柳復禮)**

자는 선극(善克) 호는 용헌(慵軒) 본관은 서산(瑞山)으로 임진왜란 때 광재우 진영에 백형 복기(復起) 중형 복초(復初)와 함께 출정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전쟁이 끝난 후 중추부사(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 **김득경(金得鏡, 1547~?)**

자는 사원(士元) 호는 죽재(竹齋) 본관은 김해이다. 조선조 명종 정미년(丁未年)에 태어나 선조 계유년(1573)에 성균진사가 되었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지(忠志)의 일념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흥해 불항동(佛項洞)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경주관관 박무의공(朴武毅公) 휘하에 들어가 형산강 전투와 경주 문천(蚊川) 싸움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팔공산 회맹에 참석한 후 경상좌도 낙동강 부근 승암진(昇岩津) 전투에서 왜적과 싸워 크게 공을 세우고 선무원종이등공신에 녹훈되고 증가선대부 병조참판(贈嘉善大夫 兵曹參判)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도정(同知義禁府事 訓練院都正)으로 추서 하였으며 묘비가 청하면 서정2리 도로변에 소재하고 있다.

● **이봉수(李鳳壽)**

자는 순의(舜儀) 본관은 학성(鶴城) 증숙공 이에(忠肅公 李藝)의 5세손으로 벼슬이 의흥위부호군 경주훈도(義興衛副護軍 慶州訓導)였으나 임진왜란 때 의병과 함께 경주 서천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순국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원종훈(原從勳)에 기록하고 포항시 장성동 풍수곡에 장사지냈다.

● **정삼외(鄭三畏)**

호는 망모당(望慕堂) 본관은 오천(烏川)이다. 부친상을 당하여 읍혈(泣血)3년 한 효자로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종군하여 많은 전공을 세워 군자주부(軍資主簿)를 제수 받은 후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증직 받았다.

● **서첨민(徐添民)**

자는 덕후(德厚) 호는 동촌(東村) 본관은 이천(利川)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전하여 기계 운주산 전투에서 왜적을 물리치니 당시 경주 판관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장하게 여겨 중군장으로 추천하고, 그 후 많은 전공을 남겨 전쟁이 끝난 후 절충장군 행용양위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護軍)을 제수 받고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추증하였다.

● **정유서(鄭維瑞)**

호는 학포(學圃) 본관은 오천(烏川)으로 임진왜란 때 동생 정유록과 함께 의병을 모아 가재(家財)를 털어 군수물자를 조달하니, 당시 장기현감 이수일이 군정을 맡겨 기사관(記事官)으로 활약 많은 공적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사맹(司猛)을 제수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추증한 후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었다.

● **김덕장(金德璋, 1530~1604)**

자는 익노(益老) 호는 의암(義菴) 본관은 의성(義城)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종군하여 경주판관 박무의공(朴武毅公) 휘하에서 활약 문천전투에서 왜적을 대파한 후 5월에 각 지방의병장 30명과 영천에서 회맹하고 9월에 팔공산 회맹에 참석하여 각처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쌓았다. 전쟁이 끝난 후 선무원종공신록에 녹훈되고 가선대부 호조참의겸지의금부사(嘉善大夫 戶曹參議兼知義禁府事)를 제수 받았다.

● **이응득(李應得)**

자는 일오(一五) 본관은 경주로 판관(判官)을 지낸 이량(李良)의 후손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정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특히 유격대에 가담하여 북병장으로 이

름을 떨쳤으며, 전쟁이 끝난 후 훈련원참정(訓練院參政)을 제수 받고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었고 임진제장일기(壬辰諸將日記)에 기록이 남아있다.

● 심희청(沈希淸)

본관은 청송(靑松) 연일현(延日縣) 출신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정하여 곽재우 장군 진영에서 전공을 세워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을 제수 받았다.

● 전유추(田有秋)

자는 사양(士養) 호는 송담(松潭) 본관은 담양(潭陽)으로 임진왜란 당시 수문장(守門將)이었다. 광해군이 폐모(廢母)할 때 당윤(黨尹)인 유겸(惟謙)이 사사로운 처사에 대하여 크게 꾸짖기를 “이 세상에 어미 없는 사람이 있나”? 하고 격분, 상소문을 올렸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 정극의(鄭克毅)

자는 사중(士重) 호는 모암(慕庵) 문정공(文貞公) 정사도의 9세손이다. 충과 효를 함께 갖춘 인품으로 열세 살에 모친 병환에 손가락을 깨물어 모친에게 시약(施藥)하여 연명케 하였고 부모상에 여묘(廬墓) 살이를 하더니 무과에 급제 흥의위(興義尉)에 재직 당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임금을 호위 하다가 사경에 이르러 고향에 돌아와 자손들에게 나라에 충성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기북면 대곡리 문무곡(文武谷)에 있다.

● 문룡(文龍)

자는 운서(雲瑞) 호는 금호(錦湖) 본관은 남평(南平)으로 선산부(善山府) 해평리에서 출생했다. 학문이 조성하더니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포의(布衣)로 의병에 참전하여 남한산성을 향해 행군하던 중 강화소식을 듣고 북쪽을 향해 3일간 단식하더니 그 후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펴지 못함을 한탄 하다가 흥해 대곡에서 세상을 떠났다.

● 이대립(李大立)

자는 여수(汝秀) 호는 야포(野圃) 본관은 청안(淸安)으로 조선조 명종 정사년(1557)에 태어났다. 경인년에 흥해훈도(興海訓導)로 벼슬에 나아갔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 이대인(李大仁)과 정삼외(鄭三畏) 등 지사(志士)를 규합, 의병으로 출전하여 방어사 권응수 휘하에 들어가 경주 문천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영천성을 수복하는데 많은 전공을 쌓아 전쟁이 끝난 후 벼슬을 제수 하였으나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은거하였다.

● **최극기(崔克淇)**

자는 국경(國卿) 본관은 경주이다. 임진왜란 당시 학봉 김성일 의병 모집에 응소하여 왜적과 싸우다가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 **서극인(徐克仁)**

호는 낙와(樂窩)이며,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종숙(從叔) 서방경, 향사(鄉士) 이대임 등과 함께 장기향교 오성팔현(五聖八賢) 위폐를 석굴에 봉안하고 창녕 화왕산성 전투에 참전하여 광재우 휘하에서 활약 많은 전공을 남겨 전쟁이 끝난 후 형조참판을 제수 받았다.

● **이눌(李訥)**

자는 희인(希仁) 호는 약우(若愚) 본관은 영천으로 계축년(癸丑年 1553)에 장기현 중명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나이 열다섯 살에 경사(經史)를 통달하였으며, 대인의 기상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들을 불러 왜적이 침입해 올 것이니, “네가 나대신 가족을 인솔해서 난리를 피하라” 나는 나라를 위해 사생결단을 하리라 하고 장기현감 이수일에게 달려가 장기성 방어계획을 세우는 한편,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세 차례에 걸쳐 맹세했다. 며칠 후 왜적이 침입해 오자 향인(鄉人) 몇 사람과 함께 향교로 달려가 오성팔현(五聖八賢)의 위판을 용암석굴에 안치시킨 후 의병에 가담하여 장기성을 지키다가 경주부윤 박무의공 진영에 달려가 왜적과 싸워 많은 전공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장사랑훈도(將仕郎訓導)를 제수 받았으며, 삼명서원(三明書院)에 봉향하고 있다.

● **김덕인(金德麟)**

자는 춘약(春若) 호는 하남(河南) 본관은 의성으로 명종 병오년(丙午年, 1546)에 태어났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정하여 팔공산 회맹에 참석한 후 충무공 휘하에 들어가 수군으로서 많은 전공을 남겨 전쟁이 끝난 후 충무위중군좌장(忠武衛中軍左將)을 제수 받았다.

● **이대인(李大仁)**

자는 여원(汝元) 호는 망암(望岩) 본관은 청안(淸安)으로 명종 경신년(庚申年, 1560)에 태어나 선조 기축년(1589)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친형 이대립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흥해 불항동, 형산강 전투에서 왜적과 싸워 전공을 세우고 경

주성과 영천읍성 전투에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자연에 묻혀 은거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 김득복(金得福)

자는 유중(綏仲) 호는 동려(東廬) 본관은 김해로 1561년 어일(魚日)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과 무예를 즐겨 陣치는 법과 궁마술(弓馬術)을 익히고 병서를 탐독하더니,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득상(得祥)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왜적과 싸워 나아곡구(羅兒谷口) 전투에서 戰功을 세웠으며, 蚊川회맹에 참가한 후 경주성 탈환에 크게 功을세웠으며,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 군량미를 조달하였다.

난리가 평정된 후 절충장군 선무원종1등공신에 녹훈(錄勳)되고, 두 아들 孝元, 孝南도 선무원종2등공신에 녹훈되었다.

● 김득상(金得祥)

자는 인중(麟仲) 호는 동오(東塢) 본관은 김해, 兄 김득복과 함께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전술에 뛰어나 지형지물을 이용한 진지구축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팔공산 회맹에 참가한 후 영천성을 회복할 당시 동문 밖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직하니, 당시 나이 34세였다. 전쟁이 끝난 후 선무원종2등 공신으로 녹훈(錄勳)되고 동경지에 등재되었다.

● 김광복(金光福)

호는 죽포(竹圃) 본관은 월성으로 연일현에서 출생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500명을 모집하여 광재우 진영에 들어가 많은 전공을 남겨 전쟁이 끝난 후 훈련원정명(訓練院正命) 도승지(都承旨)를 제수 받고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으로 녹훈(錄勳)되었다.

● 이월천(李月千)

자는 여중(余仲) 호는 모의재(慕義齋) 본관은 영천, 조선조 명종 을축년(1565)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호탕하여 남의 선봉에 서서 호령 하더니 임진왜란을 당하여 인근 동지 500명을 규합하여 청하 땅에 사는 호랑이 같은 의병이라는 뜻으로 청호의진(淸虎義陣)이라 이름하고, 의병으로 출정하여 경주 방어사 박무의공 휘하에서 활약하여 경주 문천 전투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팔공산 회맹에 참가 하는 등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동해 연안 및 경상도 일대에서 크게 전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후 조정에서 제수한 훈작(勳爵)을 사양하고 자연에 묻혀 은둔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 **이응수(李應壽)**

자는 일오(晝五) 본관은 경주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정하여 많은 전공을 쌓아 훈련원참정(訓練院參政)을 제수 받고 선무원종 이등공신에 녹훈(錄勳)되었다.

● **장윤경(張允慶)**

호는 풍금재(風琴齋)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신광 마북에서 태어나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출정하여 전쟁터에서 전술이 뛰어나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케 하였다. 전쟁 중에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였으나 귀가치 않고 소식철죽(素食啜粥)으로 연명하며 진영에서 왜적과 싸우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충효겸사(忠孝兼士)라 하였다.

● **최득수(崔得壽)**

본관은 경주, 참봉 숙(淑)의 아들이다. 병자호란 때 남포 손종노(藍浦 孫宗老)와 함께 의병을 모아 전투에 참전했다가 쌍령(雙嶺)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公의 아우 득인(得仁)이 초훈하여 장례를 지냈다. 그 후에 조정에서 첨정(僉正)이 제수되었다.

● **김연옥(金璉玉)**

호는 연당(蓮堂) 본관은 월성이다. 일찍 학문이 완성 되었으며, 문무겸전하여 항상 나라에 충성하기를 바라던 중 나이 스무 살 되던 해에 충익위(忠翊衛)가 되어 이괄의 난(亂)을 평정하는데 전공을 올려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에 올랐고, 그 후 가선대부 중추부사(嘉善大夫 中樞府使)를 증직 받았다.

● **정처성(鄭處誠)**

본관은 영일, 형양공 정습명(鄭襲明)의 후손이다. 조선 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봉사(訓練院 奉事)에 재직 중 갑자(甲子)변란이 일어나 도원수 장만(都元帥 張晩)과 함께 이괄(李适)을 무찔렀다. 난을 평정하는데 전공을 올려 진무원종공신록(振武原從功臣錄)에 등재되었다.

● **이정선(李挺善, 1622~1697)**

자는 성배(聖培) 호는 삼원당(三願堂) 본관은 경주, 기계에서 출생하였다. 판서 이량(判書 李良)의 후손이며, 첨정(僉正) 이복성(李復性)의 손자이다. 효성이 지극하며 학문과 절의가 뛰어나 여러 번 도천(道薦)으로 복호(復戶)하였으나 세상에 출세하는 것을 꺼려 자호(自號)를 숭정처사(崇禎處士)라 하고 은거 불출하였으며 자손에게 세 가지를 원한다는 뜻으로 삼원당(三願堂)이라하였다.

● 윤백주(尹白胄)

자는 군석(君錫) 호는 천와(泉窩)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조선조 숙종 때 무과에 급제한 후 무신년 인좌란(麟佐亂) 당시 수문장으로 역전(力戰)하여 조정으로부터 패(牌)를 하사 받고 갑주1구(甲冑1具)와 말 한필, 종인(從人) 10명을 받는 몽은(蒙恩)을 입었으며 진무원종공신록(揚武原從功臣錄) 1冊을 비롯 윤음(綸音) 5권을 하사받았다.

● 이선중(李善中)

자는 여경(汝慶) 호는 정의당(正義堂) 본관은 여강(驪江)이다.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의 6세손이며 오의정 이의택(五宜亭 李宜澤)의 현손으로 이인좌 난(亂) 당시 의병을 모집 싸움에 참전한 공로로 조정으로부터 병조좌랑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 장치경(張致景)

자는 국서(國瑞) 호는 송음재(松蔭齋) 본관은 인동(仁同)으로 조선 영조 25년 (1739)에 출생하였다. 다섯 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 여섯 살에 효경을 읽고 부모 모시는 법도를 익혔다. 모친의 병환에 효성을 다하였고 신장이 팔 척 장신이었고, 힘과 용맹이 뛰어나 100근이나 되는 돌을 들고 귀밑에 받치고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인좌란(麟佐亂)에 스물여덟 살 나이로 의병 1,000명을 모집 오명항(吳命恒) 진영에 나아가 안성, 죽산 전투에서 승리하여 훈련원 봉사(訓練院 奉事)를 제수 받았으며, 그 후 통정 부호군(通政 副護軍)에 오르고 신축년에 가선 지중추부사 도총부부도총관(嘉善 知中樞府事 都摠府副摠官)에 올랐다.

● 이팽수(李彭壽)

자는 자수(子壽) 본관은 월성(月城) 훈련봉사 이윤광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천계(天啓)4년 (1625)이괄의 난을 당하여 병판군관(兵判軍官)으로 쌍수산성(雙樹山城)에 들어가 난을 평정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어가(御駕)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가 철퇴로서 많은 적군을 물리쳐 임금님으로부터 선전청벽(宣傳廳壁)에 적을 무찌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불이라는 명을 받아 공(公)의 위업을 기렸다. 그 후 '일편단심'이란 네 글자를 전서(篆書)로 써서 맹세하니 효종임금이 공의 집을 방문할 때 그것을 보고 충신이라고 하고 크게 치하(致賀)하였다.

● 박홍두(朴弘斗)

공은 본관이 밀양으로 구봉 박춘우(九峯 朴椿遇)의 아들로 태어났다. 병자호란 당시 훈련원참군(訓練院 參軍)으로 의병을 인솔하여 경기도 광주 쌍령(廣州 雙嶺)에서 청나

라 군사와 싸우다가 포위되어 휘하 장병 수십 명과 혈전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자결하였다.

● **천명구(千明球)**

죽장면 봉계리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부칙(夫則) 호는 두곡(斗谷) 무과에 장원했고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 龍驤衛副護軍)을 지냈으며 동지중추부사를 증직 받았다. 무관으로 출사하여 기록을 남겼고 죽장면 두마리 밀계봉(密桂峰)에 묘비가 남아 있는데 망주석이 남근(男根)모양으로 특색이 있다.

● **윤 빈(尹 鑛)**

자는 광포(光甫) 본관은 파평(坡平)이며, 윤백주(尹白胄)의 아들로 청하면 서계리에서 태어났다. 첨절제사(僉節制使) 수문장을 지내다가 을해년에 도적떼가 일어나 조야(朝野)가 크게 혼란함에 명을 받고 출정하여 춘천 등지에서 도적을 무찌르고 개선하니 양무원종공신(揚武原從功臣)으로 녹훈되고 마패(馬牌)와 말 1필을 하사받고 종인(從人) 1명과 윤음(綸音) 3책, 공신록 3책을 상(賞)으로 받았다.

● **배태봉(裴泰鳳, 1757~1810)**

자는 내서(內瑞) 본관은 달성(達成)으로 고려개국공신(高麗開國功臣) 배현경(裴玄慶)의 31세손이며 달성군 배운용(達成君 裴雲龍)의 25세손이다. 영일현 북면 굴암리(屈峇里) 입향조인 통정대부 공조참의 윤필(通政大夫 工曹參議 雲弼)의 손자이며 통훈대부 군자감정 영희(通訓大夫軍資監正 永熙)의 장자로 굴암리에서 출생하여 편모슬하에서 자랐으나 남달리 총명하여 인근 사람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공은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1776년(丙申)영조의 승하소식을 듣고, 곡(哭)을 하며 상경하여 아버지에게 못한 효도를 충심으로 나라님께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왕릉에 3년동안 배알하며 시름 하다가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귀향하여 장례를 지낸 후 시묘 3년을 살았다.

● **배백원(裴百源, 1781~1865)**

자는 인숙(仁淑), 본관은 달성이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宜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경희궁위장(慶熙宮衛將)으로 경신년 국휼(國恤)당시 시름으로 임금님 특명을 받아 서울에 올라왔다. 손가락으로 촛불대신 충절을 시험하니 공이 손가락에 불을 붙여 무명지를 태워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자 임금님이 가상하게 여겨 그 이튿날부터 입시(入侍)토록 한 후 시릉(侍陵)토록 명하였다. 시름 3년 동안 십 리에 걸쳐 소나

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니 사람들은 그 곳을 배림(裵林)이라 일컬었다. 갑오 정사 계해년까지 시릉으로 있다가, 국제(國制)를 마치지 못하고 예릉(睿陵) 밑에서 세상을 뜨니 나라에서 정려하였다.

● **김천익(金天翼, 1796~1875)**

조선 연산군 때 이조정랑으로 있으면서 무오사화 때 조의제문을 사초에 올려다는 이유로 연산군에 의해 능지처참을 당한 영남학과의 영수 김종직의 수제자 김탁영의 11세손으로 당시 행정구역상 흥해군 남면(현 포항시 남구 자명동 입구) 일대에 거주하던 유학자로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대동강에 쳐들어와 병인양요를 일으키자 고향에서 사병 창의문을 작성, 널리 알리고 사병 200여명을 모집, 대동강에서 프랑스 함대 격퇴작전에 참전하였다. 현재 공의 문중에서 당시 창의문을 소장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역사편 참조)

● **배득중(裵得重, 1817~1893)**

자는 경문(慶文)이며, 본관은 달성으로 충신 배백원(裵百源)의 아들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순박하고 부드러워 향인들로부터 선행한다는 칭송을 받았으며, 아버지에게 충효의 법도를 익혔다. 戊寅, 庚寅 양년국휼시(兩年國恤時)에 시릉 3年하였으므로 나라에서 특명으로 부자(父子)를 정려하였다.

2. 효자·열녀(孝子·烈女)

1) 효자

● **하영식(河永湜)**

구룡포 구평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향리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친이 병환으로 10년 동안 앓아눕게 되자 명의와 선약(仙藥)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고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해안지역이라 엄동설한에도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아 반찬으로 대접하였다. 꿩이 좋다는 말을 들었으나 구할 길이 없어 고심(苦心)을 하면서 낚시를 하던 중 난데없이 꿩 한 마리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물에 뛰어 들어 꿩을 잡아 정성껏 장만하여 어머님께 드리니 병환이 완쾌되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거늘 하늘이 공을 도운 출천지효자(出天之孝子)였다. 조선조 고종21년(1884)에 진주하(河)씨 문중에서 비를 세우고 선효각(善孝閣)을 건립하였다.

● 배두여(裴斗汝)

어려서부터 천품이 온후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극진히 섬기었다. 나이 네 살 때의 일이었다. 부친이 병이 들어 자리에서 신음하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강가에 빨래하러 간 사이에 아버지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숨을 몰아쉬게 되었다.

그 때 난데없이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문이 닫히는 순간 손가락을 다쳐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린 마음에도 그 피를 아버지 병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 입에 갖다 대고 “아버지 호 해줘, 호 해줘!”하며 울면서 말하니 손가락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저절로 병든 아버지의 입에 떨어졌다.

그런 일이 있던 후 부터 아버지의 병세가 차츰 회복되어 건강을 찾게 되니 이 사실이 이웃에 전해지자 하늘이 내리신 효녀라 하며 칭찬이 자자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흥해군수는 크게 감탄하여 상을 내리고, 1935년 비를 세우게 하고 정려하였다.

그 후 평해 황(黃)씨 가문에 출가하여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니 효부로도 널리 알려져 배씨 문중에서는 비를 세우고 황씨 문중에서는 비각을 세웠다. 정려각(旌閭閣)은 흥해읍 남성리 118-1번지에 있다.

● 홍순필(洪順必)

기계면 화대리 경주 김씨 가문에 출가하여 홀로 계시던 시어른을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으며, 특히 부친이 맹인이면서도 술을 좋아하므로 수년 간 매일 같이 등에 업고 면소재지까지 내려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드리고 해가 지면 다시 등에 업고 집에 모시고 가는 등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향인(鄉人) 전체가 칭송하게 되자, 나라에서 효부상을 내리고 현모양처로서 타의 귀감이 되었다. 효부비(孝婦碑)는 1970년에 기계면 화대리 467-5번지에 건립되었다.

● 허 기(許 琦)

본관이 김해로 장기면 금곡리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18세에 부친상을 당함에 묘소 옆에 움막을 지어 조석으로 묘를 지키며 효성을 다하였고,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는 나이가 어려서 묘소를 길지에 드리지 못하였음을 가슴아파해 오던 중 뒤 늦게나마 예를 갖추어 다른 곳에 이장한 후 제사를 드리니 술 석 잔이 모두 말라 없어지므로 이상히 여긴 나머지 부친 기제시 유식지경(忌食之頃)에 합문소퇴(閤門少退)한 후 고개를 들어보니 돌아가신 모친이 생시와 같이 제상에 앉아 계시어 제사를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한다.

● **효부 곡강최씨(孝婦 曲江崔氏)**

허기(許琦)의 아들 허식(許湜)의 처로서 허씨 집안에 시집온 지 8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3년 동안 머리를 빗지 아니하고, 시어머니께 정성을 다하였다. 시어머니가 이질에 걸려 달포가 넘도록 자리에 누워 계시므로 주야로 옷도 벗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잠시도 결을 떠나지 않고 변을 손수 받아 처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였다.

● **효부 월성최씨(孝婦 月城崔氏)**

허기(許琦)의 아들 허운(許濶)의 처로서 천품이 온화하여 허씨 가문에 시집온 후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더니 시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직접 변(便)을 받아내며 변의 맛을 보아가면서 병환의 상태를 점검하며 간호하였다. 겨울이 닥쳐 찬바람이 불고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시아버지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 고기를 팔러 다니는 상인이 없어서 구할 길이 없으므로 길거리를 헤매다가 돌아오는데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와 도로변에 앉으므로 쫓아가서 손으로 잡아 저녁 반찬을 해 드리는 등 효성이 지극하여 고을 전체에 칭송이 자자하므로 도내유림(道內儒林)이 연명하여 경상 감사와 예조에 상계를 올려 조정에서 효자효부의 정려가 내려 한 집안에 삼효각(三孝閣)을 지어 함께 모시게 되었다. 삼효각(三孝閣)은 조선조 순조 10년(1810) 장기면 금곡리에 건립하였다.

● **장인풍(張仁豐)**

공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고 성품이 온후하여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농담하는 일이 없었다. 여섯 살 때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께서 노하시어 매를 들고 쫓아오자 잠시 도망치다가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숨이 가쁘게 따라오시는지라 “어머니 숨이 가쁘신 것 같으니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말하여 어머니의 노여움을 풀게 한 일이 있으며, 공이 열두 살 되던 해에는 한 겨울에 생선을 먹고 싶어 하므로 고심 끝에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울음을 터트렸더니 갑자기 얼어붙은 강물 속에서 물고기가 얼음위로 솟아오르므로 그 고기를 잡아 시탕하고, 하늘에 기도하였더니 신선이 나타나 손가락으로 앞산을 가르키며 저곳에 약초가 있으니 그것을 캐어 달여 드리라고 하기에 그대로 실행하였더니 병이 완쾌되어 오래토록 장수하였다고 한다. 이 소문이 고을에 널리 알려져 1927년 장기면 양포리에 비(碑)를 세우고 정효각(旌孝閣)을 건립하였다.

● **김사민(金士敏)**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더니 15세 때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을 때 의원

이 진맥을 하고 두꺼비를 약으로 쓰면 병이 완쾌될 수 있다고 하므로 정성을 다해 하늘에 기원하니 백발노인이 나타나 동쪽 20 리 바위 밑에 가면 두꺼비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곳에 달려가 눈을 헤치고 땅을 파니 두꺼비 한 쌍이 있어 시탕하였더니 병이 나왔다. 그런 후로 부친이 다시 병이 들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연명시키기도 하였으며, 그 후 부모 喪에 여묘(廬墓)3년을 살았다. 公의 효행이 널리 알려져 조선조 光武 2년(1898) 비(碑)를, 장기면 임중리에 정효각(旌孝閣)을 세웠다.

● 최학진(崔學振)

공(公)은 본관이 월성으로 어려서부터 성품이 어질고 너그러우며 효성이 지극하여 정성껏 부모를 섬겨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1927년 公의 효성을 기리어 장기면 산서리에 비를 세우고 정효각(旌孝閣)을 건립하였다.

● 김시상(金時相)

공은 조선조 영조 때 사람으로 장기면 산서리 경주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장기 월성(城內) 시장에 나무를 해다 팔아서 식량을 구해 노부모를 봉양해 왔는데 하루는 장터에 갔다가 지계를 지고 고기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데없이 술개가 날아와 고기를 빼앗아 가기에 공은 자신의 효심이 부족함을 탄식하며 다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술개가 물어간 고기를 공의 마당에 떨어뜨려 놓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후 부친이 위독하여 운명하려 하자 공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부친의 입에 주혈(注血)하니 5년이나 더 수(壽)를 하였다고 한다. 하늘이 내린 효자를 나라에서 알고 효자각(孝子閣)을 세우게 하니 영조 23년(1747)이었다.

● 황순(黃 絢)

자는 중소(仲素) 호는 일성재(日省齋) 본관은 회덕(懷德)으로 고려 좌명공신(佐命功臣) 회천군 황윤보(懷天君 黃允寶)의 후손이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범절이 있더니 나이가 들면서 효경에 통달하여 노인들의 선행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었으며, 외조부 생원 정삼계(生員 鄭三戒)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부친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항시 변을 맛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등 아버지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부친이 정난젓갈을 찾으셨으나 계절적으로 구할 수 없어 진상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평생 동안 정난젓갈을 먹지 않았다. 여묘 3년을 살면서 피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였다. 부친의 묘소 가까이 집을 지어 학문을 닦으면서 조석으로 성묘하고 그 속에 단(壇)을 만들어 놓고 남

극성(南極星)에 기도하였다.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묘 3년을 살았으며, 이웃에 불효한 자가 있으면 벌을 주기 전에 선한 방법으로 교화하여 효도케 하기도 하였다.

● 이종간(李宗幹)

자는 가주(可柱) 호는 경헌(敬軒) 본관은 경주로 기계 입향 시조 도원공 이말동(桃源公 李末叟)의 아들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을 제수 받은 후에 다시 의릉참봉(宜陵參奉)을 제수 받았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孝道는 사람의 자식으로 당연히 하여야 할 직분이거늘 하물며 실속이 없음에도 잘못해서 몽은(蒙恩)을 입어 벼슬하는 것은 나의 참뜻이 아니다.” 하였으며, 또한 임종 시에도 죽은 후 신주(神主)에는 학생(學生)이라고 쓰도록 유언하였다 한다.

● 최 겸(崔謙)

호는 진와(慎窩)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신라원보공(新羅元補公) 최은함(崔殷含)의 후손으로 벼슬이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올랐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고, 돌아가신 뒤에 여묘 3년을 살았다.

● 이광익(李光翼)

기계현에서 태어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홀로 계신 모친을 모시고 살았다. 집이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할 처지임에도 모친에게는 항상 좋은 밥상을 마련해 드리니 이웃 사람들이 공의 효심에 감동하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오면 공(公)은, 반찬과 음식은 사람이 먹고 살며 제사를 모시는 데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 집은 부지런히 일만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제사를 모시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며 일체 받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모친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방이 차가우면 밤중에도 일어나 불을 지폈다. 하루는 불을 지피다가 바람이 불어 아궁이 밖으로 튀어나와 공의 수염이 타도록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그 후 모친이 세상을 떠나니 슬퍼하며, 장례를 치름에 정성을 다하였고, 3년 동안 죽을 먹으며 상을 마쳤다. 만년에는 부모님 묘소 아래 집을 지어 살면서 평생토록 사모하였다.

● 이원량(李元良)

조선조 중종 때 사람으로, 청하 오두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영천이다, 네 살 때 양친이 다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랐다. 나이가 들어 부모님에 대한 정성을 못다 한 죄책감에 6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그 후 친형이 풍병(風病)으로 사경에 이르자, 백사(白蛇)가 좋다는 말을 듣고 뱀을 잡아 생회를 만들어 먼저 맛을 본 다음 형에게 드리

니 형의 창병(瘡病)이 곧 나왔다. 나라에서 정문(旌門)하고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제수하고 1715년에 세운 효우려(孝友閭)가 남아있다.

● 박춘우(朴春遇)

호는 구봉(九峯) 본관은 밀양으로 벼슬은 훈련원(訓練院) 주부(主簿)를 지냈다. 평소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선생에게 놀러 다니며 학문의 참뜻과 성리심근지지(性理心近之旨)를 연구하여 당시 성리학자로 이름이 높았으며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여묘 6년을 살았다. 향인들이 효자로 천거하여 선산부사(善山府使)를 제수 받았다.

● 김석경(金錫慶)

본관이 김해로 유수공 김운(留守公 金芸)의 후손이며 호는 남해(南海)이다. 나이 12세 되던 해 조부상을 당하여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슬퍼함이 지나칠 정도였다. 14세 때 모친이 병환으로 기절하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입에 주혈(注血)하여 회소시켰다.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정성껏 부모를 섬겼으며, 형제간에 우애우독(友愛尤篤)하여 고을 전체가 칭송하더니 가선대부해남현령(嘉善大夫海南縣令)으로 발탁되었다.

● 권 목(權穆)

자는 심중(深中) 본관은 안동으로 동봉(東峯) 권극립(權克立)의 증손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효도를 다하였으며, 나이 67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례를 지낸 후 묘소 아래 여막을 짓고 시묘 살이를 하던 중,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돌아오니 집이 불에 타고 있었다. 황급히 달려가 사당에 모셔 놓은 신주를 다른 곳에 옮겨 놓고, 모친신주를 모시러 사당에 들어가는데 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신주를 안은 채 불에 타 죽고 말았다. 공의 효성이 알려지자 당시 경상도관찰사 조태억(趙泰億)이 조정에 보고하여 정려하였다.

● 전 희(田禧)

극진한 효행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여묘 3년을 살았으며 묘소 옆에 집을 짓고 조석으로 곡(哭)을 하니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정려하였다. 지금도 효자비가 효자초등학교 교정에 있다.

● **강덕우(姜德佑)**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계신 모친을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다. 하루는 집에 불이나 온 집안이 불길에 쌓여있는 데에도 방으로 달려가 모친을 구하려다가 모친은 구했으나 공(公)은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조정에서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정려하였다.

● **이원삼(李元三)**

공(公)의 모친이 밤중에 범에게 물려가니 공은 급해서 대나무 막대기 한 개를 들고 범이 달려가는 대로 황급히 따라 가면서 범을 보고 꾸짖기를 “네가 어째서 우리 모친을 해치려 하느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하며 범과 싸우는데 어디서 공(公)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므로 돌아보니 모친이었다. 그래서 범을 따라가다 말고 모친을 등에 업고 집에 돌아오니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그런 후로 오래도록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 조선조 순조 때 나라에서 포상하였다.

● **한여술(韓汝述)**

본관이 청주로 문간공(文簡公) 한상경의 6세손이며 효자로 이름난 한봉산(韓奉珊)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한 효성으로 7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예(禮)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모친이 한 겨울에 생선회를 구하시므로 울면서 밖에 나와 곡강(曲江)에 달려가니 얼음이 깨어지면서 잉어 두 마리가 뛰어올라왔다. 잡아다가 반찬으로 장만하여 드리니 모친의 병이 나았다.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여묘 3년을 살았다. 그 후 조정에서는 정려하고, 당시 학문이 뛰어난 농수(農叟) 최천익과 구암(懼岩) 이수인이 효자부자(孝子父子)를 정려기(旌閭記)에 함께 기록하니 공의 행적이 삼강록(三綱錄)에 등재되었다.

● **이도겸(李道謙)**

자는 호녀(好女) 호는 구봉(九峰) 본관은 경주이다. 종정처사삼원당 이정선(宗禎處士 三願堂 李珽善)의 손자로 태어나 천성이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여 10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성인처럼 집상(執喪)하였고 조부가 종기로 고생하시자 입으로 빨아내어 병을 낫게 하였으며, 모친이 병환에 계실 때 손가락을 끊어 피를 주혈(注血)하기도 하였다. 여묘 3년을 살았고, 평생토록 삭망을 지내며 효성을 다하였다.

● **이계집(李啓集)**

자는 사원(士元) 호는 죽헌(竹軒) 본관은 월성이며, 이판(吏判)을 지낸 이선(李瑄)의 현손(玄孫)이다. 하늘이 내린 孝子로 모친이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壇을 만들어

하늘에 기도하면서, 3년 동안이나 밤에 옷을 벗지 않고 정성을 드렸더니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의 정성이 가특하다. 네 마음 내키는 대로 가다보면 반드시 영약(靈藥)을 구하리라” 하거늘, 깨어보니 캄캄한 밤이라, 밖에 나와서는 희미하게 비치는 길을 따라 가다보니 천곡사(泉谷寺) 서운암(瑞雲庵)에 이르게 되었다. 집에서 삼십 리나 떨어진 높은 산 밑에 있는 암자 옆 대나무 숲 속에서 대나무 한 그루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시탕하니 모친의 병환이 나았다. 사람들은 모두가 신기하게 여겼으며, 소문이 나라에 전해져 참봉에 제수되었다.

● 최 숙(崔 淑)

본관은 경주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갔으나, 마침 아버이 제삿날이라 공(公)이 집에 있었는데 왜적이 마당에 쳐들어 왔으나 조금도 겁내는 빛이 없이 제사를 행예(行禮)하였다. 이 광경을 지켜 본 왜적들이 공(公)의 효성에 감복해서 장검 한 자루를 놓아두고 가 버렸다. 병자호란 때 그의 아들 득수(得壽)가 장검을 들고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쌍령(雙嶺)전투에서 순국하니 사람들이 수차 장계를 올려 현릉참봉(顯陵參奉)을 제수 받았다.

● 김계영(金啓榮)

호는 돈옹(遯翁) 본관은 경주이다. 문절공 십청헌 김세필(文節公 十淸軒 金世弼)의 현손으로 성품이 지효하여 부친상에 여묘 3년을 살았다. 나라에 효자로 천거되어 침랑(寢郎)을 제수 받고 후에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증직 받았다.

● 손덕침(孫德沈)

본관은 밀양으로 모암 손을상(慕庵 孫乙相)의 후손이다. 부친이 병환에 계시면서 한 겨울 눈이 내려 온 들판이 하얗게 쌓였는데도 생 미나리를 청하시므로 공이 백방으로 다니면서 구(求)해다가 진상하니 나라에서 예빈시참봉(禮賓侍參奉)을 제수하고, 그 후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정, 전공을 세워 공주참의를 증직 받았다.

● 정상렴(鄭相濂)

본관은 오천으로 정사도(鄭思道)의 16세손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13세에 모친상을 당하여 슬퍼하기를 성인(成人)과 같이 하였으며, 20세 때 부친이 병으로 오래도록 자리에 눕게 되자 백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다. 그래서 공(公)은 칼로 살갓을 베어 부친 몰래 약으로 드리니 병(病)이 회복되었다. 그 후 부친께서 술과 생선회를 즐기시므로 공은 가난한 살림에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매일 시장에 나가 생선과 술을 구해 오니 이웃 사람들이 가칙(柯則)이라 하였다.

● **김성한(金成漢)**

자는 종량(仲亮) 본관은 경주로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이를 모심에 여름철에는 부채로 서늘하게 하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모셨으며, 부친 병에 사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비바람을 가리지 않더니 부친상을 당하여 여묘 3년을 살았다.

● **진경룡(陣慶龍)**

자는 운서(雲瑞) 호는 수상(洙上) 본관은 경주로 현감 진백년(陳百年)의 현손이다. 경사에 박통하였으며, 부친상(喪)에 여묘 3년을 살았다.

● **정추한(鄭秋漢)**

부친 병환에 단지회소(斷指回甦)하여 정려(旌閭)하였다.

● **주세숙(朱世淑)**

부친 병환에 단지회소(斷指回甦)하여 정려하였다.

● **이시현(李時鉉)**

자는 옥경(玉卿) 호는 만호당(晩海棠) 본관은 경주로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를 다하여 음식 맛을 본 후에 진상하였으며, 친환(親患)이 있어 약을 구하러 갔다가 큰 비가 내려 돌아올 수가 없어 밤새도록 소리 내어 울다보니 냇물이 얼어붙어 집에 돌아와 시약(試藥)하였다.

● **이홍리(李弘離)**

자는 맹유(孟猷) 호는 용와(慵窩) 본관은 경주이다. 천성이 지효하여 모친상에 여묘 3년을 살았다.

● **이홍림(李弘臨)**

자는 중유(仲猷) 호는 고암(顧庵) 이홍리(李弘離)의 친동생으로 효행이 고을에 칭송되었고, 모친상에 형제가 함께 여묘 3년을 살았다.

● **김을적(金乙適)**

고려 평장사(平章事)벼슬을 지낸 김인경(金仁鏡)의 후손으로 조선조 태종 때 울주부사(蔚州府使)로 제수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조정에 나아갔어도 이효사충(移孝事忠)을 몸소 실천하였다.

● **김시상(金時相)**

이름은 시명(示鳴) 자는 윤중(允中) 호는 효암(孝庵)이며, 본관은 월성이다. 효행으로 정려(旌閭)하였다.

● **이양호(李養浩)**

자는 사집(士集) 본관은 경주, 구봉(九峯) 이도겸(李道謙)의 증손으로 성효(性孝) 근천(根天)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빙어지험(氷魚之驗)이 있었고, 거상시(居喪時)에 철죽(啜粥)3년을 지내니 현감이 이 소식을 듣고 현리(縣吏)로 하여금 고기와 쌀을 보내니 끝내 사양하였다. 만년에는 용연정(龍淵亭)을 짓고 편액(扁額)을 영모(永慕)라했다.

● **이요신(李堯臣)**

자는 훈보(勳補) 호는 놀와(訥窩) 본관은 경주이다. 만해당 이시현(晚海堂 李時鉉)의 아들로 사친지효(事親至孝)하여 부친의 병환에 똥(糞)을 손가락으로 맛을 보며 약을 구해 시약하였고 거상(居喪) 3년 동안 고기와 집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 **김준탁(金俊鐸)**

자는 원문(遠聞) 호는 서포(西浦) 벼슬은 부호군(副護軍)으로 영추헌 김명옥(迎秋軒 金鳴玉)의 손자이다. 성품이 순박하고 행실이 돈독(敦篤)하여 부모를 섬김에 효도를 다하였으며, 몸과 마음으로 효친의 도리를 행하였고, 친환(親患)이 위독할 때 치성을 다하여 옥산(玉山)에서 100일 불해(不懈)하니 현몽(現夢)에 신인(神人)이 알약을 주어서 시약하니 병이 나왔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백일 단(壇)에 장례지내고 조석성배(朝夕省拜)를 종신토록 하니 오륜행실록에 기록되었다.

● **곽시주(郭時柱)**

자는 춘경(春景) 호는 지재(止齋) 본관은 현풍(玄風)으로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곽영좌(郭永佐)의 아들이다. 처음에는 죽장면 옥계리(玉溪里) 마슬산(磨瑟山) 아래에 살았다. 10세 때 부친을 여의고 편모를 모시고 살면서 모친이 복통(腹痛)으로 고생하시자 의원에게 약을 구하러 가니 백목(白木)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공이 그 말을 들은 후에 산으로 백목(白木)을 찾아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으나 공(公)은 겁내지 않았다. 공(公)이 “네가 나를 해치려 하느냐?”하고 말하니 고개를 저었다. “그럼, 네가 나를 도와주겠느냐?”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호랑이가 가는데로 따라 가보니 모친의 방 앞에 도착했다. 모친이 크게 놀라거늘 공이 사실대로 고하였다.

모친이 세상을 떠난 후 墓 곁에 여막을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제

사 지낼 때 사용하는 쌀이 흠어져 있으므로 가만히 보니 쥐가 두 마리 쏘다녔다. 공(公)이 이 광경을 보고 불효지죄(不孝之罪)가 막대하다며 슬퍼하니, 쥐들이 묘정(墓庭)에 죽어 있었다. 추운 어느 겨울날 무덤에 눈이 쌓여 있기에 공이 슬피 울고 있으니 호랑이가 와서 꼬리로 눈을 쓸어 주었고, 꿩 한 마리가 솔개에게 쫓기는 것을 묘막(墓幕)에 숨겨 주었다가 살려 보내주니, 밤에 묘막 밖에서 울었다. 공이 놀라 깨어보니 새벽 신곡지시(晨哭之時)였다. 그 후로 밤마다 그 시간만 되면 꿩이 와서 울었다. 中年에 청하현 남쪽 응봉산(應峯山) 아래에 와서 살면서 서옥(書屋)을 지으니 원근에서 많은 선비들이 몰려들었다 한다. 공의 사실은 오륜행실록(五倫行實錄)에 기록되었다.

● 김자흥(金字興)

자는 경천(擎天) 호는 양진재(養眞齋) 본관은 경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천자순효(天資純孝)하여 몸소 검약함을 실천하였고, 글을 즐겨 사부(詞賦)에 이름이 높았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입양(立揚)한들 무엇하리요”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였다.

● 이인칠(李寅七)

자는 주칙(周則) 호는 학포(學圃) 본관은 월성이다. 천성이 효자로서 할머니 이씨가 노환으로 늦은 봄날인데도 얼음을 칭하므로 하늘에 빌어 산골짜기에서 구해드리니 갈증이 풀렸다. 또한 모친이 종기로 위독하자 밤낮으로 입으로 빨아 낫게 하였다. 공의 행적이 오륜행실록에 기록되었다.

● 하세만(河世萬)

호는 매헌(梅軒) 본관은 진주이다. 자성효자(姿性孝慈)하여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정성지례(定省之禮)를 한 번도 거르는 일이 없었다. 부친이 청맹(靑盲)의 병으로 몇 년을 고생하시니 의원이 말하기를 매일 소의 간을 복용하면 효험이 있다고 하나 집이 가난하여 어쩔 수 없었다. 하늘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중, 갑자기 솔개 한 마리가 괴(塊)를 떨어뜨리므로 공(公)이 놀라 풀어보니 소의 간이었다. 부친에게 시약(侍藥)하니 병이 곧 나았다. 부친상에 여묘 3년을 살고 나라에서 효행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증직하고 정려하였으며 대보면 대보리에 정효각(旌孝閣)이 있다.

● 백규옥(白圭玉)

아전(郡吏) 백수채(白受采)의 아들이다. 모친이 병이 들어 기절하니 단지(斷指) 회소하였다.

● **이형익(李亨益)**

사인(士人)으로 부친이 병환으로 위독할 때 단지회소(斷指回甦)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도장(道狀)이 있었다.

● **이학해 (李學海)**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8세에 모친이 온역(瘟疫)에 걸렸을 때 온 집안 식구가 전염병이라고 집을 피해 나갔으나, 公은 소나무를 꺾어 와서 죽을 끓여 드리며 밤낮으로 간호하여 병을 낫게 하였고, 조부가 노병으로 각기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자, 시측(侍側)에서 해의결대(解衣結帶)하며 정성을 다하였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거상에 휘(居喪哀毀)하니 고을 전체가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그런 후에 나라에서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증직하였다.

● **이득원(李得源)**

사인(士人)으로 사친진성(事親盡誠)하여 도장(道狀)이 있었다.

● **김종한(金宗漢)**

모친이 병환으로 기절하니 公이 단지(斷指) 출혈하여 회소하였다.

● **임동식(林東植)**

임정대(林鼎大)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 모친이 병환으로 기절하니 公이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회소하였으며, 부친이 병에 걸렸을 때 꿈에서 약초를 구하도록 현몽하여 병을 낫게 하였다. 효자로 추천하는 도장(道狀)이 있었다.

● **정기홍(鄭基弘)**

모친이 병으로 기절하니 公이 단지주혈(斷指注血) 하였으나 피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두세 번을 연거푸 입에다가 피를 쏟으니 비로소 호흡하기 시작해서 다시 깨어났다. 향장(鄉狀)이 있어 암행어사가 조정에 보고하여 포상을 받았다.

● **손봉조(孫鳳祚)**

손채국(孫彩國)의 아들로 부모를 섬김에 효성을 다하였으며 부친이 병이 들자 새벽 일찍 진삼(進參)하고 약을 달여 드리고, 상분감고(嘗糞晷苦)하였으며 향장(鄉狀)이 있었고, 암행어사가 조정에 보고하여 포상을 받았다.

● 이진홍(李震弘)

자는 홍의(弘衣) 본관은 경주로 한성부좌윤 이호현(漢城府左尹 李護顯)의 아들이다. 얼굴이 청수(淸粹)하고 눈이 빛나 풍채가 보는 이로 하여금 온후하게 느끼게 했다. 어버이를 섬김에 지극히 효도하여 적구지미(適口之味)를 상시 준비하여 떨어짐이 없도록 하였고, 부친이 세상을 떠남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3년 동안이나 육식을 하지 않고 꿈에서 길조를 얻어 장례를 지냈고 편모를 모심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여 시탕할 때에도 자제들을 시키지 않고 공이 직접 약을 달여 드렸다. 모친의 묘소를 집 뒤편에 안장한 후 사람들의 口舌에 오르내리게 되자 자칭죄인이라 하고 평생토록 후회하였다 숭정대부판중추부사(崇政大夫判中樞府事)를 지냈다.

● 정대휴(鄭大休)

자는 광세(光世) 호는 만봉(萬逢) 본관은 영일이다. 어려서부터 효애(孝愛)가 근천(根天)하여 엄동설한에도 생선을 구해오고 설굴(雪窟)속에서 산삼을 캐어 와서 부모님을 봉양(奉養)했다. 부모상에 여묘를 살았고, 정조 승하 시에는 3년을 시름 하니 사람들이 건릉효자(健陵孝子)라 하였다. 순묘상(純廟喪)에도 산위에 올라가 망곡(望哭) 3년을 지내니 사람들이 그 산 이름을 연주봉(戀主峯)이라 하였다. 병술년에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겸경연참찬관(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을 증직 받았다.

● 김려성(金麗成)

자는 성보(盛甫) 호는 삼밀와(三蜜窩) 본관은 경주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모친을 섬김에 효도를 다하였으며 마음으로 모친을 받들며 안 노인네들 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쌀 한 말과 고기반찬을 제공하기를 26년이나 하였다. 그로 인하여 도백(道伯)이 효자로 포상하고 복호(復戶)토록 해 주었다.

● 황계동(黃啓東)

본관이 평해(平海)로 어릴 때부터 지성으로 어버이를 모셨다. 18세 되던 해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모친이 일찍이 과부된 것을 가슴 아파하며, 모친이 산돼지 고기를 청하시므로 혼자 입산하여 산돼지를 돌로서 때려잡아 모친에게 진상하였고, 모친이 병이 들자 하늘에 기도하기를 공이 대신 병을 앓게 해달라고 하니 곧 차도가 있었다. 거상(居喪)에 집을 달리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같이 살면서 한쪽 방에는 수완(水椀)을 두었다. 모친이 평소 천등번개를 싫어하므로 장례를 깊은 험준한 산속에 지냈다. 집에 있다가도 번개가 치면 모친 묘소로 달려가 호곡(號哭)하면서 3년 여묘를 살았다. 암행어사와 도신(道臣)이 서로 상계를 올려 복호(復戶)하고, 권제경(權濟敬)이 문집에 등재

하여 전하고, 공의 현손(玄孫) 황기석(黃錫基)과 사림(士林)이 수계수갈(修稷堅礪)하고 묘비를 세웠다.

● 김상옥(金相玉)

자는 장백(章伯) 본관은 경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김여성(金麗成)의 아들이다. 어릴 때 종이로 무명지 손가락을 감싸서 나중에 부모님이 병환에 계실 때에 지혈할 때 사용하려고 한다더니, 그 후에 부모님이 운명하려하자 차례로 손가락을 끊어서 연수(延壽)토록 하였다. 잘린 손가락을 주머니에 넣어 상자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도둑이 들어 그 주머니를 훔쳐 갔다가 며칠 후에 새들이 주머니를 물고 와 뜯어 떨구어 놓고 지저귀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학산 속에서 밤중에 아버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니 호랑이가 와서 보호해 주었다. 이 사실을 나라에서 알고 정려복호(旌閭復戶)하였다.

● 최세의(崔世義)

자는 종건(鐘健) 본관은 월성이다.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모친이 병환으로 3년동안 고생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병세가 위급하여 단지관혈(斷指灌血)로 희생하였다.

그 후 부친이 병환으로 여러 달자리에 눕게 되어 한 겨울철인데도 생 잉어를 청하심에 강에 나가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해 드렸다. 돌아가신 후에도 애훼유례(哀毀踰禮)하였고, 문장이 뛰어났다.

● 박복룡(朴福龍)

치동양인(致洞良人)으로 공의 부부가 눈이 먼 노부를 지성으로 모시고 살던 중 늦게 자식을 두었더니 그 아이가 문에서 나와 변소에 빠져 즉사하였다. 부친이 애기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물으면 다른 말로서 대답하고는 부친에게 상심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루는 유숙지분(幽菽之盆)을 퐁물단지인줄 알고 버리니 공의 처가 그 단지를 다시 가지고 와서 국을 담아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 박휘석(朴徽錫)

자는 순오(舜五) 호는 동화(東華) 본관은 밀양이다.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어릴 때 부친을 여윈 것을 한하여 홀로 계신 모친봉양에 정성을 쏟았다. 최종지 유고집(崔重之遺稿集)과 이회경(李晦慶)의 이문록(異聞錄)에 의하면 남들이 공부하기를 권유하면 공(公)이 답하기를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늘 누구를 위해 영화를 누릴 것이며, 농사를 열심히 지어본들 누구를 봉양한단 말인가” 하고 세상사에 상관하지 않았다 한다.

● **조진해(曹振海)**

자는 대언(大彦) 본관은 창녕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한겨울 밤이 추우면 老父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고, 여름날에 부친이 다리가 불편해서 옷을 벗지 못하면 노부(老父)를 업고 뒷뜰 시원한 곳에 모셔드렸다. 공(公)의 효행사실은 학남(鶴南) 이회경의 이문록에 기록되어 있다.

● **한언국(韓彦國)**

본관은 청주이다. 아버이 섬김에 효성을 다하여 비록 오래된 조상일지라도 조상의 은혜에 광국(光國)과 함께 영일 북면 용당리에 이진 한 후 이곳에 이사해 와서 살게 되었다.

● **김필만(金必萬)**

호는 덕봉(德峯) 본관은 경주이다. 태어날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친상을 다 하여 오래도록 봉양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삼년상이 끝나는 날까지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모친을 섬김에는 집이 가난하여 나무를 해 와서 시장에 팔아 반찬을 마련했다. 모친상에는 묘소 옆에 결막(結幕)을 하고 아침저녁으로 통곡하며 삼년상을 지내니,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막곡(幕谷)이라 불렀다. 그 후에 효행으로 가선대부 공조참의를 증직 받았다.

● **김세만(金世萬)**

호는 창암(蒼岩) 본관은 경주로 효성이 지극하고 재주가 뛰어났다. 10세에 부친의 등에 종기가 생겨 고생하자 직접 입으로 빨아 낫게 하였다. 후에 참판을 증직 받았다.

● **이운형(李運衡)**

자는 평옥(平玉) 본관은 경주이며, 호는 자화재(子和齋) 또는 일당(逸堂)이라했다. 학남 이회경(鶴南 李晦慶)의 아들로 천성이 지효하여,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모심에 혼정신성(昏定晨省)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고, 부친의 뜻을 받들어 과거응시를 포기하고 독서에만 전념하며 공부 할 집을 한 칸 마련하여 재명(齋名)을 자화재(子和齋)라 하였다.

● **이승운(李乘雲)**

자는 원결(元吉) 본관은 경주로 기계에서 태어났다. 언행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의 사표가 되었다. 효성이 지극하였고 일찍 부친 여윈 것을 한하여 편모를 지극히 모셨

다. 밤마다 목욕재계하고 모친의 장수를 빌었으며 날씨가 추운 한겨울에도 그 정성은 변함이 없었다. 정성을 다한 나머지 모친이 88세까지 살았다. 효행사실은 삼강록(三綱錄)에 등재되어 있다.

● 황필구(黃必九)

호는 영효당(英孝堂)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아이들과 달리 장난하지 않았고, 어른을 따라 행동하더니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학문에 열중하다가 부모상에 여묘 3년을 살았다. 형이 일찍 죽음에 가세가 기울어지자 경독(耕讀)하며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다. 성품이 정갈하며 경사(經史)를 독송(讀誦)하더니 세상 공명을 꿈밖에 보고 오래도록 수(壽)를 하더니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증직 받았다.

● 정유규(鄭裕奎)

자는 덕섭(德燮) 호는 모와(慕窩) 본관은 영일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더니 나이 여덟살 되던 해부터 명절 때 제사 지내는 날에는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조상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였다. 어른이 되어서는 집은 가난하여도 감지지공(甘旨之功)을 다했다. 부모님 병환에 개고기가 좋다고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 고심하던 중 호랑이가 개를 잡아 던져주었고, 돼지를 잡아 던져 주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묘터가 없어 장례를 못 지내고 있을 때 호랑이가 와서 명당을 가르쳐 주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그 후 효행으로 나라에서 호조참판을 증직하였다.

● 김헌식(金憲植)

호는 농재(農齋) 본관은 경주이다.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어릴 때 부친상을 당하여 상주행세 하기를 성인(成人)과 같이 하더니, 홀로 계신 모친을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평소 시중(市中)에 나는 고기류는 싫어하고 살아있는 꿩을 좋아하시므로 한 겨울 철이라 구하기 힘들었으나 갑자기 꿩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마당에 떨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부모님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여 사람들 모두가 효자라고 감탄하여 사림(士林)이 포상하고 오륜실록(五倫行實錄)에 기재되었다.

● 김몽학(金夢鶴)

본관은 경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편모를 효성으로 받들었다.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라 부러워하면서 모친을 더욱 받들더니, 모친

이 운명하러하자 형제가 서로 다투어 가며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수(壽)를 1년 더 연장하게 하니 효심을 가상히 여겨 정려복호(旌閭復戶)하였다.

● **김덕손(金德遜)**

자는 사운(士潤) 본관은 경주이다. 모친이 병환으로 운명하러하자 형제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수명을 1년 더 연장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정려(旌閭)하였다

● **김봉석(金鳳錫)**

자는 덕휘(德輝) 본관은 김해로 주부(主簿) 벼슬을 지낸 김용조(金龍祚)의 아들이다. 장사랑(將士郎)으로 효성이 지극하여 단(壇)을 쌓아 하늘에 기도하였고 부친이 한겨울에 외를 찾으시니 구할 길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외가 밖에서 날아오는지라 갖다 드렸더니 부친의 병세가 차도가 있었다. 그런 후로 고을 전체가 효자라고 칭송하여 나라에서 알고, 조산대부 동몽교관(朝散大夫 童蒙教官)을 제수(除授) 하였다.

● **김두환(金斗煥)**

자는 양여(養汝) 호는 만초(晩樵) 본관은 김해이다. 모친의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회소 3일하고 병세가 중해지자 목욕 제제한 후 하늘에 기도하여 7일 만에 모친이 다시 회생하였다.

● **최제룡(崔濟龍)**

자는 군거(君巨) 본관은 월성이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부모를 모심에 효성을 다하였다. 흉년이 들자 구걸하면서도 부모님께 단지지공(甘旨之供)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다가 모친을 병양하기도 하였다 부모님 초상에 여묘 3년을 살았으며 효행이 나라에까지 알려져 정표하였다.

● **이능환(李能桓)**

자는 치백(致伯) 호는 몽선재(夢先齋) 본관은 여주(驪州)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친이 병환에 계실 때 단지주혈(斷指注血)하였고, 잉어고기가 병에 좋다고 하므로 집 앞의 못에 통발을 설치하여 매일같이 잉어 두어 마리를 건져 내어 시약하니 병환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 **이재규(李在奎)**

자는 현도(玄道) 호는 화악(華鄂) 본관은 여주(驪州)로 문행(文行)이 있었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편모를 모심에 양지양체(養志養體)하였으며 모친의 병환에 단(壇)을 만들어 밤마다 치성하니 단(壇)아래 배나무가 자생하더니 열매가 달렸다. 모친이 배를 좋아하시므로 배를 따가 드리는가 하면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배를 먹지 않았다. 3형제가 우애우독하여 백숙공(伯淑公)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 공(公)이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벽에다 상체시(常棣詩)를 붙여놓고 하루에 세 번씩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 **김태노(金泰魯)**

호는 약재(樂齋)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아버지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소생 반일(半日)하였다.

● **조경식(趙擎植)**

자는 찬서(贊瑞) 호는 학와(鶴窩)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지 병환에 낮에는 약을 달이고 밤에는 하늘에 기도하여 부모님 병환이 나았다 한다.

● **김치덕(金致德)**

자는 운중(雲中) 호는 농암(農巖) 본관은 경주로 어려서 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초상에 여묘 3년을 살았다.

● **김동석(金東碩)**

자는 극오(極五) 호는 운보(雲甫) 본관은 금영(金寧)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이 단독(丹毒)으로 고생을 하심에 거머리가 좋다고 하므로 무눈에 들어가 거머리 십여 마리를 잡아다가 환부에 붙이니 곧 나았다. 19세 때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 3년을 산 후 부친이 병환으로 장기간 자리에 눕게 되자 집이 가난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 고기반찬을 장만해 드렸는데 한 겨울에 부친께서 육식을 원하시므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솔개가 오리 한 마리를 떨구어 주어 반찬을 해드렸다. 부친이 종기로 고생하시자 백약이 무효였다. 인육과 인피가 약에 좋다고 하므로 뭍소 허벅지 살을 칼로 베어서 회(膾)를 쳐서 복용케 한 후 인피를 환부에 붙이니 병이 곧 나았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시묘 3년을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시묘곡이라 불렀다.

● **최사득(崔思得)**

본관은 월성, 어버이 상(喪)에 여묘 3년을 살았으며, 무부종손(無父宗孫)으로 종갓집을 보전하였다.

● **최인곤(崔仁坤)**

자는 익지(翼之) 호는 성재(誠齋) 본관은 경주이다. 어려서 글을 배우다가 성리학으로 대중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며 붓을 던지고 호미와 쟁기를 잡아 자수성가한 후 맞형 계곤(啓坤)에게 “형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니 저의 재산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고는 자기 재산을 큰 집에 넘겨 준 다음 다시 시작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그 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를 극진히 갖추어 묘소가 집에서 15 리나 떨어졌으나, 매일 성묘하는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다. 그런 후로 공이 다니던 길 이름을 효자성묘로(孝子省墓路)라 이름 하였다.

● **김종락(金宗洛)**

본관은 경주이다. 부모님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壽를 연장 하였다고 한다. 그 후 나라에서 효자로 포상하였다.

● **김홍윤(金洪潤)**

본관은 김녕(金寧)이다. 늙으신 부모를 봉양함에 나무하여 쌀을 구해 왔다. 모친의 병환에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약초와 한 겨울에 물고기를 구해 왔고, 초상에 슬픔과 효성을 다하여 나라에서 전자통정대부(典資通政大夫)를 증직하였다.

● **김인학(金仁學)**

아버이 섬김에 효성이 지극했다.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부친이 범에게 물려가자 범과 싸워 부친을 구해냈고, 부친이 소에게 떠받힘에 달려들어 부친을 구해낸 후 자신은 소에게 떠받히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효자라고 나라에서 정려(旌閭)하였다.

● **장세기(張世紀)**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부친이 국상(國喪)을 당하여 상복을 입고 죽을 먹으며 러막(廬幕)에 거처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불을 질러 부친이 불에 타죽게 되니, 불을 지른 원수 놈을 찾아내어 불에 태워 죽이니, 관가에서 공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후에 부모의 원수를 갚은 효심이 장하다고 높이 찬양하여 조정에 포상신청을 하였으나 정표(旌表)되지 못하고 당시 포상 신청한 도장(道狀)만 남아 있다.

● **이능간(李能簡)**

자는 사곤(士坤) 호는 병서(屏西) 본관은 여주(驪州)로 기북면 오덕리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지성으로 부모를 모셨다. 부친상을 당하여 집 뒤에 묘를 들였더니

꿈에 사람이 나타나서 명당이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며 고려 도사가 이 산에 올라와서 천년을 지냈고 이씨가 이갑삼세(二甲三歲)를 지냈으며, 팔봉 이헌침(八峰 李憲沈)이 또한 이곳에 올랐다고 하였다. 지성으로 아버이를 섬김에 꿈에 세 번이나 나타나 길조를 일러 주었다고 하며, 그 후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 이재근(李采根)

자는 덕서(德瑞) 본관은 영천이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학문에 뜻을 두었고, 부모님을 지성으로 모셔 양자영체(養志養體) 하더니,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지성으로 기도하니,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집 2 리 지점에 명당이 있다고 일러주어 그 곳에 장례를 지낸 후 정성을 다해 시묘하니, 부친이 꿈에 나타나 네 몸이 허약하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성이면 귀신도 감응하기를 이같이 하였다고 한다.

● 권치구(權致久)

호는 죽간(竹軒) 본관은 안동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홀로 계신 모친을 지성으로 모셨다. 신을 삼아 팔아서 시장에서 쌀을 사왔으며, 주경야독으로 모친의 몸과 뜻을 봉양하였다.

● 김유성(金有星)

자는 순승(舜承) 호는 연운(淵雲) 본관은 김해이다. 12세에 부친을 여의고 눈이 어두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땅을 치며 말하기를 “남들은 다 양친이 계시는데 나는 어찌하여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눈이 멀었는고” 하면서 통곡하였다. 흉년이 들어 죽을 먹으면서도 모친에게는 쇠고기를 사 드렸다. 고기를 구하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다가 굴러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다가 까마귀가 길을 가르쳐 주어 집에 돌아오기도 했다. 하루는 모친이 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내 눈에는 복분초를 쓰면 좋다고 하나 지금은 한겨울이라 어찌 구할 수 있겠느냐” 고 하시니 공이 울면서 눈 쌓인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영묘(靈苗)가 있어 구해다가 눈에 넣으니 효험이 있었다. 또한 소문에 오어산 약수가 좋다고 하므로 매일 새벽마다 물을 길어오니 호랑이가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여 마치 집에 기르는 가축과도 같았다. 그러한 지성으로 모친의 눈이 밝아져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니, 관아에 소(疏)를 올리기를 제가 몰신청역(沒身賤役)한 것은 오로지 모친을 위함이었으며 세덕(世德)을 누리기 위함은 아니었으니 깨끗하게 살리라 하였다. 그런 후로 관아에서는 그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 향족과 포미(布米)를 부의(賻儀)하였다. 시묘(侍墓)3년을 살면서 여막(廬幕)을 지어놓고 큰 눈이 내릴 때면 묘위에 자리를 펴놓아 눈이 쌓이지 않게 하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효심에 감탄하였다. 그 후 공(公)이 여묘 살던 그 곳을 김효산(金孝山)이라 하고 마을 이름을 효리(孝里) 골짜기 이름을 시묘곡(侍墓谷)이라 부르니 향림(鄉林)이 장계하여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증직 받았다.

● 김인열(金仁烈)

자는 여옥(汝玉) 본관은 경주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를 모심에 양지양체(養志養體)하여 집이 가난했으나 맛있는 음식을 빠뜨리지 않았다. 부친의 병환에 정성을 다하였고 돌아가심에 읍혈(泣血)3년을 지내니 관아(官衙)에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증직하였다.

● 임종한(林宗漢)

자는 현보(賢甫) 호는 모와(慕窩) 본관은 나주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이를 섬김에 뜻과 몸을 함께 봉양하였으며, 부친이 나이 90세에 중풍으로 고생하심에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단약(丹藥)을 복용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므로 약을 구해 드리니 병이 나왔다. 공의 처 또한 20년 동안 부모를 모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빠뜨리지 않았으니 부부의 효성이 하도 지극하여 암행어사 김학순(金學淳)이 나라에 천거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제수하고 명륜록(明倫錄)에 기록하였다.

● 이석봉(李錫鳳)

자는 공선(公善) 호는 죽와(竹窩) 본관은 영천이다. 천성이 인효(仁孝)하여 부친의 병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3일 동안 생명을 연장하였고, 친척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장가 또는 시집을 보내주었으며,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기도 하여 매양 인선(仁善)을 베풀었다. 사람들이 공(公)을 일러 인의유효(仁義由孝)라 하였고 그 후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제수 받았다.

● 김상균(金尙均)

호는 삼익(三益) 본관은 김해이다. 부친이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꿩국을 요청하므로 산에 들어가 하늘에 기도하니 꿩 한 마리가 날아와 마당에 떨어지므로 잡아서 아버지께 드리니 부친의 병이 나왔다. 돌아가신 후 여묘 3년을 살았다.

● 박일천(朴日天)

본관은 밀양이다. 부모를 섬김에 효도를 다 하더니 부친이 술을 즐겨 하므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서 날마다 술을 사드리니 그 술 단지 이름을 효호(孝壺)

라하였다. 술을 사다 나른 지 어언 40년 세월이 흘렀고 모친이 운명하려하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12년을 더 오래 살게 하였다.

● 조성권(趙聖權)

천성이 효성스러워 부친상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였고 홀로 계신 모친을 정성껏 모셨다. 부모상에 여묘 3년을 살고 오래도록 모시지 못함을 한하여 평생토록 부모님을 사모하는 뜻에서 편액(扁額)을 영모재(永慕齋)라 하였다.

● 박기식(朴基植)

자는 경윤(慶潤) 호는 농포(農圃) 본관은 밀양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11세 때 부친이 역질로 고생하시자 할아버지께서 전염이 된다고 밖에 나가라는 명(命)을 내려도 부친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정성으로 병을 간호하여 부친의 병을 낫게 하니 효자라고 소문이 났다. 부모상에 여묘를 살았으며 나이 팔순임에도 가사를 직접 맡아 처리하면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고 자제들로 하여금 학문에 힘쓰게 하였다.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

● 이학기(李學基)

자는 석여(錫汝) 호는 죽와(竹窩) 본관은 창녕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학문에 뛰어났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양지양체(養志養體)하였고 부모님 초상에 3개월 동안 묘소를 떠나지 않았고 제삿날이 닥치면 3일 동안 제계(齋戒)하여 정성으로 제사를 모셨다.

● 하상천(河象千)

호는 야수(野叟) 본관은 진주이다. 13세 때 부친이 난치병으로 고생하시자 밤낮으로 울면서 효성을 다하더니 약을 구하러 수 십리 밖에 갔다가 까치가 울어 댐을 이상히 여겨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이 위독하였다.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에 주입하니 한참 후에 깨어났다. 그런 후로 3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시니 나라에서 효자라고 포상하고 동국풍화록(東國風化錄)과 부강록(扶綱錄)에 등재하였다. 대보면 대보2리에 순효각(純孝閣)이 남아있다.

● 이능두(李能斗)

본관은 여주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을 모심에 정성을 다하여 감지지공(甘旨之供)을 다하였고 제복과 제수를 정결하게 하여 조상을 모셨다. 부친의 병환에 생 녹각이 좋다하므로 공이 돈을 주고 포수를 사서 강원도 산중에 보내려고 영

덕에 도착하니, 마침 인가에 녹각이 걸려있으므로 그것을 사다가 시약하니 부친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 손해석(孫海錫)

본관은 밀양(密陽)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편모를 모셨다. 모친이 병환으로 운명하려 하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회생시켰다. 모친상을 당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해 기절하니 조정에서 효자라고 포상하고 오륜행실록(五倫行實錄)에 등재하였다.

● 최학준(崔鶴峻)

자는 서홍(瑞弘) 본관은 경주로 어려서부터 행실이 뛰어나더니 천성이 효성스러워 흠어머니를 모심에 정성을 다하였다. 모친이 창병으로 위독하자 공이 도음산에 들어가 기도를 하였더니 호랑이가 옆에 있었다. 스님은 겁이 나서 움짱도 못하고 있는데 공은 내가 모친을 위하여 빌고 있는데 호랑이인들 무서울 게 뭣이 있느냐 하면서 태연자약하니 호랑이는 도망가고 49일을 기도 하니 모친의 병이 나왔다. 모친이 돌아가신 후 10여리 밖에 장례지내고 매일 성묘하며 슬퍼하였다. 이 사실을 유림에서 표창하고 삼강록(三綱錄)에 기록하였다.

● 임재수(林在洙)

자는 노중(魯仲) 호는 일촌(逸村) 본관은 나주이다. 부친의 병환에 한겨울에 물고기를 잡아 시약하고 부모상에 정성껏 예(禮)를 다하였으며 학문이 뛰어났다. 만유정(萬柳亭)을 세워 종세(終世)토록 자락(自樂)하니 나라에서 조봉대부 동몽교관(朝奉大夫 童蒙教官)을 제수하였다.

● 김일중(金鎰重)

자는 국견(局見) 호는 농은(農隱) 본관은 김해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의 병환에 단지관혈(斷指灌血)하여 모친의 수(壽)를 연장하였고 나라에서 공의 효행을 명륜록(明倫錄)에 등재하였다.

● 하현용(河見龍)

호는 만포(晩圃) 본관은 진주이다. 풍채(風體)가 비범하고 눈동자가 빛났다. 문학이 뛰어났으며 효성이 지극하였고 두형을 모심에 우애로웠다. 부친상에 슬픔을 다하였고 모친이 전복을 청하심에 구하지 못해 고민 하던 중 솔개가 전복 한 꾸러미를 떨어주었고 모친의 병환에 약을 구하러 목과산(木果山)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

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어서 집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늙어서는 후학을 위해 글을 가르치며 모친에게 효성을 다하니 나라에서 공의 효행을 오륜행실록(五倫行實錄)에 등재하였다.

● **엄봉진(嚴鳳鎭)**

호는 남파(南坡) 본관은 영월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의 병환에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구해 왔으며, 그 후에 다시 병환이 있음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생환시켰으며, 부친상에 극진한 예를 갖추어 효를 다하였다. 수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제수 받았고 오륜행실록(五倫行實錄)에 기록되었다.

● **김교영(金敎永)**

자는 형숙(亨淑) 호는 석포(石圃) 본관은 경주이다. 천성이 인후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과 조상을 정성껏 모셨다. 선조 참판공 묘소 앞에 누가 암장(暗葬)을 했다고 현몽되어 직접 현장에 가보았더니 사실이었다. 집안 친지들과 상의 한 뒤에 암장한 묘를 파헤쳐 버리고 선영 묘소를 단장하니 사림이 효자라 정려하였다.

● **원세성(元世聖)**

본관은 원주로 천성이 지효(至孝)하였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부모님께 양지양체(養志養體)하였다. 배를 타고 형산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배가 물에 침수하여 수십 명이 익사하였으나 공은 살아남아 하늘을 보고 꾸짖기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봉양하며, 부모님이 나를 찾으시면 누가 대답 할꼬”라고 하니 강물이 잠잠해 졌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암행어사가 글을 올려 나라에서 효자로 표창하였다.

● **허흔(許 忻)**

자는 명오(明五) 호는 금헌(琴軒) 본관은 김해이다. 효성이 지극했다. 부친이 이질병으로 고생하시자 상분감고(嘗糞甘苦)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자 슬픔을 못 이겨 기절하였다. 꿈속에서 좋은 묘 자리를 얻어 장례지낸 후 여묘 3년을 살았다.

● **김상엽(金相曄)**

자는 영지(永之) 호는 죽은(竹隱) 본관은 김해이다. 한성판윤을 증직 받은 김두한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수직으로 가선대부를 증직 받았다. 지극한 효성으로 아버이를 모셨고 학문에 힘쓰며 부모를 모심에 양지양체(養志養體) 하였고 효자로 천거되어 나라에서 표창하고 오륜행실록에 등재되었다.

● **박재구(朴載錄)**

자는 상윤(祥尹) 호는 방재(芳齋) 본관은 밀양이다. 어릴 때부터 천성이 효성스러웠고 일찍 부친 여윈 것을 평생 한으로 여겨 모친을 모심에 정성을 다하였고 자제들과 후손에게 근검하고 적선하며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쳐 가법(家法)을 삼도록 하였다.

● **박장진(朴長鎭)**

자는 치문(致文) 본관은 밀양이다. 부모님 모심에 정성을 다하였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남의 집에 고용살이를 하여 부모를 봉양하다가 나이 30이 넘어 장가들었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부가 숯을 구워 팔아 부모님의 반찬을 마련하였다. 부친의 병환을 간호하다가 한겨울에 생선을 청하심에 고기 구하러 구룡포까지 갔더니 술개가 가는 곳을 살펴보니 방어가 한 마리 뛰고 있어서 잡아다가 부친께 드리니 병이 쾌유되었다. 그런 후로 다시 꿩고기를 청하심에 개가 밖에 나가 꿩 한 마리를 잡아 물고 들어와 부친의 병을 낫게 하니 사람들 모두가 출천지효자라 하였다.

● **이능기(李能騏)**

자는 석로(錫牢) 호는 모와(慕窩) 본관은 여주(驪州)로 기북면 오덕리에서 출생하였다. 효성이 지극하고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부모님 모시길 지성으로 하더니 집이 가난하여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해가며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였다. 부친이 위독하자 단지 수혈(斷指垂血)하였다 부친상에 너무 슬퍼한 나머지 3년 상(喪)을 내는 동안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삭망 때 마다 성묘하였고 상(喪)을 마친 후에는 시경(詩經) 육아장을 성독(聲讀)하며 평생 부모를 위해 정성을 바쳤다.

● **정영조(鄭永祚)**

자는 문숙(文淑) 호는 은곡(隱谷) 본관은 초계(草溪)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이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부친의 병환에 기도하여 한겨울에 생선을 구해왔고 산삼을 얻어 봉양하였다.

● **박영간(朴榮幹)**

본관은 밀양이다. 부친이 눈이 어두워 고생하심에 정성을 다하였고 집이 가난하였으나 부부가 밭 갈고 베를 짜서 음식과 옷을 장만 하였으며 한여름에는 그늘진 곳에 부모님을 모셨고 들에 일하러 나갈 때는 자리를 옮겨가며 돌보았다. 여름 더운 날에 물가에서 더위를 식히고자 하시므로 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를 하였더니 딸아이가 할아버지 따라 놀러 왔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나 부친이 알면 슬퍼하실까봐 부친 몰래

땅에 묻어버렸다. 이 사실을 안 이웃 사람들이 효자라고 감탄하고 관아에 알려 표창 받게 되었다.

● **이능겸(李能謙)**

자는 익삼(益三)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집이 가난하였어도 아버이 모심에 효성을 다하였다. 농사지으며 부모 병환에 시약(試藥)하였는데 하루는 부친께서 광어를 청하심에 돈이 없어서 부부가 의논 하여 금백엽(金百葉)을 장만하여 고기를 사기로 의논하고 구십 리나 떨어진 시장에 나가서 늦게 까지 있었으나 시장에 광어가 없어 고심하던 중 마침 한 노파가 광어를 팔러왔으므로 곧바로 사가지고 밤늦게 비학산 재를 넘어 오다가 호랑이를 만났으나 개의치 않고 집에 돌아오니 첫 닭이 울었다. 그런 후에 호랑이가 큰 노루 한 마리를 잡아다가 집에 두고 갔고, 부친의 병환에 약을 구하러 다니다가는 어떤 귀인을 만나 부친의 병에 시약하니 병이 완쾌 하였다고 한다. 그런 후에 효자로 표창 받았다.

● **황하청(黃河淸)**

자는 천일(千一) 호는 태재(泰齋) 본관은 평해이다.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부친상에 여묘3년을 살았다.

● **이정구(李貞久)**

자는 명여(明汝) 호는 극모(極慕)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이 뛰어났으며 아버이를 위해 당호(堂號)를 극모(極慕)라 하고 종신토록 부모를 흠모하였다.

● **손덕수(孫德秀)**

본관은 월성이며 건릉참봉(健陵參奉)을 지냈다. 모친이 전신불수로 장기간 병석에 누워있었으나 둘 부부가 지성으로 부모님을 모셨다. 집이 가난하여 걸인 행세를 하면서도 모친 섬김에 불편함이 없게 하였다. 밥 먹이고 옷 입히며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41년간을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다가 세상을 떠나니 슬픔을 다하였다. 公의 행적은 명륜록(明倫錄)에 등재되었고 나라에서 효행을 표창하였다.

● **조석현(趙爽鉉)**

본관은 함안이다. 집이 몹시 가난하였으나 부모를 모심에 정성을 다하였다. 조부께서 74세에 발병하여 위독하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3일 동안 희생케 하였고 초상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였으며 여묘3년을 살았다.

● **김녹배(金錄培)**

본관은 김해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이를 섬김에 양지양체(養志養體)를 하였고 부모상에 여묘3년을 살았다.

● **서동식(徐東植)**

본관은 달성이다. 효심이 지극하여 17세 때 부친상을 당함에 예(禮)를 갖추어 성인과 같았고 모친이 전신 불수로 기거가 곤란하자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수족이 되어 28년간을 효도하니 모두가 감탄하여 효자라 일렀다.

● **김영철(金永撤)**

본관은 월성,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의 명을 거역치 않았다. 부친의 성격이 까다로워 나이 70에 자식을 때로 때리고 벌을 세워도 원망치 않았다. 부모의 명은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야 한다면서 효성을 다하였다.

● **황심연(黃心淵)**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부친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병을 낫게 하였고 지성으로 모셔 천수를 누리게 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제수 받았다.

● **윤기은(尹基殷)**

호는 동재(桐齋)이다. 집이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면서까지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떨구지 않았다. 부친상을 당하여 면묵철죽(面墨啜粥)하고 슬픔을 다하니 나라에서 효심을 가상히 여겨 포상하였다.

● **장진홍(張鎭洪)**

자는 성문(聖文) 호는 해은(海隱) 본관은 옥산(玉山)이다. 재주가 뛰어나 7세에 소학을 배워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모셨다. 40년 동안 하루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부모님 병환이 있을 때는 공(公)이 직접 약을 달여 시탕하였다. 삼강록(三綱錄)과 명륜록(明倫錄)에 기록되었다.

● **권석현(權錫玄)**

본관은 안동이다. 입암 권씨 입향시조인 권극립(權克立)의 10세손으로 집이 가난함에도 부모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다. 일하는 여가에 개울에 나아가 물고기를 잡아 반찬을 장만하였고 부친상에 소식(素食)3년 하고 머리를 빗지도 목욕을 하지도 않았으

며 장례를 지낼 때에는 상주가 몸소 흠을 지고 묘소를 만들고는 날마다 성곡(省哭)하며 효성을 다하였다.

● 신세균(申世均)

자는 경노(慶魯) 호는 운재(雲齋)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10세 때 모친이 병환으로 고생하시자 꿈에 현몽하기를 “네 모친의 병은 너의 정성에 따라 병을 고칠 수 있으니 대잠 못에 가면 영약이 있다” 라고 하므로 즉시 그 곳으로 달려가니 약은 보이지 않고 얼음이 깨지면서 꽃땀이 웅크리고 있었다. 잡아다가 회를 해드리니 모친의 병이 곧 나았다.

● 최재두(崔載斗)

자는 건여(健余) 호는 오산(吾山) 본관은 경주이다. 풍체가 준수하고 인품이 빼어나 신선 같았다. 14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름에 성인과 같이 하였다. 모친이 병환으로 눈을 감고 입을 다물게 되자 온 집안 식구가 울면서 임종하려 함에 공(公)이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로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회생케 하였다. 그 후 모친상에 정성을 다해 장례를 지냈으며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60평생을 하루같이 정을 나누었다.

● 문성구(文聖龜)

자는 덕오(德五) 본관은 남평(南平)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제수 받았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모심에 정성을 다하였다. 홀로계신 모친을 지성으로 섬겨 90수를 누리게 하여 효자 상을 여러 번 받았다.

● 편정근(片貞瑾)

본관은 절강(浙江)이다. 효성을 다해 부모님을 모셨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맛있는 음식을 떨구지 않았으며 밖에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집에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진상하였다. 부친께서 노령에 문밖출입이 어려워지자 부친을 업고 다니니 모두가 효자라고 감탄하였다. 수직으로 통정대부를 제수 받고 나라에서 포상하였다.

● 오진석(吳鎭奭)

자는 남중(南重)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모심에 양지양체(養志養體)하였고 부친의 병환에 은행이 좋다고 하므로 십리 밖 암자 앞에 은행나무가 있었으나 올라 갈 수가 없어 나무를 붙잡고 울고 있으니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은행이 떨어졌다. 구해 와서 시약(試藥)하니 즉효였다.

● **김용원(金容遠)**

본관은 김해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의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였고 초상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다.

● **박영숙(朴永淑)**

호는 송암(松岩) 본관은 밀양(密陽)으로 13살 때 부친이 발병하여 신음하니 공(公)이 지성으로 시탕(侍湯)하였고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회소 시킨 후 부친께서 천수(天壽)를 다하였다.

● **오일상(吳兪象)**

자는 덕팔(德八) 본관은 해주로 모친의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였다.

● **박무철(朴茂哲)**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천성이 효성스러워 12세때 부친이 병환에 계시면서 잉어고기를 청하심에 겨울철이라 구하기 어려워서 강가에 나가 호읍(號泣)하니 얼음장 속에서 잉어가 튀어 올라오므로 손으로 잡아다가 시약(試藥)하니 병환이 완쾌하였다. 그 후 부친이 급질로 위독하자 도끼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부친의 입에 넣으니 소생하였다. 그 후 나라에서 효자로 포상하고 정려(旌閭)하였다.

● **김계식(金啓植)**

자는 군필(君弼) 본관은 김해(金海)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의 병환에 단(壇)을 만들어 놓고 매일 기도하니 신인(神人)이 나타나 전장초(縛牆草)가 약에 좋다고 하므로 이튿날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구해 달여 드리니 병이 완쾌되었다. 그 후에 모친이 꿩고기를 청하시므로 산에 목로를 놓아 잡아드리는 등 효성을 다하니 향리(鄉里)가 모두 효자라 하였다. 나라에서 효자라 정려(旌閭)하고 통정대부 사헌부감찰(通政大夫 司憲府監察)을 증직하였다.

● **신정균(申鼎均)**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집이 가나하였으나 주경야독하며 지성으로 부모를 모셨다. 흥년이 들자 600리 길을 걸어 강릉까지 가서 쌀을 구해 와 부모님을 모셨고 부친상에 3년 동안 매일 성묘하였고 모친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백방으로 다니며 약을 구해 오는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으며 모친의 장례 때는 수천마리의 새들이 날아와서 호상(護喪)을 하니 모두가 감탄하였다. 조정에서 효자 표창이 내려졌다.

● **이만우**(李晩雨)

본관은 월성이다. 모친이 산후에 병환으로 고생하시자 하늘에 지성으로 기도하고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수명을 연장케 하니 효자로 표창하였다.

● **김상모**(金祥謨)

자는 경원(敬源) 본관은 김해이다. 아버이 섬김에 효성을 다하니 고을 전체가 효자라 하고 나라에서 포상하고 정려하였다.

● **탁원백**(卓元伯)

자는 문익(文翊)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의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회소케 하니 모두가 효자라 하고 수직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제수 받고 오륜행실록(五倫行實錄)에 등재되었다.

● **허 만**(許 滿)

본관은 김해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28세에 부친상을 당함에 슬픔을 다하였고 모친이 전신불수로 자리에 눕게 되자 대소변과 집안 일 모두를 손수 처리하고 집이 가난함에도 맛있는 음식을 빠뜨리지 않았고 부부가 언제나 모친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 이웃 사람들이 그들의 효심에 탄복하였다.

● **김찬진**(金燦進)

자는 희원(希元) 호는 지암(池庵) 본관은 김해이다. 부친이 나이 70세에 반신불수로 모든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온갖 정성을 다해 시탕하며 밤낮으로 기도를 하니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하는 말이 “너의 정성 여하에 따라 네 아버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고 하므로 멀리 신령(神靈)에 사는 의원을 모셔와 처방하니 병이 곧 쾌유되었다.

● **최 흥**(崔 欣)

본관은 경주이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편모를 극진히 모셨다. 일찍 아버지 여윈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제삿날이 돌아오면 슬픔을 가누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니 보는 이들 모두를 감탄하였다.

● **엄재순**(嚴在舜)

본관은 영월이다. 편모를 지성으로 모셔 81세의 천수를 누리게 하였고 그 후 세상을 떠나자 여묘3년을 살았으며 조정에서 효자 표창을 하였다.

● **최두명(崔斗明)**

자는 소석(韶碩) 호는 약와(藥窩) 본관은 경주이다. 천성이 온화하고 문행(文行)이 뛰어났으며 효성이 지극하더니 모친의 병환에 단(壇)을 만들어 기도하니 꿈에 노인이 나타나 죽전(竹田)에 가면 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곧 바로 그곳에 갔으나 약을 구하지 못하자 하늘을 우러러 소리 내어 울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말하기를 “지금 네가 서있는 대나무 숲속에 들어다보라” 하거늘 대밭에 들어가 살펴보니 약이 있었다. 캐어다가 시약하니 모친의 병이 곧 나왔다. 그 후 모친이 종기로 고생하심에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하니 조정에서 표창하였다.

● **오수희(吳壽羲)**

자는 윤약(允若) 호는 일우(一遇)이다. 효성으로 아버이를 모셨다. 모친이 종기로 고생하시자 입으로 빨아 병을 낫게 하니 이웃에서 효자라 칭하고 나라에서 효자 포상을 하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였을 뿐이라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상을 받지 않았다.

● **최성익(崔成翊)**

본관은 영천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의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소생시킨 후 13년을 더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니 초상에 애회진절(哀懷盡節)하였다.

● **박칠동(朴七東)**

본관은 밀양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70세가 되던 해에 병환으로 2년 동안 병석에 눕게 되자 백방으로 약을 구해오고, 집 뒤에 단(壇)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기도하였고, 한 겨울에 생선회를 청하심에 바닷가에 나가 통곡하며 생선을 구해와 드렸더니 병이 나왔다. 부친상에 3년 동안 슬퍼하며 평생 동안 성묘하였다.

● **박영도(朴永度)**

본관은 밀양이다. 효성으로 부모를 모셨으나 집이 가난하여 품팔이를 해가면서도 반찬을 장만해 드렸다. 모친의 병환에 밤중에 5리 길을 걸어서 정화수를 길어와 하늘에 기도 하였으며 모친이 위급하게 되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모친을 회소케 하여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 **정영준(鄭榮峻, 1807~1850)**

본관은 연일로 순조 정묘년 4월 17일 기북면 울산리에서 태어났다. 10세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주야호곡 하더니 장례를 지낸 후에는 10리나 떨

어진 묘소에 매일 성묘하니 향리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났다. 모친이 종양으로 고생하시자 백방으로 약을 구해와 시약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암제비의 피가 종기에 효험이 있다고 하므로 제비를 잡으러 다녔으나 구할 수 없어 걱정하고 있을 때 제비 한 마리가 방안에 날아들었다. 마침 공(公)의 부인이 잡아 모친의 병에 시약하려하자 공(公)이 만류하면서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그럴 수는 없다 하고 날려 보내 주고는 종기를 입으로 빨아 낫게 하니 당시 공(公)의 나이 16세였다. 조정에서 공의 효성을 장하게 여겨 동몽교관 조봉대부(童蒙教官 朝奉大夫)를 제수하였다.

● **김재명(金在明)**

자는 인숙(仁淑) 본관은 월성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이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더니 부친이 돌아가시자 여묘 3년을 살았다.

● **황재택(黃在澤)**

자는 성구(聖九) 본관은 평해이다. 부친이 천식으로 장기간 고생하시니 부부가 백방으로 약을 구해와 시약하고 하늘에 기도하니 꿈에 노인이 나타나 동쪽으로 의원을 찾아가면 영약이 있다고 하므로 날이 밝자 그 곳으로 달려가 약을 구해 시약하니 즉효였다.

● **이재우(李在雨)**

자는 재홍(在洪)이다. 아버이 모심에 효성을 다하였고 사랑채가 흥가라 해서 헐어버리고 부친이 돌아가시자 여묘 3년을 살았다.

● **허 동(許 東)**

자는 기윤(基潤) 본관은 김해로 청하현 조사리에 살았다. 효심이 지극하여 모친이 종기로 고생하시자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하였고 효자로 소문이 나 삼강록(三綱錄)에 등재되었다.

● **박수존(朴守存, 1838~1912)**

본관은 밀양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을 지성으로 모셨다. 부친이 늙어서 눈이 어둡고 다리가 아파 절름발이가 되었으나 항상 부축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식사를 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직접 식사토록 하여 지성을 다하더니 정성을 다하여 병을 간호한 4년 만에 눈이 밝아지고 불편한 다리가 나왔다. 나라에서 효자가문이라 정려(旌閭)하고 포상하였다.

● **양경하(楊慶夏)**

본관은 청주로, 모친이 미친개에게 물린 후 병을 얻어 위독하게 되자 큰 메뚜기가 좋다고 하나 한 겨울철이라 구할 수가 없었다. 집 뒤에 단(壇)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웅기단지 안에 메뚜기가 있어서 시약하니 모친의 병이 완쾌되었다.

● **황선규 (黃善圭)**

자는 치옥(致玉)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천성이 지극한 효자로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더니 부모상에 6년간 여묘를 살았다.

● **편무홍(片茂洪)**

자는 응순(應淳) 본관은 절강이다. 3세에 부친을 여의고 편모를 섬김에 효성을 다했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반찬을 장만하여 모친이 끼니를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해드렸다. 모친의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는 등 천수를 누리게 하니 행실이 뛰어나 오륜행실록(五倫行實錄)에 기록되었다.

● **손영규(孫永奎)**

본관은 월성(月城)이다. 11세 되던 해에 모친이 산후에 병을 얻어 고생하시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병을 낫게 하고 평생토록 지성으로 부모를 모셨다.

● **박석호(朴錫浩)**

본관은 밀양으로 천성이 돈후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섬김에 맛있는 음식을 떨구지 않았으며 양지양체(養志養體)로 부모님을 모셔 언제나 즐겁게 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다.

● **이흥락(李興洛, 1838~1913)**

자는 주언(周彦) 호는 태암(泰巖) 본관은 영천으로 기북면 오덕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지극한 효자로 기골이 빼어나 큰 제목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당시는 국운이 쇠하고 양친이 연로하시어 학문에 열중하며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더니 부친이 돌아가시자 슬픔을 다하였고 만년에 왜놈들이 국권을 장악하자 비분강개하여 통곡하였다. 하루는 꿈에 기북 입향(入鄕) 시조인 판관공(判官公)이 나타나 나의 무덤 옆에 다른 사람이 칩거해있어 심히 불편하다고 현몽되므로 날이 밝기를 기다려 10리 길을 달려가 보니 다른 사람이 몰래 묘를 써놓았다. 집에 돌아와 종중에 알리니 묘를 쓴 사람이 왜놈의 앞잡이인 줄을 알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공(公)은 분개하여

혼자 단독으로 손씨성(孫氏姓)의 묘를 파헤치니 왜놈을 앞세운 손씨가 고소하여 충북 단양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형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항일운동에 앞장서 주야로 왜놈과 싸웠으므로 공의 둘째 아들 이상호(李相浩)가 산남의진에 가담 많은 전공을 세워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으며 公은 향림(鄉林)이 장계하여 장사랑을 제수 받았다.

● **배현주(裴賢周)**

천성이 지극한 효자였다. 오래도록 어머니 모시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집사람에게 “부자간에 같은 날 함께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하고 제삿날에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모신 후 잠을 자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니 침상에 혈흔이 있었다. 나라에서 효자라 하여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使)를 증직하였다.

● **손수완(孫秀完)**

자는 명삼(命三) 본관은 월성이다. 집이 가난하여 부친을 모시고 자기 집이 없어서 당숙집에서 살다가 장가든 후부터 살림을 따로 차렸다. 품팔이를 하면서도 부친을 모심에 정성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드렸다. 부친의 병환에 약을 구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자 “아버님의 병환이 위급한데 네 아무리 짐승일망정 나를 해치겠느냐”고 하며 외치자 호랑이가 피해 달아났다고 하며 공(公)의 처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고을 전체가 효자라고 칭송하니 나라에서 포상하고 오륜행실록(五倫行實錄)에 등재하였다.

● **서상보(徐相保)**

본관은 달성으로 어머니 섬김에 지효(至孝)하여 모친의 병환에 임어가 좋다고 하므로 한 겨울에 얼음을 헤치고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 진공하니 곧 병이 완쾌되어 천수를 누렸다. 이웃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송하여 나라에서 포상하였다.

● **김술이(金述伊)**

본관은 김해로 어머니 모심에 효성을 다하였다. 어머니 초상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였고 홀로계신 아버지를 모심에 쓸쓸하지 않도록 조석으로 보살피며 지극정성을 다하여 천수를 누리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효자라 칭송하였다.

● **김재덕(金在德)**

자는 덕권(德權) 본관은 경주로 천성이 지극한 효자였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혼자 계신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모친의 병환에 대소변을 직접 받아 내며 하늘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하고 영약(靈藥)을 구해와 시약하니 완쾌되어 천수를 누리게 하니 고을 전체가 칭송하고 나라에서 통정대부 사헌부감찰(通政大夫 司憲府監察)을 제수하였다.

● 김학봉(金鶴奉)

본관은 김해이다. 부친이 9년 동안 병환에 계시자 약을 시탕함에 정성을 다하였고 하늘에 기도하는 등 병간호에 효성을 다하였다. 부친상에는 주육(酒肉)을 금하였고 장례를 지내면서 슬픔을 다하였으며 형제간에 우애우독(友愛友篤)하여 나라에서 표창하였다.

● 안해송(安海松)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즐겨하시는 음식은 명이 떨어지기 바쁘게 장만하여 드리고 본인이 출타할 때는 반드시 출필곡반필면(出必告反必面)하며 아버이 모심에 정성을 다하여 효자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 박일동(朴日東)

자는 남준(南準) 본관은 순천이다. 모친이 병환으로 위급하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였고 모친상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애회진절(哀懷盡節)하였다. 장례를 마친 후에 병이 나서 의원에게 치료를 하러가니 의원이 감탄하여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

2) 열녀(烈女)

● 영양이씨(永陽李氏)

조선조 영조 때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성품이 곱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고 형제 자매간 우애가 두터웠다.

19세에 곡강최씨 가문에 출가한 후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남편을 잘 모셔 향리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병을 앓게 되자 밤낮을 돌보지 않고 지성으로 간호를 하면서 좋은 약을 구해 와서 시탕하였으나 병이 점점 심해져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씨(李氏)는 슬픔을 가눌 길 없어 남편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남편 장례를 지낸 다음 남몰래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여필종부의 도리를 몸소 실천하였다. 나라에서 그의 정절을 가상히 여겨 영조 13년에 흥해읍 마산리에 열녀비를 세웠다.

● 월성이씨(月城李氏)

이영녀(李旣女) 열녀는 어릴 때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고와서 이웃 사람들의 칭송을 받더니 자라서 정씨 가문에 출가하였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 혼자서 노부 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효도를 다하여 고을의 귀감이 되었으며 젊은 나이에 혼자 산다고 주위 사람들로 부터 개가하라는 유혹이 많았으나 일부종사(一夫從事)의 굳은 절개를 지켜 부모를 지성으로 모시고 평생을 하루같이 살았으므로 이씨의 굳은 절개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1960년 오천읍 용덕리에 열녀비를 세웠다.

● 김귀연(金貴連)

어려서 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효성이 지극하더니 성장해서 안동권씨 가문에 출가하였다. 집이 가나하였으나 노부를 모심에 정성을 다하였고 집안 어른에게도 지성으로 모시는 가하면, 정신 이상자인 남편을 극진히 뒷바라지하는 등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집안일을 꾸려 나가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웃음을 띠고 평생을 살았으므로 김씨의 효(孝)와 열(烈)이 뛰어나 고을 전체의 귀감이 되어 1977년 오천읍 세계2리에 효열각(孝烈閣)을 세워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안동권씨(安東權氏)

태어나서부터 성품이 청아하고 절의가 고결하여 청하 교동이씨 가문에 출가한 후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더니 남편 이제백(李梯白)을 지성껏 섬겼다. 그런 후에 남편이 병석에 눕게 되자 극진한 치성으로 간호하였으나 병세가 위독함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였고 남편이 죽음에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였음을 한하여 같은 날 남편을 따라 자결하니 조정에서 열의(烈義)를 가상히 여겨 정려하고 마을 뒤편 언덕에 정려각(旌閭閣)을 세웠다.

● 월성이씨(月城李氏)

어려서 부터 품성이 온화하고 예의범절이 탁월하더니 송라면 중산리 김시필(金時弼)에게 출가하였다. 지아비를 정성껏 모셨으나 남편이 병환으로 요절하게 되자 같은 날 함께 죽지 못한 것을 원망하면서 3년 상(喪)을 치루고 아침저녁 상식(上食)을 올리며 여막을 떠나지 않았다. 조정에서 그의 절의를 가상히 여겨 정려하였다. 정려각(旌閭閣)은 동해면 중산리 중리 뒷산에 있다.

● 해주오씨(海州吳氏)

열부 오씨는 영일제공(迎日提控)을 지낸 이등(李登)의 아내이다. 어려서부터 품성이

온화하고 절의가 뛰어나더니 18세에 청안이씨 가문에 출가하였으나 남편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한양에서 병으로 사망하자 그 시체를 혼자 거두어 집 북쪽 산에 장례지내고 시조부 이종주(李從周, 知蔚州使)와 시조모 오천정씨를 지성으로 모셨다. 시조부 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삭망(朔望)을 지내며 매일 묘소에 나아가 지아비 대신 성묘를 하니 고을 전체가 효부 열부라고 칭송하였다.

3. 학행(學行)

● 이말동(李末叻)

자는 자원(子源) 호는 도원(桃源) 본관은 경주이다. 조선조 성종 경자년에 중사마양시(中司馬 兩試)에 급제 하여 학행과 문장이 뛰어나 당세의 학자로 이름 높았던 김한훤당(金寒喧堂) 남추강(南秋江) 안정민(安貞愍) 김절재(金節齋)등과 도의(道義)로 교제하면서 시문을 남겼으며 한훤당(寒喧堂)과는 동년계를 맺어 나이가 같고 뜻하는 바도 같다고 해서 깊은 교분을 맺었다. 연산군 때 정사가 어지러워 벼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계에 은거하였다.

● 이도(李 濤)

자는 여구(汝久) 호는 몽애(蒙厓) 본관은 여강(驪江)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7세에 모친을 따라 안동 예안에 가서 수학(修學)하니 외조부께서 효도 “孝” 자를 가르치며 평생토록 잊지 말 것을 타이르고는 공을 어루만지며 이상한 일이다. “선세에 여경(餘慶)이 있어 너의 조부님께서 충훈(忠勳)이 있더니만 너도 효성이 지극 하구나”라고 말하였다. 평소 행동함에 효우(孝友) 두 글자만으로 실천하였고 문장이 뛰어나 유집(遺集)을 남겼으며 효성과 학덕으로 목릉참봉(穆陵參奉)을 제수 받았다.

● 유홍(兪泓, 1524~1595)

자는 지숙(止叔) 호는 송당(松塘) 본관은 기계이다. 조선조 중종19년 갑신년에 출생하여 명종 계축년에 문과 급제한 후 벼슬이 수찬(修撰) 좌랑(佐郎) 정언(正言) 집의(執義) 등을 거쳐 과거시험관으로 있을 때 율곡 이이선생을 장원으로 뽑기도 하였다. 그 후 선조10년에 경상도관찰사를 비롯하여 충청, 전라, 함경, 평안 등 오도(五道)관찰사를 역임하고 예조와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선조20년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원훈으로 광국(光國) 일등공신이 되고 기계부원군에 봉해졌고, 충목공(忠穆公)의 시호가 내려졌다.

● 이 습(李燭)

자는 용회(用晦) 호는 두곡(杜谷) 우호(又號)는 낙와(樂窩) 본관은 경주로 학행이 뛰어나 다섯 차례나 벼슬에 나아갈 것을 추천받았으나 사양하고 시문을 즐기며 학문에 전념하니 사람들은 그를 동부처사(東部處士)라 불렀다. 여지지(輿地誌)에 효우(孝友)가 출천(出天)하고 잠심성리(潛心性理)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 글씨를 잘 써 필원(筆苑)에 올랐다.

● 이양선(李揚善)

자는 자집(子執) 호는 학암(鶴庵) 본관은 경주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침착하고 부지런하여 실학을 추구하였으며 효성으로 아버지를 섬겨 부모상에 슬픔과 예를 극진히 하였다. 문장이 성숙하여 원근에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도(師道)를 자처하지 않고 경전을 탐구하며 학문연마에 정진하더니 비학산 아래 집 한 칸을 지어놓고 정자 이름을 학소암(鶴巢庵)이라 하고 종신토록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公의 행적이 해동유현록(海東儒賢錄)에 등재되었다.

● 이동철(李東哲)

호는구암(龜岩) 본관은 영천으로 16세 우암 송시열의 제자가 되었다. 학문이 대성하여 평소 얼굴에 희로불색(喜怒不色)하고 사무사 무불경(思無邪 毋不敬)을 실천하였고 그것을 병풍을 만들어 방안에 펴놓고 스스로 경계하더니 동문과 사림들이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창건하여 우암 선생을 봉향하였다. 公의 기록은 죽림서원지(竹林書院誌)에 기록되어있다.

● 이도겸(李道謙)

자는 호여(好輿), 호는 구봉(九峰) 본관은 경주이다. 천성이 지극한 효자이며 학문이 독실하여 충효설(忠孝說)과 의례편(儀禮篇)을 저술하고 사림이 추천하여 조봉대부 동몽교관(朝奉大夫 童蒙教官)을 제수 받았다.

● 이홍진(李弘眞)

자는 치원(致遠) 호는 만로당(晩老堂) 본관은 창녕으로 품성이 단정하고 그릇이 커 몸을 가늠에 정성을 다하였다. 심신을 수양함에 외물(外物)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고 도를 즐기고 옳을 행하여 편협한 곳에 이르지 않았다. 을묘년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장기에 유배온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날 주자가 유배되었을 때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더니 지금 우암 선생이 우리 고을에 유배를 왔으니 우

리에게 좋은 혜택을 끼칠 것이다” 하고는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만노당(晩老堂)이라 하고 후학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 백이현(白以玄, 1625~1699)

초명(初名)은 윤기(雲起) 자는 자룡(子龍)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청백리로 이름난 백인결(白仁傑)의 5세손으로 경기도 파주 덕은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더니 성품이 고결하고 뜻이 깊어 큰 제목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당시는 사화가 빈번하고 당쟁(黨爭)이 극심하여 국가 안위(安危)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웠으므로 벼슬에 나아갈 뜻을 접고 은거(隱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정착할 곳을 찾아 다녔으나 피신할만한 곳이 없어 영남으로 내려와 대구 달성을 거쳐 흥해 땅 침촌(針村)에 우거(寓居)하니 이곳이 침촌 수원백씨 집성촌이다. 고향을 떠나 해안 깊숙한 곳에 정착은 하였으나 선비가 살아가기 힘든 곳이었다. 비로소 마을을 개척하고 수기애물(修己愛物)하며 회인불권(誨人不倦)하니 인근 사림(士林)이 몰려들었다. 학문을 연마하며 후진을 양성하다가 1699년 기묘년에 세상을 떠나니 죽전곡(竹田谷) 해좌(亥坐)에 장례 지냈다. 그 후 1852년 壬子에 통훈대부 충의위상호군(通訓大夫 忠義衛上護軍)을 증직 받고 1894년 갑오(甲午)에 승정대부 예조참판(崇政大夫 禮曹參判)을 추증 받았다.

● 서학중(徐鶴鍾)

호는 청계(淸溪) 본관은 이천(利川)으로 경사에 통달하여 문명(文名)이 높았으며 승훈랑 헌릉참봉(承訓郎 獻陵參奉)을 제수 받았다. 조선 세조 때 폐위 사건이 일어나자 낙향하여 기계 화대리에 은거하였다.

● 오도전(吳道全)

자는 여완(汝完) 호는 경암(敬庵) 본관은 해주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장기 유배 시에 公의 집에서 거처하였으므로 우암 선생의 교화에 힘입어 문장이 뛰어났으며 장기현의 훈장으로서 후진양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학행이 출중하여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고 예절을 정비하여 좋은 유품과 선속을 전수하는데 공헌하였으며 公의 행적은 죽림서원지에 기록되어 있다.

● 이석증(李碩增)

자는 국첨(國添) 용와(瀟窩)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어려서부터 남 다른 대가 있어 아버지 명으로 우암 선생에게서 효경을 배웠다. “효행은 백가지 행실의 뿌리가 되므로 입으로만 뇌까리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부모에게 효도를 하

지 않는다면 어찌 성인의 가르침을 받았겠는가? 동문수학한 문우(文友)들과 함께 죽림사를 창건하여 우암 선생의 영정을 모셔다가 제향 하였다.

● 서유원(徐惟遠)

자는 도보(道甫) 호는 만인당(萬仞堂) 본관은 달성이다. 우암 선생에게서 수학하더니 선생이 공을 보고 그릇이 중후하다고 하고는 “안보당거 만식당육 구리반해 위서최락”(安步當車 晚食當肉 求利反害 爲善最樂)이라는 글씨 16자를 큰 글자로 써주어 공이 병풍을 만들어 집에 보관하였다. 그런 후로 공의 집에 그 병풍을 보러 오는 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 손여두(孫汝斗)

자는 망지(望之) 호는 노잠(魯岑) 본관은 월성이다. 문장과 학술이 뛰어나 허미수 갈암(許眉叟 葛庵) 등 당시 학자들과 교유하였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의 병환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였고, 동강서원(東江書院)과 도잠서원(道岑書院) 건립에 앞장서 크게 공헌하였으며 문집을 남겨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손여규(孫汝奎)

자는 최지(晦之) 호는 일휴재(逸休齋) 본관은 월성으로 천성이 성실하여 학문이 일찍 이루어졌다. 12세 때 입춘 날 입지잠(立志箴)을 지었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무자기(毋自欺)를 좌우명으로 하여 조용히 학문에 힘쓰며 평생을 학문연구에 정진하였다.

● 정사하(鄭師夏)

호는 안분당(安分堂) 본관은 오천이다. 가선대부동중추부사(嘉善大夫同中樞府事)를 지낸 정석중(鄭錫重)의 아들로 태어나 정훈수 정지수공(鄭墳叟 鄭旒叟公)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의 심오한 경지에 이르러 학자로 이름이 났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문행(文行)과 제반사에 고을 선비들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 유하겸(兪夏謙, 1632~ ?)

자는 수보(受甫) 본관은 기계로 인조 10년 임신년에 출생하였다. 임자년 문과에 급제하여 첨정(僉正) 사간(司諫)을 거쳐 숙종15년 기사년에 경주부윤에 부임하여 실묘(失墓) 되었던 시조공 묘소를 찾아내어 건봉(建封)하고 표석을 세웠다. 그 후 형조참의 좌부승지(刑曹參議, 左副承旨)를 지내며 학행과 치적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특히 송조사상이 뛰어나 잃어버린 조상의 문적을 발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 권극립(權克立)

자는강재(强哉) 호는 동봉(東峰)으로 권중화(權仲和)의 후손이다. 여헌(旅軒) 장현광 선생과 교류하면서 학문과 도의 교류하였다. 인심도심(人心道心)을 논하며 학문이 뛰어나 문집을 남겼고 여헌(旅軒) 선생과 함께 입암서원(立巖書院)에 배향하였다.

● 권득중(權得重)

자는 자후(子厚) 호는 동와(東窩) 본관은 안동으로 동봉(東峰) 권극립의 현손이다. 천품이 영리하고 학문이 뛰어나 화동역대통기(華東歷代通紀)를 저술하고 문집을 남겼으며 조선 영조 때 경술로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증직 받았다.

● 이강(李 壘, 1621~1688)

자는 대계(大啓) 호는 사의당(四宜堂) 본관은 여강(驪江) 조선조 광해군 신유년 기북면 오덕동에서 출생하였다. 품성이 청아하고 문행(文行)이 뛰어났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어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덕동(德洞)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시문을 읊으며 은거자적하다가 숙종 무진년 1월 4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 성리학의 대가인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공의 유고가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이덕령(李德齡)

본관은 여강(驪江) 자는 여겸(汝兼) 사헌부대사헌겸성군관재주(可憲府大司憲兼成均館祭酒)를 증직받은 이언괄(李彦适)의 현손이다. 경주군 양동(良洞)으로부터 기북면 오덕동(德洞)에 이거하였으며, 학행이 뛰어났다.

● 이덕삼(李德三)

본관은 여강(驪江) 자는 여안(汝安)으로 이덕령(李德齡)의 친동생이다. 형제가 양동(良洞)으로부터 덕동(德洞)에 이거한 후 학행이 뛰어나 후손으로 하여금 학자들을 배출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북면 일대 후손이 번성하였다.

● 서사묵(徐思默)

호는 송와(松窩) 본관은 달성(達成)으로 천성이 온후하고 문행이 뛰어났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고 충정으로 살아가면서 국상에 3년동안 소식(素食)하였으며 각서원(各書院) 원장을 역임하였다. 당시 거유(巨儒)인 염계, 이정인, 남려, 이정엄, 인와, 이술현(剡溪 李鼎寅, 南廬 李鼎儼, 忍窩 李述賢) 등이 군자로 추대하였고, 유고 4책을 남겼다.

● **서용원(徐勇元)**

본관은 달성(達成)으로 조선조 성종 19년(1488)에 성균 진사가 되었으나 연산사화(燕山士禍)가 일어나자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후학지도에 전념하였다. 당시 경상감사 김안국(金安國)이 공을 보고 천백집사 가임지재(千百執事 可任之材)라하여 왕에게 추천하였으나 기묘사화 주동인물인 참정(沈貞)이 공의 고종사촌이라 시세가 불리함을 감지하고 은거자적하였다.

● **서한진(徐翰振)**

본관은 달성으로 호는 동계(東溪)이다. 천성이 영리하고 학문이 뛰어났으며, 성리학에 심취하였고, 특히 역학(易學)에 능통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 **서유인(徐有人)**

호는 은와(隱窩) 본관은 달성(達成)으로 기계 가천(駕川)에서 출생하여 송와 서사묵(松窩 徐思默)에게 사사받아 문덕(文德)이 출중하여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유고 2책이 전하고 있다.

● **유명홍(兪命弘, 1656~1730)**

자는 계의(季毅) 호는 죽리(竹里) 본관은 기계이다. 효종(孝宗) 7년 병신년에 출생하여 임술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숙종 36년 경인년(1710)에 경상도관찰사가 된 후 전라, 경기도를 순력하였다. 경상도관찰사 재임시에 기계면 미현리에 소재한 시조공 유삼재(始組公 兪三宰)를 봉사하기 위해 부운재(富雲齋)를 짓고 재답(齋菴)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후 대사헌·형조·예조판서를 지낸 후 세상을 떠나니 향년이 74세이며 시호는 장헌(章憲)이다.

● **유척기(兪拓基, 1691~1768)**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 본관은 기계, 숙종 17 신미년에 출생하여 24세 때 문과에 급제한 후 교리 가간(校理, 可諫) 등을 거쳐 세자책봉주청사(世子冊封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北京)에 다녀온 후 사화가 일어나 홍원(洪原)에 유배되었다가 11년 후에 다시 중임되어 많은 치적을 남기었고 기계면 미현리에 있는 시조공(始祖公)의 묘역을 넓히고 수비치산(豎碑治山)하기도 했다. 그 후 대사성 황해 평안도관찰사 세자시강원빈객(大司成, 黃海, 平安道觀察使, 世子侍講院賓客) 등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영조 43년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77세로 시호는 문익공(文翼公)이며 대구 상덕사(尙德祠)에 배향되고 저서로는 지수재문집(知守齋文集) 56권이 전하고 있다.

● **유주기(兪冑基, 1689~1761)**

자는 자원(子遠), 본관은 기계, 숙종 15년 기사년에 출생하여 벼슬이 주부 판관 신령현감(主簿 判官, 新寧縣監) 등을 거쳐 경상도 좌병사로 재임시 시조공 묘소의 부운재(富雲齋)를 중수하였다. 그 후 부총관(副摠官)을 역임한 후 경진년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72세였다.

● **이헌묵(李憲默, 1741~1788)**

자는 백용(伯容) 호는 안계(安溪) 본관은 여강(驪江) 조선조 숙종 갑오년에 기북면 오덕동에서 출생하여 학문에 전념하다가 영조 경오년(1750) 문과에 급제한 후 삼사(三司)를 두루 거쳤으며 천성이 순정간중(淳正簡重)하고 생활이 검소하여 봉공무사(奉公無私)하였다. 오래도록 벼슬길에 올랐으나 벼슬에서 물러날 때에는 행상(行狀)과 서책, 거문고 뿐 다른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없었다. 조정에서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세급(歲給)을 전하였고 정조(正祖) 무신년 5월 11일 세상을 떠나자 유관치재(遺官致祭)하였으며 유고(遺稿)로는 문집이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이헌순(李憲淳, 1705~1775)**

자는 만무(萬式) 호는 사우정(四友亭) 본관은 여강(驪江)이다. 숙종(肅宗) 을유년 기북면 오덕동에서 태어나 문학이 대성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산수의 아름다움을 즐겨 유유자적하며 조그만 정자 하나를 지어놓고 시문을 외우고 송죽매국(松竹梅菊)을 심어놓고 자연을 음미하며 사군자의 기상을 사랑한 나머지 사우정(四友亭)을 자호(自號)하다가 영조(英祖) 을미년에 세상을 떠나니 많은 시문이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이헌락(李憲洛)**

자는 경순(景淳) 호는 약남(藥南) 본관은 여강(驪江)으로 농재(農齋) 이언괄(李彦适)의 7세손이다. 조선조 숙종 무술년(1718) 기북면 오덕동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학문에 열중하였더니 영종(英宗) 갑자(甲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후 경진년에 강릉참봉(康陵參奉)을 제수받고 학행으로 당세에 이름을 떨쳐 약남문집(藥南文集)을 남겼다.

● **유한모(兪漢謨, 1734~1817)**

자는 여직(汝直) 본관은 기계로 영조10년 갑인년에 출생하여 신묘년 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이 좌승지, 공조, 호조참의를 거쳐 정조 19년에 경주부윤으로 재임하면서 기계 유(兪)씨 시조 아찬공(阿滄公) 유허비를 건립하고 그 후 좌윤, 대사헌을 지낸 후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병자년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83세였다.

● **이헌속(李憲涑)**

자는 경온(景溫) 호는 계농(溪農) 본관은 여강(驪江)으로 기북면 오덕리에서 태어났다. 약남(藥南) 이헌락(李憲洛)의 친동생으로 기질이 우람하고 성품이 총명 영리하여 어려서부터 효우지도(孝友之道)를 깨달아 학문에 열중하더니 경사(經史)에 통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과거에 응시하려 했으나 중형 약남옹(仲兄 藥南翁)이 출사한 후 공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하며 과거시험을 포기해 버렸다.

● **이진모(李震模)**

자는 민장(民章) 호는 모헌(慕軒) 본관은 창녕이다. 성품이 간결 과묵하여 말이 적었으며, 정사하(鄭師夏) 문하에서 수학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손하였으며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사물잡(四勿箴)을 좌우명으로 삼아 수신제가지도(修身齊家之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조석으로 자신을 살폈다.

● **김찬원(金贊元)**

자는 현술(賢述) 호는 삼이당(三宜堂) 본관은 경주이다. 성품이 호탕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문장이 뛰어났으며 특히 예서(禮書)에 밝았다. 자연에 묻혀 살면서 매국죽(梅菊竹)을 심어놓고 군자(君子)의 기상을 음미하며 스스로 삼의당(三宜堂)이라 하였다.

● **이홍리(李弘離)**

자는 맹헌(孟獻) 호는 용와(慵窩)이며, 문장이 뛰어났고 성리학을 탐구하여 천인보전훈춘(天人寶詮薰春)을 저작하니 정훈수(鄭墳叟) 지수공(篋叟公)이 경탄하였고, 남주문장 팔대가중(南州文章 八大家中)의 제일인자로 알려진 이병하(李秉夏)가 공의 행적을 치하하였으며 문집 3책이 전하고 있다.

● **정동환(鄭東煥)**

호는 노촌(魯村) 본관은 오천으로 안분당 정사하(安分堂 鄭師夏)의 아들이다. 정훈수 지수(鄭墳叟, 篋叟)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이 크게 이루었으며 사후(死後)에는 북계사(北溪祠)에 배향되고 문집이 전한다.

● **최천익(崔天翼)**

자는 진숙(振叔) 호는 농수(農叟) 본관은 곡강(曲江)으로, 어려서 영민하여 학문에 열중하더니 나이 18세에 성균진사(成均進士)를 지냈다. 천성이 도(道)에 가깝고 학술

이 정확하여 문장(文章)이 출중하였으며, 명성이 높아 관찰사가 지방순시 때에 公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당시 거유로 손꼽히는 이대산, 이약남, 신청천(李大山, 李藥南, 申青天) 등과 교제하며 많은 시문을 남겼고, 당시 보경사 주지로 있던 오암대사(鰲岩大師)와 교유하였으며 농수문집(農叟文集) 2책이 세상에 전한다.

● 황보 헌(皇甫憲)

자는 수명(肅明) 호는 묵헌(默軒) 본관은 영천이다. 기골이 금옥(金玉)같이 준수하였으며, 우암 송시열 문하에서 수학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동문사우(士友)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났다. 숙종 정해년에 오도전, 서유원, 이동철, 이석증 등과 함께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창건하였다.

● 정한보(鄭漢輔)

자는 기대(氣大) 호는 송와(松窩)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천성이 도(道)에 가까워 일찍이 부귀공명을 싫어하고 자신을 위한 수기지학(修己之學)에 치중하여 두문불출하며 성리학(性理書)이 아니면 책을 읽지 않았다. 제자를 많이 길렀으나 유고(遺稿)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후세에 전하지 못하였다.

● 이학해(李學海)

자는 지중(至中) 호는 강아(江阿) 나천(羅泉) 본관은 청안(淸安)이다. 성품이 순박하고 문학이 뛰어나 다른 것에는 뜻이 없고 성리학(性理書)에 전념하여 석학(碩學)으로 이름을 남겼다.

● 최도문(崔道文)

호는 동곽(東郭) 본관은 월성이다. 어려서부터 문장과 학술에 뛰어나 권엄공(權嚴公)이 심계(心契)를 허여하였으며, 흥해군수 권엄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면서 함께 가기를 권유하니, 마지못해 함께 따라갔다. 권엄(權嚴)이 조정에 천거하여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에 나아 간지 3개월 만에 사직하고 초의포관(草衣布冠)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며 자연에 묻혀 살면서 저서에 전념하여 동곽집(東郭集) 9권을 남겼다.

● 이시일(李時逸)

자는 경안(敬安) 호는 한와(閒窩) 영조(英祖) 병자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황해 경상 감사를 지냈다. 학문이 뛰어났으며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였으며,

신형치심등사(愼刑治心等事)를 여러 번 상소하니 장헌(莊憲)이 교시하기를 진실로 충성심에서 우려나와 내용이 절실하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 억울하게 참소를 당해 외직으로 좌천되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세상을 떠난 후에 이종상(李種祥)이 지은 비명과 문집이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장사경(張思敬)

자는 경부(敬夫) 호는 이계(耳溪) 본관은 옥산(玉山)이다. 천성이 고결하고 문장이 절륜하였으나 공명에는 뜻이 없고 전원에 살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당시 명유(名儒)들인, 이남여, 정엄, 창려, 정기, 손설과, 성악(李南慮, 鼎儼, 蒼廬, 鼎基, 孫雪坡, 星岳)등과 교류하며 저술에 힘써 유기삼백, 연의선후, 천도오행팔괴도, 농가집(有菴三百, 衍義先後, 天圖五行八卦圖, 農家集)과 문집을 남겼다.

● 이시현(李時鉉)

자는 옥경(玉卿) 호는 만회당(晚晦堂) 본관은 경주이다. 일찍이 족속 용와공(族叔 慵窩公)에게 수학한 후 학문이 뛰어났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고 성리학에 전념하여 제유(諸儒)들과 경서를 토론하며 활산 남용만 약남 이현락 초현 김옥상 이계 홍양호(活山 南龍萬, 藥南, 李憲洛, 草玄 金玉相, 耳溪, 洪良浩) 등과 교류(交遊)하였고 삼강록과 해동유현록(三綱錄 海東儒賢錄)에 등재되었다.

● 최기대(崔基大)

자는 여홍(汝洪), 호는 사정(思亭) 본관은 곡강으로 판관 최규형(判官 崔奎炯)의 아들이다. 농수(農叟) 최천익에게 수학하였고 엽서 권화엄(葉西 權禾嚴)공에게 심득지학(心得之學)을 체험한 후 28세에 성균진사에 올랐다. 그 후 태학에 나아가 학문을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만년에는 낙향하여 후배양성에 전념하였다. 당세(當世) 석학으로 손꼽히던 정지관(鄭之觀) 이덕해(李德海)등이 공의 문하생이었고, 명유들과 교류하던 시문이 문집에 전하고 있다.

● 이택형(李宅炯)

자는 화경(和卿) 호는 지현(止軒) 본관은 영천으로 학문이 뛰어났으나 은거행의(隱居行義)하며 지지소지(知之所止)라고 하는 ‘止’字를 위주로 한 심잠(心箴)을 짓고 효자경신(孝慈敬信)을 행하며 제반규범을 실천하는 등 타의 사표가 되었으며, 항상 독서를 즐겨 탐독하지 않은 책이 없었다. 사람됨이 정중하여 남들이 경외하였고, 후진을 지도하는 한편 풍속을 교화 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인근 사림(士林)의 추앙을 받았다.

● **이양복(李養復)**

자는 유능(幼能) 호는 계은(溪隱) 본관은 경주이다. 학문에 뛰어났으나 과거에는 뜻이 없었고 초야에 묻혀 살면서 구도지학(求道之學)을 업으로 삼아 후생을 지도하였으며, 이기설(理氣說) 등 많은 문헌을 남겼고, 문집이 후세에 전하고 있다.

● **이회경(李晦慶)**

자는 서구(敍九) 호는 학남(鶴南)본관은 경주이다. 일찍 호곡 유범휴(壺谷 柳範休) 문하에 수학하여 독지호학(篤志好學)하므로 제현(諸賢)이 훈도(訓導)로 추천하여 후진을 교화토록 하니 그 논리가 정연하므로 당시 거유인 이명백공(李明白公)이 탄복해 마지 않았다 하며 문집 4책을 남겼다.

● **이종경(李宗慶)**

자는 방언(邦彦) 호는 의가재(宜稼齋) 본관은 경주로 숙부 영모재 이호양공(叔父 永慕齋 李浩養公)에게 수학하였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한하며 학문에 전념하여 대성하니 고을 전체가 유덕군자(有德君子)로 칭송하였으며 유고집을 남겼다.

● **권익(權 翥)**

자는 경숙(敬叔) 본관은 안동으로 천성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일찍 학문에 뜻을 두어 문경공 훈직필(文敬公 洪直弼)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심학(心學)에 전념하여 충신(忠信)을 바탕으로 허기에인지도(虛己愛人之道)를 터득한 후 만년에 오천 선원촌(烏川 仙源村)에 살았으며, 원서처사(源西處士)로 감찰(監察)을 증직 받았다.

● **이한경(李漢慶)**

자는 흥서(洪瑞) 호는 농헌(農軒) 본관은 경주이다. 문학이 조성(早成)하여 논리가 정연하였으며 부친의 명에 따라 소과(小科)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종형 학남 이회경(鶴南 李晦慶)과 강론하면서 후배 양성을 위해 지도하며 시비와 영욕, 잡담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위해 자호(自號)를 농헌(農軒)이라 했다.

● **이재금(李在假)**

자는 술지(述之) 호는 소와(素窩) 본관은 여강(驪江)으로 조선 정조 정사년(1797) 기북면 오덕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경서에 통달하였으며 특히 주자 성리학에 심취 정진하더니 헌종 을미년(1835)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한 후 무신

년에는 고을 전체 사림이 장헌전례(莊獻典禮)로 추천 소수(疏首)가 되었으며 옥천 조덕린(玉川 趙德麟) 신원(伸冤) 당시 소수(疏首)로 진소(陳疏)하는 등 많은 유고집을 남기고 철종 갑인년 12월 7일 세상을 떠났다.

● 이재한(李在澣, 1807~1875)

호는 어수(漁叟) 본관은 여강(驪江)으로 순조 정묘년에 기북면 오덕리에서 태어났다. 명문가의 후예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던니 헌종 경자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나아가 정언부정자(正言副正字)를 거쳐 철종 무오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지냈으며 병인년에는 장악원정(掌樂院正)을 배(拜)하였고 삼조(三朝)를 거치는 동안 많은 치적과 학행이 탁월하여 문집을 남기고 고종 기해년에 세상을 떠났다.

● 김좌영(金佐永)

호는 강해(江海) 본관은 의성(義成) 유심춘(柳尋春)의 문하생으로 문행(文行)이 뛰어나 문집(文集)이 전하고 있으며 안동에서 기계로 이주해 왔다.

● 이인칠(李寅七)

자는 주칙(周則) 호는 학포(鶴圃) 본관은 월성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신기하여 큰 재목감으로 기대되었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고 경전(經傳)에 심취하였으며 역학(易學)에 능통하였다.

● 이운정(李運禎)

자는 주언(周彦) 호는 방산(方山) 본관은 경주이다. 이회경(李晦慶) 유정재(柳定齊) 문하에서 수학하여 절문근사(切問近思)로 학덕(學德)을 이루었으며, 이기설(理氣說)을 저술하고 방산책(方山集) 6冊을 남겼다.

● 이정기(李鼎基)

자는 경구(敬九) 호는 회암(回庵) 본관은 창녕으로 품성이 단정하고 지조가 청렴하여 학문에 열중하였다. 특히 극기수약(克己守約)으로 학문에 전념하여 구심지도(求心之道)를 터득한 후 평생토록 성리학(性理學)에 몰두하였다.

● 이정일(李貞一)

자는 예중(禮中) 호는 경독재(耕讀齋) 본관은 영천으로 일곱 살에 부친을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품행이 단정하였으며, 숙재(肅齋) 조병덕(趙秉憲) 문하에서 수

학하였다. 문경공(文敬公)이 공의 품행을 가상하게 여겨 호걸지사는 마땅히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며 불구문달(不求聞達)이라 하고 경독(耕讀)이란 두 글자를 사호(賜號)하였으며, 학문이 대성하여 제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 이운익(李運益)

자는 성수(聖受) 호는 동려(東慮)이다.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종숙 학남 이회경(鶴南 李晦慶) 문하에서 수학하여 박식고고(博識孤高)하였으므로 많은 학자들이 존중하였다.

● 황상하(黃相夏)

자는 중여(中予) 호는 한계(寒溪) 본관은 회덕(懷德)으로 성품이 단정하여 경전(經傳)에 통달하였고, 글씨에 능하여 교사간판(校寺看板)등에 필적을 많이 남겼다.

● 이공민(李公旻)

자는 군명(君明) 호는 극재(克齋) 본관은 경주로 늘재 이희형(訥齊 李羲馨)의 아들이다. 자질이 총명하고 그릇이 크며 한입헌(韓立軒) 홍매산(洪梅山) 문하에서 수학한 후 구용(九容) 구사(九思) 사물(四勿) 경재잡(敬齋箴)을 벽에 써 붙여놓고 공부에 전념하였고 효성으로 부모를 모셨으며 문집을 남겼다.

● 장계훈(張啓勳)

자는 자요(子堯) 호는 치와(恥窩)이며, 품성이 단정하여 가정지훈(家庭之訓)을 받고 시례(詩禮)와 경사(經史)에 능통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성학(聖學)에 골몰하여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심오한 경지를 연구하여 성리학(性理學)과 예의에 대한 저술을 남겼고, 제자 백여 명을 훈도하였다.

● 조성권(趙聖權)

자는 경여(經汝) 호는 모헌(慕軒) 본관은 함안으로 효행이 뛰어나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通訓大夫 司憲府監察)을 증직 받았으며, 학문이 빼어나 문집을 남겼다.

● 한경문(韓慶文)

자는 중여(宗汝) 호는 용담(龍潭) 본관은 청주이다. 품성이 총명영리하고 매산 홍직필(洪直弼)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약관(弱冠)에 문학이 대성하여 인근 사우(士友)들로부터 존경받기도 하였으며, 효(孝)와 신(信)을 중히 여겨 사람을 사림에 어긋남이 없었다.

● **한한기(韓漢基)**

자는 천유(天有) 호는 천와(天窩) 본관은 청주로 천성이 순박하며 효심이 지극하여 양생송사(養生送死)에 정성을 다하였다. 학문이 뛰어나 제자들을 가르침에 글 읽는 소리가 인색하지 않았고 치가(治家)에 법도를 지키므로 동도윤 민치헌(東都尹 閔致憲)이 공을 한 번 보고는 남주(南州)에 숨은 군자가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이동신(李東信)**

호는 신계(愼溪) 본관은 월성으로 청하 월성이씨 입향조 이주(李柱)의 13세손이다. 천성이 인자(仁慈)하여 남을 도우는 일에 앞장서 청하 관아(官衙)에 일천 금을 희사하고, 보경사 금당을 수리하는 일에 일천 금을 내었으며, 계축년에 한발이 심해 흉년이 들자 청송, 진주 등지에 구호미를 보내어 백성들을 구휼하니 사림들이 조정에서 천거하여 철종(哲宗)병진년에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안주진영고성병마동첨절제사(行安州鎭營古城兵馬同僉節制使)를 제수하고 입지에 나아가 덕치(德治)함에 현지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워 공(公)의 유덕을 칭송하였다. 만년에는 고향에 돌아와 황암리에 휴거하며 후진교학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났다. 정사년(丁巳年) 2월 8일에 태어나 임신년(壬申年) 3월 18일에 타계하니 묘소는 청하 황암산(黃巖山)에 있다.

● **이정선(李挺善, 1622~1697)**

자는 성배(聖培) 호는 삼원당(三願堂) 본관은 경주이며, 조선조 광해군 임술년에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학행이 뛰어나 여러 번 도천(道薦)을 받아 복호(復戶)를 받았으나 덕을 숨기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세인들이 숭정처사(崇禎處士)라 불렀고, 선산(先山) 아래 집을 지어 놓고 삼원당(三願堂)이라 하니, 삼원은 첫째, 선산을 지키는 일, 둘째, 자손들이 한데 모여 화목하게 지내는 일, 셋째, 성현의 경전(經典)을 본받아 덕행을 닦는 일이었다. 임종시에는 목욕한 후 의관을 정재(整齊)하고, 자손들에게 삼원의 뜻을 유언한 뒤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 **이시일(李時逸, 1731~1792)**

초휘(初諱)는 시탁(時鐸) 자는 경안(敬安) 호는 한와(閑窩) 본관은 경주이며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총명하여 학문이 뛰어나 26세에 문과에 급제하니 당시 유척기(兪拓基) 대감이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스스로 벼슬길을 개척해 조봉대부(朝奉大夫) 병조좌랑을 거쳐 형조좌랑, 경상도아사(慶尙道亞使)를 지낸 후 만년에는 홀로 계신 모친을 효성으로 모셨다.

● **이규일(李圭日, 1826~1904)**

자는 경장(景長) 호는 사류재(四留齋) 본관은 경주로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학문이 뛰어나 25세에 과거에 급제한 후 관직에 50여 년 동안 재직하였다. 흥문원부정자, 경기도사(京畿都事)를 거쳐 사헌부장령 통정대부를 지냈다. 황산 고을 현제(縣宰)를 지낼 때에는 역관(驛官)과 사패(賜牌)의 횡포를 뿌리 뽑아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사또라는 별명이 있었고, 운현궁송덕비(雲峴宮頌德碑)와 조지산(曹芝山) 정매산(鄭梅山)선생의 비문을 지어주기도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병자년에 큰 흉년이 들자 녹봉(祿俸)으로 백성을 살려내기도 한 목민관이었으며 유고(遺稿)로는 사류재문집(四留齋文集)이 전하고 있다.

● **이하구(李廈構, 1662~1698)**

자는 여궁(汝肯) 본관은 경주로 조선조 현종(顯宗) 임인년(壬寅)에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문명이 높았으며, 약관(弱冠)에 생원진사에 합격한 후 성균관에 있을 때 옥천 조병인(玉川 趙德隣) 창설 권두경(蒼雪 權斗經) 등과 함께 학문을 강마(講磨)하면서 동고록(同苦錄)을 저작하였으며, 정세(政勢)가 당쟁으로 시끄러워 짐에 낙향하여 은거하면서 후진을 양성하였다.

● **이하겸(李厚謙, 1681~1723)**

자는 사실(士實) 호는 구암(舊庵) 본관은 경주이다. 천성이 영리하여 12세에 칠서(七書)를 모두 읽고 14세에 문장이 대성하였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고 실학에 관심을 두어 훈수 정만양(塤叟 鄭萬陽) 지수 정채양(篋叟 鄭蔡陽) 매호 손덕승(梅湖 孫德升) 매산 정중기(梅山 鄭重器) 명고 정권(鳴阜 鄭權) 등과 도의(道義) 교류하였으며, 통찰력이 뛰어나 숙종 때 장희빈(張禧嬪)의 국모 복위를 위해 각읍(各邑) 유생(儒生)이 서명진소(署名陳疏)코자 하였으나 公은 이를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 유고(遺稿)로 구암집(舊庵集)이 전하고 있다.

● **손염조(孫念祖, 1785~1860)**

자는 백원(伯源) 호는 무민(無悶) 본관은 경주로 기계면 계전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구암 이수인(懼庵 李樹仁)과 해은 강필료(海隱 姜必孝) 문하에서 수학하여 경사(經史)를 통달한 후 벼슬에 뜻이 없어 문사들과 교류하며 돈세자적(遜世自適)하였다.

자호(自號)를 무민(無悶)이라 하고 후진양성에 전력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후학들이 1843년 무민재(無悶齋)를 건립하고 동편은 반구정(反求亭) 서편은 영시헌(永矢軒)이라

하니, 상량문은 동래부사 조휘림(趙徽林)이 짓고, 글씨는 해은거사 강필효(海隱居士 姜必孝)가 썼으며, 유고로는 무민집(無悶集)이 전하고 있다.

● 정극일(鄭克一)

국포(菊圃) 정응성(鄭應星)의 손자로 학문을 즐겨 경사(經史)에 통달하고 산학(算學)에 뛰어났으며, 평생 忠孝를 바탕으로 후세 교육에 전념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증직 받았다.

● 정석중(鄭錫重)

본관은 영일, 국포 정응성(菊圃 鄭應星)의 증손이다. 학문의 도를 닦아 효제(孝悌)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를 증직 받았다.

● 정기찬(鄭基燦)

본관은 영일, 선대의 학문을 이어받아 유학자의 자질을 두루 갖췄다.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후진 양성에 힘써 절충장군행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 行知中樞府使)를 증직 받았다. 사당(祠堂)이 남아있다.

4. 고승(高僧)

● 오암대사(鰲巖大師)

속성은 김씨, 본명은 하(河) 법명(法名)은 의민(義旻) 가락국 김수로왕의 후예로서, 부친 김석경(金錫慶)은 해남현감(海南縣監)이며, 어머니는 연안 이씨이다. 조선 숙종 36년 경인(庚寅) (1710년) 10월 2일 청하현 오두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같은 마을 이진사(李進士)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재주가 특이하여 선생의 사랑을 받으며 20세 전에 사서오경 제자백가의 모든 전적(典籍)을 통달하였다. 19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난치의 병에 걸려 3년 동안 갖은 고통을 겪자 대사(大師)가 치성을 다해 간호하였으나 22세 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가누지 못한 나머지 인생무상을 깨닫고 친척으로 중이 된 각신장노(覺信長老)에게 나아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불가(佛家)에 귀의한 대사는 이미 세속에서 큰 선비로 이름이 났으므로 불경을 공부하는데 일람첩기(一覽輒記)기였으며 25세 되던 해에 강백으로 이름 높은 계영당수행대사(桂影堂守行大師)에게 나아가 사교(四教) 대교과(大教科)를 수업하였다.

계영대사(桂影大師)는 서산대사(西山大師) 6세 법손(法孫)이며, 오암대사는 서산대사의 8세 법손(法孫)이다.

시문(詩文)이 뛰어나서 유림들과 글 시합을 여러 번 하여 문장이 출중함이 널리 알려졌으며, 특히 흥해 최농수공(崔農叟公)과는 자주 교류하여 문집에 오산상인(鰲山上人)이라고 기록된 시문이 전하며, 그 位相이 大師에 이르렀고, 유불(儒佛) 양교에 많은 문헌을 남겼으며, 오암집(鰲巖集)이 전하고 있다.

● 남파대사(南坡大師)

속성은 월성 이씨, 이름은 화묵(華默) 자는 백은(白隱) 호는 남파(南坡)로 조선조 영조(英祖) 경신년(庚申年)에 장기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는 허씨이다.

화엄경십지론의 대조종(大祖宗)으로 어린나이에 승과(僧科)에 급제하여 대선(大選)이 제수되고, 그 후에 대사에 이르러 밀양 표충사수호도총섭(褒忠祠守護都摠攝)을 지내고, 만년(晩年)에 향리인 석남사(石南寺)에 돌아와 체류하다가 순조(純祖) 정축년에 세상을 뜨니 향년 78세로 입적하였다.

● 손규상(孫珪祥, 1901~1963)

본적은 기계면 계전리이나 출생지는 울릉군 남면 사동이다. 1937년 비학산 신분릉 심수전(新墳陵心修田)을 개간하여 1946년 5월까지 10년 동안 고행(苦行)하다가 불경진공묘유(佛經眞空妙有)의 비경(秘經)에서 육자진언(六字眞言, 옴마니반매흠)의 대지(大智)를 계시 받아 고향인 기계면 계전리 소재 이송정(二松亭)에서 육자진언의 본존(本尊)을 받들고 교화포교(教化布教)하여 진각종(眞覺宗)을 중흥시켰다.

심인불교(心印佛敎) 진각종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후 전국적으로 발전시켰으며, 현재는 미국 LA까지 포교되었다. 발상지인 기계면 계전리 이송정 정문 앞은 유적지로 성역화 되었으며, 호는 회당(梅堂), 대한불교 진각종 대종사(大宗師)로 추천되었다. 저서로는 총지법장, 응화성전이 있다.

● 손원도(孫元道, 1901~1966)

호는 해봉(海捧) 본관은 경주이다. 기계면 계전리에서 출생하여 불경에 심취하더니 진언종교교리(眞言宗教敎理)를 터득한 후 대한 불교 진언종(眞言宗) 총무원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하고 진언종(眞言宗)을 중흥시켜 불교발전에 기여하여 대종사(大宗師)로 추대되었다.

5. 충비(忠婢)

● 단량(丹良)

조선조 세조(世祖) 계유정난(癸酉靖難 1452년)때 영의정을 지낸 황보 인(皇甫仁)의 여자종으로 1452년 10월 10일 밤에 영의정 황보 인이 수양대군에 의해 살해되자 화(禍)가 가문에 미칠 것을 예측하고, 영의정 손자 황보 단(皇甫湍)을 물동이에 숨겨 머리에 이고 황보 인의 사위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닥실리까지 팔백 여리를 걸어서 피신해 온 후 노자(路資)를 얻어 무작정 도망을 치다가 동해안 바닷가에 이르게 되니 이곳이 대보면 짚신골이다. 도망쳐 온 충비(忠婢) 단량(丹良)은 황보 단을 친자식처럼 키워서 성인(成人)이 되자 조상에 대한 내력을 일러 주었는데, 단(湍)의 증손 황보 억(皇甫億)이 구룡포읍 성동리로 이거해 와 세거지를 이루었으며, 성동리에 소재한 광남서원(廣南書院)에 단량(丹良)의 비(碑)가 세워져 있다.

● 순량(順良)

조선조 선조 16년 봄날에 흥해군수의 지우(知友)인 계림의 선비가 흥해에 유람와서 명승지를 찾아 여러 날 묵게 되었는데, 북미질부성 아래 곡강 어구에 기암절벽이 둘러싸인 풍광을 보며 유람하니 아름다운 한 낭자(娘子)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자태가 아름다워 희롱할 생각으로 시(詩) 한 수를 지어 크게 소리 내어 읊었다.

이비삼척검, 능단기인장(爾非三尺劍, 能斷幾人腸) “너는 삼척검이 아닐진데 몇 丈夫의 간장(肝腸)을 끊었느냐” 라고 하자, 낭자(娘子)가 시답(詩答)하기를 아본형남화시벽(我本荊南和是壁) 진성십오유불역(秦城十五猶不易) 우연유랑곡강두(偶然流浪曲江頭) 황여계림일부유(況與鷄林一腐儒) “나는 본시 중국 형남의 화시벽 같은 보배로서 진(秦)나라 성 15개로도 바꿀 수 없느니라. 우연히 곡강 머리에 유랑하지만 계림 땅 일개 썩은 선비와 어울릴 소냐” 라고 하고는 유유히 떠나버렸다.

그 후 망신을 당한 계림선비는 흥해군수에게 무례한 낭자를 벌할 것을 권하여 낭자를 체포토록 하였다. 명을 받은 군노사령(軍奴司令)들이 낭자가 사는 흥안리에 가서는 양반의 거만한 태도가 미워서 동임(洞任)에게 사실을 말하고 낭자를 피신하게 하니, 낭자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화(禍)가 가문에 미칠 것을 고민하다가 자결하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쓴 후에 몸종인 순량(順良)과 하직하고 북미질부성 아래에 있는 곡강참포관소(曲江槳浦官沼)에 몸을 날려 죽고 말았다. 이에 몸종 순량 또한 이낭자(李娘子)의 시신(屍身)을 안은 채 순절(殉節)하니, 그 이후 인조 때 흥해군수로 부임한 조성(趙成)이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순량의 충절을 기려 곡강어구 층암(層巖) 바위에 충비 순량의 비(碑)를 암각(巖刻)하였다.

● 갑연(甲連)

조선조 순조 30년 영일현에 사는 송과부(宋寡婦)가 여점(旅店)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연약한 여자라고 업신여겨 영업을 방해하던 악한배(惡漢輩)들이 능욕을 하므로 송과부가 분을 참지 못하고 강으로 달려가 물에 투신하니 송과부 집 여자종 갑연(甲連)이 주인을 따라가서 물에 빠진 송과부를 건져내고 자신은 물결에 휩쓸려 죽으니 그의 충절을 가상하게 여겨 당시 암행감사로 경상도를 순찰 중이던 박기수(朴岐壽)가 조정 에 상계(上啓)하여 정려하고 충비 갑연의 비를 세웠다.

비문은 경상도관찰사 병사수군절도사 대구도호부겸순찰사 박지수(朴岐壽)가 짓고 자헌대부 이조판서겸지경연흥문관제학 이면승(資憲大夫 吏曹判書兼知經筵弘文館提學 李勉昇)이 글씨를 썼다.

제3절 근대·현대

1. 충의(忠義)

● 최세운(崔世允, 1867~1916)

자는 성집(聖執) 호는 농고(農皐) 본관은 곡강으로 조선조 고종(高宗) 4년(1867년)에 흥해군 곡성리(曲城里)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그릇이 커 어려움을 당하여도 구차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부터 학업에 열중하였으며, 특히 손자병법(孫子兵法)과 오기(吳起)의 병서를 탐독하고는 평소에 말하기를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어찌 문필(文筆)만을 일삼아 평생토록 선비노릇이나 하고 지내리오. 복파(伏波) 장군이나 마원(馬援)같은 포부로 살리라” 하였다.

천문과 지리, 음양, 도략(韜略) 등을 탐구하면서 정열을 불태우고 있던 중 고종 갑오년(1894)사변과 을미년(1895)에 이르러 왜구들의 침략이 잦아지자 병신년(丙申年)에는 나라의 치욕을 씻으려고 기병하여 안동 의진(義陣)에 참여하였으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다시 의분을 참지 못하고 나라에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도찰사(都察使)를 지낸 영천 정환직(鄭煥直)이 고종황제의 밀조(密詔)에 의해 거의한 산남의진(山南義陣)의 흥해지역 활동책임자로 참가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나라에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1907년 죽장 입암(立巖) 전투에서 정용기(鄭鏞基) 대장을 비롯한 많은 의병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공은 병환으로 전투에 참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전한 장소에 이르러 통곡하였다.

정환직 대장이 남은 군사를 거두어 아들의 원수를 갚고자 왜적 섬멸에 최선을 다했으나, 상황이 불리하여 영천으로 가는 길가에서 정대장(鄭大將)은 해를 입고 말았다. 공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통분을 참지 못하고 “어찌 이 목숨이 살아 있는 한, 나라가 망하는 꼴을 앉아서 보겠는가” 하고는 도보로 의진(義陣)을 향했다. 부장 이세기 정순기(部將 李世紀 鄭純基) 등이 남은 군사들을 규합하여 보현산(普賢山)속에 주둔하고 있다가 공이 출진했다는 말을 듣고 산남의진 3대 대장(大將)으로 추대했다. 공은 의병(義兵)을 이끌고, 흥해, 청하, 영해, 청송, 영천, 의성 등지로 전전하면서 왜적과 싸워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끝내 장기에서 왜병에게 체포, 청하 헌병대로 압송되어 대구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공은 대구에서 10년형을 언도받고 경성감옥으로 옮겨갈 때 왜놈 괴수에게 말하기를, “내 비록 나라를 위해 거사(擧事)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천명일 뿐이니 다만 내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고는 감옥살이 8년째 되던 해에 스스로 단식한 지 1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나니 때는 1916년 8월 9일, 공의 나이 50세였다. 한 많은 일생을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殉國)하였으니 우리 모두의 슬픔이며, 나라의 거룩한 넋이 되었다. 1968년 3월 1일 조국광복 유공자로 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자세한 기록은 본 시사 제1권 제6장 제3절 참조)

● **김상구(金相龜, 高城, 相奎, 1885~1908)**

1855년 6월 17일 영일에서 태어나 1905년 을사조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되자 고종황제는 측근의 정환직(鄭煥直)에게 의병(義兵)투쟁을 종용하였다. 이에 정환직은 아들 정용기(鄭鏞基)를 고향인 영천으로 내려 보내 의병조직을 명하고 조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용기가 고향으로 내려와 영남일대의 지사(志士)들을 규합하여 산남의진(山南義陣)을 결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산남의진에 입진(入陣)하여 청하일대를 중심으로 의병모집활동을 하였으며, 그 때 아들 하회(河回)도 함께 종군하여 서기로 진중일기(陣中日記)를 전담하였다. 1908년 정환직이 순국한 후 산남의진이 무너지자 동지 수십 명과 함께 제기할 것을 계획하고 기호(畿湖)지방으로 가다가 충북 단양에서 왜적을 맞아 접전하던 중 1908년 4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 **김윤진(金潤鎭, 泰煥, 1882~1964)**

1882년 10월 28일에 영일에서 태어났다. 1905년 을사조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되자 항일의병이 일어났다. 이에 공은 국운을 회복하고자 산남의진(山南義陣)에 자진 입대하여 항일투쟁에 투신한 후 1907년 4월 정용기(鄭鏞基) 정학진(鄭鶴鎭) 최세한(崔世翰)의 휘하에 소모장(召募將)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를 전후한 시기에 흥해, 기계,

신령, 의성, 영덕, 입암 전투에서 수십 명의 왜적을 사살하였다. 한편 우재룡, 박광, 이한구와 함께 왜놈 관사를 방화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으며, 또한 전투중에 적에게 체포된 정학진 장군의 구출작전을 주도하여 왜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7월에 동지 백영근과 함께 체포되어 압송되는 중에 왜병 2명을 제압하고 간신히 도망쳐 은신하였다. 그러나 탈출에 실패한 백영근은 압송되어 7년형의 옥고를 치루었다. 1964년 세상을 떠나니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 이종흠(李鐘翕, 1861~1919)

자는 중순(仲純) 본관은 경주, 회경(晦慶)의 증손이며 이수응(李壽應)의 아들로, 조선 조 철종(哲宗) 신유년(1861)에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는 것을 걱정하다가 병신년(1896)에 교남 유림(嶠南 儒林)이 고종황제의 밀조를 받들어 김도화(金道和) 남승철(南升喆) 이준구(李俊久) 등과 함께 각 고을과 연계하여 의병을 모집하게 되자 공은 기계면 인비장터에서 경주의진(慶州義陣)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채구(李采久)를 소모장으로 공은 참모장으로 추대되어 경주지방일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왜병과 싸워 많은 전공을 남기었으나 동해안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한 끝에 의병진(義兵陣)이 힘을 잃고 해산단계에 이르자 후일을 기약하며 고향으로 돌아와 은신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서 암암리에 의병활동단체들과 연락을 취하며 구국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만년에는 두봉산(杜峯山) 밑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지도하며 시문(詩文)을 즐기다가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니,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이상호(李相浩, 1876~1949)

자는 기연(璣璉) 호는 월중(月中) 본관은 영천이다. 조선조 고종(高宗) 병자년에 기북면 오덕리(吾道)에서 장사랑(將仕郎) 이흥락(李興洛)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영오(聰明穎悟)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떨구게 하는 위엄이 있었으며, 골격과 인물이 빼어나 큰 재목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학문을 닦아 병서를 탐독하며 호연지기를 키워 나갈 즈음,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한일합방이 되자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인근지방의 동지를 규합하여 영천(永川)에서 일어난 정용기 대장과 함께 산남의진(山南義陣)을 결성하여 1906년 본진 참모장으로 선임되어 화총 80정과 군량미 200석을 조달하였으며, 흥해, 청하 등지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죽장면 立峯 전투에서 정용기 대장이 전사하자 의진(義陣)을 재정비하여 영덕주방지역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은신(隱身)치료하던 중 정환직 대장이 왜놈에게 체포되었다. 단독으로 잔류병을 재규합하여 항전하다가 흥해시장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1908년 2월 필사적

으로 탈옥하여 관동지방에 피신하여 의병 재규합을 도모하다가 왜병에게 탄로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상으로 장기간 신음하다가 광복을 맞아 귀가하였으나, 가문은 황폐되고 친상은 탈상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1949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나니,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로 선정, 1980년 8월 15일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정치익(鄭致翼)

호는 만돈(晩遯) 본관은 오천으로 조선조 철종(哲宗) 신해년(1851)장기면 수성리(元坊)에서 정유규(鄭裕奎)의 4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용모가 빼어나 큰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영천 정문각당(永川 鄭文覺堂) 문하에서 수학하던 중 선인들의 충절을 흠모해 오다가 성동3리에 소재한 광남서원(廣南書院)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다가 순국한 황보 인(皇甫仁) 선생을 모시는 사실을 알고부터 광남서원(廣南書院)에서 학문을 닦았다. 한편으로는 효성이 지극하여 23세 되던 해 친환(親患)이 위독함에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3일간이나 수명을 연장시켰다.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국운이 기울어져 왜구가 동해안일대를 노략질하자 변방보루를 튼튼히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재를 털어 장기향교에 200냥을 헌금, 장기성(長鬢城)을 보수하기도 하였다. 1905년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의분을 참지 못하고 지역 유생과 나라를 걱정한 나머지, 나라를 팔아먹은 당시 대신(大臣)들을 역적이라 규정하고, 장기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왜군과 항전하는 장헌문(蔣憲文)을 도와 병기구입비를 조달하였고, 당시 산남의진(山南義陣)을 결성한 정환직(鄭煥直) 대장 진영에 군량미를 조달하는 등 나라를 구하기 위한 충절지심으로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진영(義兵陣營)과 연락하면서 왜병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첩보활동을 해 왔다.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왜군 헌병대로부터 지명 수배되어 고향에 거주하지 못하고, 만주에 가서 활동하다가 나이 80에 노환으로 귀향, 세상을 떠나니 광복의 기쁨도 보지 못하였다.

● 장헌문(蔣憲文, 1870~1929)

자는 무장(武章) 호는 휘헌(滌軒) 본관은 牙山으로 1870년 5월 9일 장기현 서면 죽곡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우(氣宇)가 비범하고 그릇이 커 큰 재목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며, 학문에 열중하여 경사에 통달하였고, 충과 효를 실천에 옮겨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였다. 나라를 걱정하여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잡기 위한 충정을 불태우고 있던 차에 한일합방이 되고 왜병이 동래성에 입성하여 살상과 방화, 약탈을 자행하자 공은 인근동지 300여 명을 규합, 장기고을 의병진의 중군장(中軍將)으로 추대되었다. 가재를 털어 군수물자를 마련한 후 의병진을 진두지휘, 장기를 기점으로 하

여 경주, 죽장, 기계, 흥해, 청하 등지에서 일제주둔 부대를 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남기고, 수시로 영천의 산남의진 정환직(鄭煥直) 대장과 연락하고, 영덕의 의병대장 신태호(申泰浩, 들석) 진영과도 연계하여 3개 진영이 합세, 강릉을 거쳐 서울로 진격키로 계획하였으나, 일제 수비대에게 탄로되어 북상공격계획을 변경한 후 인근 일제주둔군과 접전을 전개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쟁터에서 많은 병사(兵士)를 잃고 자신도 총상을 당하여 왜병에게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7일 대구 재판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1918년 12월 출감한 후 귀향하여 구룡포읍으로 주소를 옮긴 후, 다시 옛 동지들을 재규합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하다가 1929년 1월 25일 고된 옥고를 치른 여독으로 세상을 떠나니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로 선정, 1968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역사편 참조)

● 이종하(李鍾夏)

자는 재숙(在淑) 호는 동암(東菴) 본관은 창녕이다. 장기에서 태어나 왜정시대 의병장 장헌문 휘하에서 의병활동을 하면서 후방에서 남몰래 군량미와 군기, 군전을 조달하다가 탄로되어 피신하면서도 다시 산남의진에 가담하여 일생동안 항일투쟁에 앞장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그의 충절은 후세에 길이 사표가 되었다.

● 민시식(閔時植, 1878~1947)

1878년 4월 28일 영일에서 태어났다. 1906년 영천에서 의거한 정용기(鄭鏞基)의 병장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영천(永川)의 동북지방 산악지대에서 거주하는 100여 명의 포수들과 함께 산남의진(山南義陣)에 입대하여 의병모집과 군수물자 조달에 공헌하였으며, 항상 선봉에 나서서 활약하였다. 영천, 청송 전투에서 왜적과 접전하여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1947년 5월 24일 세상을 떠나니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양제안(梁濟安, 1860~1929)

1860년 4월 9일 영일군 죽장면 두 마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벽도(碧濤) 1896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왜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어난 이기찬(李起贊)의병진의 중군장(中軍將)으로 임명되어 금릉(金陵)에서 부서를 정하였는데, 병력이 수백 명이었다. 의병진을 김산과 성주 두 곳에 설치한 이기찬(李起贊)은 대구를 공격하기로 하였으나, 기밀이 누설되어 김산은 경군(京軍)과 공주관군(公州官軍)의 역습으로 물러났다. 공은 이 때 흠어진 군사(軍師)를 모아 충북 진천으로 이동

하여 활동하였다. 1905년 일제의 강요에 1,300만원의 국채를 지게 되자 전국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는데 公은 대구에서 금연보채운동(禁煙報債運動)을 벌였다. 1910년을 사조약으로 일본헌병경찰 제도가 실시되자, 公은 영주(榮州) 풍기(豊基)에서 광복단(光復團)에 가입, 군자금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후진에게 배일사상교육에 힘써 항일투쟁정신을 고취시키다가 1929년 5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서는 公의 항일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신태주(申泰周)

자는 성순(聖順) 호는 대산(大山),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철종(哲宗) 갑인년에 죽장면 논곡에서 태어났다. 고종 32년에 왜인(倭人)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있는 후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公은 안동의병장(安東義兵將) 권세연(權世淵)과 관동창의사 민용호(關東倡義士 閔龍鎬)로부터 연락을 받고 흥해에서 기병(起兵)한 후 의병 300여 명을 인솔, 안동창의소에 합세키 위하여 행군하던 중, 기계 죽장을 거쳐 청송을 경유하는 도중에 왜병과 격돌하여 승전하고, 안동의병진과 합세한 후 안동, 봉화, 영양 등지에서 왜병과 싸워 많은 전과를 남기고, 강원도 창의사 서상열 의진(徐尙烈義陣)과 합세하여 상경하던 중 낭천(浪川)전투에서 대패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公은 패잔병을 재규합하여 귀향한 후 해산하고 두문불출하더니 나라가 망함에 장기간 단식하다가 운명하였다.

● 이재구(李采久)

자는 덕오(德五) 호는 정일(貞日) 본관은 여강(驪江)으로 신광면 우각에서 태어났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있는 후에 분기하여 김하락(金河洛) 의병진에 참군하였으나, 고종황제의 의병해산 조치가 있어 탄식하며 궁리한 끝에 경주성(慶州城)을 공략하기로 하고 김하락(金河洛) 대장과 협의한 후 의병 500명을 인솔, 선봉장으로 출진하여 경주성을 공략하니 왜병이 의병진의기세에 놀려 도망쳤다. 그 후 청송전투에서 승리하고 영덕전투에서 의병장 김하락이 전사하였으므로 의병진은 해산되었고, 公은 귀향 후 비학산 아래 은거하면서 종신토록 불세출(不世出)하였다.

● 이기철(李基轍)

자는 순일(舜日) 호는 양죽당(養竹堂) 본관은 영천으로 청하면 필하리에서 태어났다. 명성황후시해사건이 있는 후 율분을 참지 못하여 병신년 3월에 향림(鄉林)이 모의하여 의병(義兵)을 모집한 후 진영을 구성했을 때 公은 참모장으로 활동하다가 청하 옛재(六峴)에서 왜병과 싸웠고, 그 후 고종황제의 의병해산령에 의하여 해산한 후 귀향 은신(隱身)중 세상을 한탄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 **김진규(金鎭奎)**

자는 문숙(文淑) 호는 묵제(默齋) 본관은 의성으로 순조(純祖) 갑오년(1834)에 청하 소동리에서 태어났다. 을미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있던 후 분기의병(奮起義兵)하니 진영이 400여 명이었으나 고종황제의 의병진 해산 칙명이 있어 진영을 해산하고, 죽 장면 가사리에 은신하다가 계축년에 세상을 떠났다.

● **이도상(李燾相)**

자는 극수(極守) 호는 월오(月梧) 본관은 영천으로 청하면 필화리에서 출생하여 을미정변 때 창의하여 소모군자감(召募軍資監)으로 종군하였다. 그 후 고종황제의 칙명에 의하여 의병진(義兵陣)을 해산한 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자, 삼일불식(三日不食)하고 서쪽을 향해 통곡하더니 행방이 묘연하였다.

● **윤면익(尹冕翼)**

자는 자원(子元) 호는 돈산(遯山) 본관은 과평(坡平)이다. 을미년 명성황후시해사건 때 의병으로 종군한 후 고종황제의 의병해산 칙명에도 불구하고 죽장(竹長) 영덕(盈德) 달산(達山)에서 왜병과 항전하다가 순절하였다.

● **이하정(李廈禎)**

자는 인가(仁可) 호는 월봉(月峯) 본관은 청안(淸安)으로 별감좌수(別監左首)를 지내다가 을미년 명성황후시해사건 때 을분을 참지 못하고 동지 김송몽(金松夢) 정천녀(鄭千汝) 서초천(徐初千) 김인수(金仁守) 등과 의병을 모집, 훈련중에 고종황제의 칙명에 의하여 의병 진영을 해산하고 천석사령(泉石寺嶺)에서 은신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 **김태환(金泰煥)**

자는 문옥(文玉) 호는 운강(雲岡) 본관은 월성으로 1880년 기계면 봉계리에서 出生하였다. 26세 때 산남의진(山南義陣)에 가담하여 정용기(鄭鏞基) 대장 휘하에서 청송, 진보, 의흥, 흥해, 청하, 영덕 등지에서 왜병과 싸워 많은 전과를 남기고 정대장(鄭大將) 부자가 모두 순절하자 자취를 감춘 채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후 세상을 떠났다.

● **백남신(白南信)**

본관은 수원(水原) 초휘(初諱)는 영근, 영촌(永根, 永村)이며, 1882년 죽장면 지동리(芝洞里)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뛰어났고 포수(砲手)로서 이름을 날렸

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국운이 기울어지자 애국충정을 불태우고 있던 중 정용기(鄭鏞基) 대장이 산남의진을 규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에 가담하여 선봉장(先鋒將)으로 흥해, 청하, 청송, 영주, 영덕 등지에서 왜병과 싸워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영천 자양(紫陽) 전투에서는 맨주먹으로 왜병 2명을 때려 살상한 맹장이다. 산남의진(山南義陣)이 대패하여 해산된 후에 강도 살인죄로 일헌(日憲)에 체포되어 7년형을 살고 난 후,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광복을 맞은 후 세상을 떠났다.

● 조규원(趙奎元, 1844~1907)

죽장면 매현리 출생, 자는 경문(敬文) 호는 죽제(竹齊)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학행과 덕망이 있어 광무(光武) 6년(1902년)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고 이듬해 광무(光武) 7년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있는 후 산남의진(山南義陣)을 기병한 영천 정환직(鄭煥直) 대장이 몇 차례 죽장 매현을 방문하여 의병모집 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죽장면 의병규합에 크게 공헌하였다.

● 곽한철(郭漢喆, 1864~1950)

자는 평노(平老) 본관은 현풍(玄風)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한 망우당 곽재우(忘憂堂 郭再祐) 장군의 11세손이다. 조선조 고종(高宗) 갑자년 청하면 고헌리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호걸의 기상이 있더니 장년이 되어서 흥해 망천리에 이거하여 살았다. 당시 시대상으로는 조선조 말엽, 국운은 기울어지고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공은 나라 잃은 설움을 한탄하며 큰일을 할 것을 맹세한 후 재산을 모으기 위해 상업을 시작했다.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한지, 견어물 임산물 등 갖가지 물품 등을 수집 동해안 일대를 비롯 전국을 상대로 하여 사업이 크게 번창하였다.

그 후 송라면 화진리로 옮겨 염전을 개발, 많은 재산을 모은 후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고 영재교육을 위해 송라초등학교 교실 2칸 건립비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송라면사무소 건축, 보경도로 확장 보수를 지원하는 등 당시 화폐(日貨)로 거금 일만원을 회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암암리에 독립운동단체에게도 자금을 조달한 우국지사였다. 공은 한평생 동안 자선을 베풀고 향년 86세로 송라면 광천리에서 세상을 떠나니 지방민들이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송라초등학교 정문 앞에 공덕비를 세웠다.

● 이화일(李化日, 1877~1969)

동해면 도구에서 출생, 호는 화석(化石) 포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한제국 당시 1904년(광무8년) 미국 하와이주에 이민 간 후 이승만 박사가 조직한 대한독립국민회에

가입하여 막노동으로 받은 월급 중에서 그 일부를 매달 회비로 납부하는 등 독립단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1907년 귀국 후 수산업을 경영,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해방 후 대한국민회포항시회장, 포항시경노회장, 반공청년회고문으로 활동하였다.

● **최익수**(崔翊洙, 1861~1940)

연일현 북면 상도동에서 출생, 자는 수백(遂佰) 호는 수재(遂齋) 본관은 경주이다.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던 큰 선비가 되었다. 과거시험을 몇 번 봤지만 실패하고는 이재(理財)에 관심이 있어 거부(巨富)가 되었다. 당시 일제치하에서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조직해 놓고 연일군수와 일본헌병대장이 회장으로 취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돈 오백 냥을 헌병대장에게 뇌물을 쥐가면서까지 사양하니 일본헌병대장도 당신의 애국심에 감동하였다고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한다. 한편, 상해 임시정부요원 두 사람이 형산강제방공사 인부로 가장 최부자 댁에 침입, 돈 오백 원을 강탈해간 사실을 숨겨오다가 일본경찰에게 흑독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고 연일수리조합장 재직 시 일본사람 이사가 수세(水稅)를 중과(重課)하자 의견충돌이 생겨 조합장직을 헌 짚신짜처럼 팽개친 애국지사였다.

● **손학수**(孫學秀, 1850~1915)

연일현 북면 상도동에서 출생. 자는 경모(敬募) 호는 덕보(德步) 본관은 밀양이다. 인품이 호탕하고 의협심이 강해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일에 앞장섰다. 일찍 상업에 종사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함경도 원산, 강원도 강릉 등지를 상거래 지역으로 왕래하였으나 당시 일본인들이 동해안 일대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략에 대한 반항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일제가 시행한 형산강제방공사 편입부지 보상운동을 전개하여 총독부로부터 토지보상을 받게 하는 등 대한남아답게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 **이일우**(李一雨, 1886~?)

호는 죽비(竹比) 경주 이씨로 10여 년간 한문을 사숙(私塾)하여 한시(漢詩)에 능했다. 인품이 부드럽고 원만하여 매사에 타협적으로 임했다. 학문과 덕행이 높아 주위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연일군수로부터 효자상을 받기도 했다. 연일청년회장을 지냈고 미 군정청 포항주둔미군 고문으로 추대 받아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신망을 받았다. 경상북도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고 영국, 미국, 소련의 삼상회담 결정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신탁통치반대투쟁 위원장을 지냈으며 해방 후 대한광복군연일군조직위원장, 연일군국민회장, 미군정시 정

부입법위원, 포항중고등학교 기성 회장을 지냈으며 시민의 윤리와 도덕심 고양을 위해 포항명륜 회장을 역임했으며 포항청년회 등 반공단체 총지도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 일 해온 지도자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공헌하였다.

● **강대근**(姜大根, 1891~1957)

자는 성구(聖九)영일 출신이다. 1907년 정용기가 이끄는 산남의진에 참가하여 청하, 흥해, 의성, 청송등지에서 항일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듬해 죽장면 입암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 되었다.

● **박정원**(朴正原, 1898~ ?)

대송면에서 출생, 호는 해은(海隱) 본관은 밀양이다. 한학에 통달하였고 신학문을 겸비하여 남의 존경을 받을 만큼 인품이 뛰어났다. 양조장을 경영하여 경제적 기반이 잡히자 대송초등학교 불우아동을 돕는데 앞장섰고 대송면 의회의원, 연일어업조합통상위원을 역임하였고, 포항시농회장 재직 시에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크게 헌신하였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포항어업조합장을 역임하였고 포항중학교 기성회장 재임 시에는 개인재산을 들여가며 공립중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포항국민회장을 역임하면서 반공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으며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도우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고, 농어민 소득증대와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 **정화기**(鄭華基, 1901~?)

연일면에서 출생, 자는 천수(天壽) 호는 한민(韓民, 대한의 백성)이다. 조부는 성중대부(城中大夫)로 연일현 관아에 출입했으며 부친은 현감 길들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리만큼 강직한 집안에서 태어나 한학을 공부하였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이름나더니 마침내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 졸업 후 일본 구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27년 포항의원을 개원하였다. 당시 환자를 잘 본다는 명의로 소문이나 서울, 부산, 평양, 대구, 함흥 등지로부터 환자가 몰려들었다한다. 환자를 정성껏 돌봐주고 치료비는 가장 저렴하게 받으니 덕망과 인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評)이 났다. 그러나 일본사람에게는 냉정하여 배일의사(排日醫師)라 부르기도 하였다.

● **오상선**(吳祥善, 1862~?)

장기에서 출생, 호는 야석(冶石) 1917년 연일현 북면 포항동이 면으로 승격할 당시 초대 면장을 지냈다. 인품이 고매하고 주위 사람들의 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되었으나 일제하에 관직에 머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한복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였다.

● **신태주(申泰周, 1855~?)**

어릴 때 이름은 태범(泰範) 字는 성순(聖順) 호는 大山, 본관은 평산으로 연일 논곡에서 출생하였다. 의협심이 강하고 재주가 뛰어나 학문을 익히며 병서를 공부하였는데 고종(高宗)2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후 의병을 모집 1896년 안동의병장 권세연(權世淵)과 관동의병장 민금호로부터 안동창의소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포항, 흥해, 연일, 기계, 죽장, 신광 등지에서 모집한 의병 300여명을 통솔 지휘하니 당시 나이 42세였다. 안동으로 이동 중 청송전투에서 왜병을 격파하고 안동창의본부의병장 유인석(柳麟錫)과 강원도 창의군 서상열(徐尙烈) 군사와 합쳐 도처에서 격전하다가 남천에서 왜적에게 크게 패하였다. 남은 군사 수십 명을 이끌고 야간 행군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원수를 갚지 못한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통곡하며 해산하였다. 그 후로 은신하다가 나라가 국권을 상실할 기미가 보이자 일가친척집을 일일이 방문한 후 단식으로 순절하였다.

● **오용간(吳用干, 1868~?)**

일명은 용수(用守)라하고, 호는 직공(直公) 청하 덕성리에서 태어났다. 포항으로 이주하여 포항교회 독실한 신도였다. 한학에 통달하였으므로 주위에서 과거시험에 응시하라는 권유도 있었으나 나라가 망하는데 벼슬 따위는 마다하고 중국 사람과 공동으로 상업을 하면서 교회집사로 있었으나 포항에 일본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배일(排日)감정이 쌓이기 시작 신도들과 행동을 같이하니 일본헌병의 감시대상 인물이었다.

1919년 기미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김광재 등과 모의, 국기와 빼라 3,000매를 제작 교회마루 바닥에 숨겼다가 일본헌병대에게 압수당한 뒤 주동인물로 수배되어 송라면 대전리 독립지사인 이태하 집에 숨어 있다가 3월 22일 청하시장 만세사건에 가담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복역 후 출옥하였다. 일본헌병의 감시 속에 견디지 못하여 1925년 홀로 만주로 망명하였다.

● **정성욱(鄭成郁, 1885~1965)**

호는 일포(日圃) 고종(高宗) 병오년에 산남의진(山南義陣)에 가담하여 척후병으로 활동하여 신령, 의흥, 청하, 흥해, 영덕 등지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남기었고, 丁未年 9월 1일 立岩전투에서 정용기 대장(鄭鏞基 大將)이 전사한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가담,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金佐鎭) 장군 휘하에서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전과를 남기고, 귀국한 후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일헌(日憲)에게 체포되어 1년형을 복역한 후 구룡포 교회 장로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에는 반공민족운동에 가담하여 구룡포 국민회장을 역임한 후 은거 자적하였다.

● **이준구**(李俊久, 1867~1940)

자는 국보(國甫) 호는 오유재(五柳齋) 본관은 여강으로 고종(高宗) 정묘년(1867)에 기북면 덕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골(氣骨)이 장대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이웃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더니 명성황후시해사건이 있는 후 분개하여 일어난 김하락(金河洛) 의병진이 남한산성에서 패배하고 산남지방으로 남하하여 경주지방에서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날로 경주부로 달려가 소모장(召募將)을 맡고 있는 이채구(李采久) 휘하에서 참모장으로 활약하면서 청송, 기계, 흥해 전투에서 왜병과 싸워 많은 전공을 남기고 의병장 김하락(金河洛)이 영덕전투에서 전사하자 의병진(義兵陣)은 해산되고 말았다.

公은 그 길로 귀향하여 덕동에 은거하며 의병활동을 계속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우용구**(禹龍九, 1890~?)

대보면 대보리(大甫里)에서 출생, 한학을 수학한 후 경남 양산에서 기미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가담, 일본헌병에게 체포되어 6개월 형을 받고 대구감옥에서 복역한 후, 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에 입단하여 독립군 자금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평생토록 왜놈을 저주하면서 살았다.

● **이태하**(李泰夏, 1900~1986)

어려서부터 총명예지하여 한학을 수학하고 약관유생(弱冠儒生)으로 추앙을 받았다. 1919년 3월 22일 청하시장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6개월 형을 살고난 후, 대전리아학원(大田里夜學院)을 설립하여 후진교육에 전념하면서 대전농우회(大田農友會)를 조직하여 민족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1920년 3.1만세운동 출옥인사 26명이 조사리 교회에 모여 조직한 영일군 3.1동지회에 참여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해방을 맞아 은거 자적하였다.

● **편동현**(片東鉉, 1885~1960)

호는 화산(華山) 고종 22년 3월 10일 신광 반곡에서 태어났다. 만석(萬石)군의 아들로 나이 열여덟 살에 일본에 유학하여 1913년 명치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시절 조만식(趙晩植) 선생과 교분을 맺어 구국운동에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하고, 귀국 후 1915년 1월 경북 달성군 수성면에 소재한 안일암(安逸庵)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겉으로는 시회(詩會)라 하였으나 실제로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回復團) 모임이었다.

단원 구성원은 36명으로 서상일, 서상권, 박상진, 김응섭, 최 준, 윤상태(徐相日, 徐相權, 朴尙鎭, 金應燮, 崔 浚, 尹相泰) 등 영남 명사들로 구국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이었다. 광종석, 안희제(郭鐘錫, 安熙齊)와 서로 연결되어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 엄주동(嚴株東)

1897년 5월 23일 엄재영 선생의 8남매 중 차남으로 장기면 임중리에서 출생, 32세 되던 해 (1929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로 이거, 선생은 1912년 보성중학교 2년 재학 중 대종교를 봉교(奉敎)하였고 그때 대종사인 흥암 나철 선생이 주천(柱天), 호를 보본(普本)으로 작명 했다.

1915년 11월 연희전문학교 2학년 재학중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가서 북경, 상해, 만주 등을 전전하며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대한군정서 총재인 백포 서일 선생이 이끄는 독립군단의 일원으로 활약, 신규식 선생의 밀사역할을 했다. 1920년 청산리 용정에서 군자금 조달을 위해 미곡상을 경영하다가 1926년 11월 밀고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40여 일간 심한 고문 끝에 석방되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민족의 얼과 애국정신을 심기 위하여 전국을 누비며 대종교 포교활동을 하다가 1975년 2월 15일 서울 종로에서 향년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묘는 대전 국립현충원 제2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건국훈장, 대통령포장을 수상 했다.

● 이창모(李昌謨)

청하면 필화리에서 태어나 부친인 서포(西圃) 이백의 아들이다. 대학자인 부친(父親)의 가업을 승계하여 학문을 배우고 인격을 연마한 대쪽 같은 선비였다. 의병진을 결성한 김진규(金鎭奎)와는 사돈지간으로 공은 창의 소모장(倡義 召募將)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조선조 말엽 탐관오리가 판을 치던 때에 청하현감으로 부임해 와서 탐관오리들을 아홉 명이나 쫓아낸 주동인물이었다.

● 이상택(李相澤, 1907~?)

장기면 신계리에서 출생, 소시부터 근면성실로 부농을 이루었고 식민정책하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항거하면서 배워야 승리함을 인식하여 서당을 열고 봉산초등학교 설립추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며 많은 회사를 했다. 해방 후에는 장기중학교 설립과 법인이사로 기여해 왔으며 충효의 고장 전통문화를 고수하며 장기향교 전교를 역임했다. 유교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여 출입한 정신적인 문화로 타인의 본보기가 되었다.

● **성석표**(成錫杓, 1891~1948)

자는 문오(文旰), 호는 각헌(覺軒), 본관 창녕, 현감 성희겸(成喜謙)의 6대손, 장기면 창지리에서 출생하여 동해면 석곡(石谷) 이규준(李圭峻)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의 학풍은 전통적인 성리학보다는 실사구시의 실학에 가깝다. 향리에서 서당을 열어 오열상, 이준연, 이종관, 엄현섭, 김종원, 이상택, 안근승 등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1927년에 한의사 면허를 얻고 오천으로 이주하여 일성위원을 열고 인술을 펼쳤다. 1948년에 타계하여 1970년에 제자들이 뜻을 모아 장기면 신계리 묘역에 묘비를 세웠다.

● **곽이조**(郭二祚, 1889~1951)

흥해 출신이다. 1907년 음력 11월 3일 광덕산, 김봉조 등과 함께 흥해군 북상면 벌제동에 살던 고낙삼에게 가서 의병 군자금으로 100원을 모금하고 북하면 도항동 박곡강에게 50원을, 11월 23일에도 흥안동의 오사성에게 30원을 각각 모금하는 등 주로 의병 군자금 모금활동을 벌였다. 얼마 뒤 일경(日警)에 체포된 그는 1908년 8월 19일 대구 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15년 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구상본**(具尙本, 1898~1963)

흥해 출신이다. 1919년 10월 21일 경북 영일군 흥해면 남송동에 거주하면서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배를 통분히 여겨 “지금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北에는 독립당이 있고 西에는 독립론자가 있어 조선은 興하고 일본은 망할 것으로 대왕은 속히 賢人으로 하여금 조선의 왕을 세워 후환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대왕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서를 작성, 봉투 앞면에는 구상본이라 쓰고 뒷면에는 대정씨전(大正氏殿)이라 기록하여 다음날인 22일 영일군 포항면 포항동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이어 1919년 10월 27일 “국운이 불행하여 불측의 난이 일어났는데 사람은 남의 죄를 말하기 쉬운 것이어서 이제 구상본이 대왕의 죄를 말할 것인즉 참으로 듣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첫째는 각국에는 각 주인이 있는 것이며 주인 있는 나라는 취하지 않은 것인데 대왕은 탐폭(貪暴)의 마음으로 강제로 조선유주(朝鮮有主)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고 생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돌보지 않음이 죄요, 둘째는 그 나라 임금을 죽이고 충정의 무리를 죽여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죄요, 셋째는 군자(君子)를 소인(小人)으로 만들고 소인은 군자로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죄라. 이 三罪를 가지고 백성의 위에 있음은 잘못으로 대왕의 몸에 해가 미칠 뿐 아니라 日國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써서 봉투 앞면에는 일본 황제 대정전이라 쓰고 뒷면에는 구상

본이라 써서 이 해 10월 29일 영일군 포항면 포항동 우편함에 투입하였다가 10월 30일 일경(日警)에게 피체되었다. 1919년 12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불경(不敬)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구한서(具漢書, 1864~1930)**

자는 경만(敬萬) 영일 출신이다. 1906년 3월 영천에서 정용기가 거의(擧義)하여 산남의진을 조직하자 이 의진(義陣)에 가담하여 영덕, 영해 방면의 의병소모 책임을 맡음과 동시에 도총장에 임명되어 각지를 전전하며 왜군과 교전하였다. 그 뒤 1907년 10월 죽장 입암에서 의병장 정용기를 비롯해 중군장 이한구, 참모장 손영각, 좌영장 권규섭 등이 모두 순국하고 의진이 해산될 때 정환직이 잔여의병을 수습, 산남의진이 재기하게 되자 그는 중군장의 소임을 맡아 청송, 진보 등지에서 일군과 교전하였다. 그러나 정환직 의병장도 영덕에서 순국하게 되자 1908년 1월에는 최세한 역시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이에 그는 후일 재기를 기약하고 해진(解陣)하여 이후 약 10년 동안 피신생활을 하였다. 1990년에는 애족장이 추서 되었다.

● **권대진(權大震, 1869~1918)**

영일 출신이다. 1906년 3월 경북 영천(永川)에서 정용기가 산남의진을 일으킬 때 박한중과 함께 영산, 밀양, 청도등지에서 의병소모와 군수품 조달의 임무를 맡아 활동하였으나 신병으로 인해 출전하지는 못하였다. 그 뒤 1907년 10월 죽장 입암에서 의병장 정용기를 비롯해 중군장 이한구, 참모장 손영각, 좌영장 권규섭 등이 모두 순국하고 의진(義陣)이 해산될 때 정환직의 잔여의병을 수습, 산남의진이 재기하게 된다. 그러나 정환직 의병장도 영덕에서 순국하게 되자, 1908년 1월에는 최세운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그 참모장이 되어 5백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군(日軍)과 항전을 벌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김연일(金連日, 1871~1940)**

영일 출신이다. 1918년 9월 19일, 제주도 좌면(左面) 도순리(道順里) 소재 법정사(法井寺)의 승려로 있으면서 신도(信徒) 30명에게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탄(併呑) 했을 뿐만 아니라 병탄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을 연설로써 반일독립사상을 고취 하였다. 이어서 동년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군사 대오(隊伍)를 편성하고 각 면 면장들에게 격문을 보낸 후 주민 40여명을 규합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일경주제소를 습격, 파괴하고 일인(日人)들을 포박하여

구타를 하는 등 이를 동안 전개된 격렬한 항쟁을 지휘하다 일경(日警)에 피체되어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동년 4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 되었다.

● **김영철(金永喆, 1898~1987)**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에 참여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공원을 출발하여 종로를 지나 남대문 정거장 앞에 이르는 시위행진에 동참 하였다. 이어 3월 5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남대문 앞의 만세시위에도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년 5월에 신현구 등에 의해 조직된 대한독립 애국단에 가입하여 활동 하였으며 특히 항일문건의 국내 배포를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 출판법, 보안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000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김창수(金昌水, 1889~1957)**

영일 출신이다. 정용기 의진에 가담하여 흥해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소모장인 자신의 매부 정순기를 도와 흥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동지 최세한, 정래의 등과 함께 의병소모와 군자금 모집을 하는 한편 정세를 정탐하여 의병진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1995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백영촌(白永村, 1882~1964)**

영일 출신이다. 1906년 4월에 산남의진의 의병대장 정용기 휘하에서 도포장(都砲將)으로 활약하여 영덕 강구에서 적군 수십 명을 사살 하였다. 그 후 정용기가 순국한 뒤 정환직 막하(幕下)에서 영덕, 흥해 등을 함락시킬 때 선봉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7년형을 언도 받고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 되었다.

● **손수용(孫秀用, 1883~1952)**

영일 출신이다. 1907년 청하, 의성 등지의 의병장 이석이 휘하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11월 15일 의병장 이석이와 함께 동지 7명과 더불어 청하군 죽장면 두 마리에 거주하는 박수복(朴壽復) 김운집(金雲集) 정두정(鄭斗定)의 가택을 습격,

권총으로 위협하여 엽전 10관 200문을 모금하여 군자금으로 조달하였다. 1909년 1월 3일 이 일이 탄로나 일본 관헌(官憲)에게 체포되어 징역 15년형을 언도 받고 상고하였으나 3월 대구공소원에서 기각 당하고 대심원에서 기각 되어 원심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2년 11월 26일 소위 칙령 제3호에 의하여 징역 5년형으로 변경되었다. 1980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 되었다.

● **손용술(孫容述, 1882~1969)**

영일군 죽장면 매현리 출신이다. 그는 산남의진에 소속되어 초장(哨長)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별래재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어 청하현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일본 헌병 1명을 죽이고 탈옥하였다. 일제는 관직을 미끼로 회유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고 결국 그의 모친은 옥사(獄死)하고 가옥이 소실되었으며 부인은 자결하는 참사를 겪기도 하였다.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 되었다.

● **윤응원(尹應元, 1874~1911)**

영일 기북 성법출신이다. 1907년 11월경 박덕삼이 이끄는 의병부대에 들어가 그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경기도 가평, 강원도 춘천, 양구 등지에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12월 6일 춘천군 추곡에서 일군과 교전을 벌여 패한 뒤에는 일시 해산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윤태훈 의병부대에 참가하여 1908년 2월 20일 까지 강원도 흥천 일대에서 항전을 벌이다 피체되었다. 7년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이규성(李圭成, 1870~1949)**

영일 출신이다. 1907년 음력 10월 정환직 의병장이 이끄는 산남의진에 들어가 흥해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 뒤 일제하에서도 의병활동을 계속하다가 1912년경에 피체되었다.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이창순(李昌淳, 1840~1910)**

영일 출신이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김진규(金鎭奎)의진에 입대하여 중군장으로 활동하다가 고종의 의병해산 칙령을 받고 곧 의진을 해산하였다. 산남의진이 조직되자, 이를 위하여 군자금 모금과 의병소모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9월 12일 국권침탈조약의 비보를 듣고 통분을 이기지 못해 단식 순절하였다. 1977년에 대통령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이한구**(李韓久, 1870~1907)

영일 출신이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비분강개하여 의병대장 정용기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상의하여 이듬해 1906년 4월에 동대산(東大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즈음 정용기 의병장이 우각지역에서 적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자신도 함께 체포당하기를 청할 만큼 동지에 대한 의를 중히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 후 휘하의 의병들을 인솔하고 주왕산(周王山)으로 들어가 활약하고 있던 중 이경구가 약곡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의병진을 이끌고 약곡으로 나아가 이경구를 고무 격려 하면서 서로 비탄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청하를 습격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의병부대를 인솔하여 덕성리를 거쳐 진격하던 중 돌연히 일본군이 공격을 단행함에 이들을 맞아 의병들을 독려하며 격전을 펼쳐서 적군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 이튿날 일본군이 북진을 파하였기에 신태호가 이를 추격하였으나 다시 패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이한구는 의병진들에게 후일을 도모하자는 기약을 하고 의병진을 해산하였다. 1907년 정용기와 더불어 재차 의병을 일으켜 청송의 신성으로 진영을 옮기던 중 밤중에 일본군이 잠입하여 파수병을 사살하고 의병진으로 돌진하니 적들과 맞서 치열하게 전투하여 적군 3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자양(紫陽)전투에서 일본군의 분파소장(分派所長)을 생포하고 일본군 3명을 사살하였다. 1907년 9월 11일 입암(立巖)에서 교전 하던 중 정용기 등과 더불어 전사 순국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 되었다.

● **이진규**(李晉奎), 1877~1939)

영일 출신이다. 1907년 12월 12일 선봉장으로 총기로 무장된 의병 수십 명을 인솔하여 흥해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순사 한 명과 한인 순사 한 명을 살해하였다. 동년 12월 22일 밤에 다시 청하경찰주재소를 습격하다가 피체되었다. 1908년 8월 17일 징역 15년을 받았다. 1986년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정상득**(鄭尙得, 1886~1969)

영일 출신이다. 1906년 산남의진이 구성되자 이에 참가하여 척후장으로서 활약하던 중 체포되었다. 출옥한 후 1909년에 의병장 민금호(閔肯鎬), 김상태(金尙台) 등과 회합하여 북계곡에서 왜병과 교전하여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대구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에 3.1 동지회를 조직하여 3.1정신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1968년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조성목**(趙性穆, 1868~1937)

영일 출신이다. 1906년 3월 정용기가 산남의진을 조직할 때 그 휘하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러나 1907년 7월 입암전투에서 일군(日軍)에 패하여 의병장 정용기를 비롯해 중군장, 참모장, 좌영장 등 의진의 핵심들이 일시에 전사해 의진이 해체되자 은둔하였다. 그 뒤 1927년 산남의진에 참가한 거의제공(擧義諸公)의 충절을 기리고자 참동계를 만들고 서문을 작성, 배포하다가 피체되었으나 기소증지로 풀려났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정진한**(鄭鎭漢, 1867~1947)

영일 출신으로 정환직의 제종질이다. 1905년 일제의 책략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측근에 있던 정환직에게 의병 거사할 것을 종용하였다. 산남창의진(山南倡義陳)이 형성되어 대장으로 정용기가 추대되고, 정진한은 소모장에 임명되었다. 산남의진 초기에 정진한은 의병소모와 군수품 수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7년 8월 정진한은 영천 자양에 침입한 왜적을 격파시키고 청하, 흥해, 군위 등지의 왜적을 격파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정환직 대장마저 체포되어 순국한 후에는 최세한(崔世翰), 이세기(李世紀) 등과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 후 접전중에 적에게 체포되어 종신형을 언도받았으나 1910년 경술국치 특사를 받아 석방되었다. 1982년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 되었다.

● **최돌이**(崔斗伊, 1884~1948)

영일 출신이다. 1906년 3월 경북 영천에서 정용기 등이 산남의진을 조직하자 아우 최차돌과 함께 그 휘하에 들어가 항전을 개시한 이후 정용기 대장이 순국한 후에는 정환직의 아버지인 정용기를, 아들인 정환직 사후(死後)에는 다시 최세한 의병장을 따라 활동을 계속하다가 1908년 3월 산남의진 해체와 더불어 활동을 종료한 뒤, 아우와 함께 중국 동삼성으로 망명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최치환**(崔致煥, 1875~1994)

영일 출신이다.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자, 최치환은 국권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산남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06년 3월 광무황제의 밀명을 받은 정용기는 이한구, 손내숙 등과 힘을 합쳐 각지에 통유문(通諭文)과 권고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방관에게는 통고문을, 각 진(鎭)에는 격문을 보내 거의(擧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민중에게 호소하는 청조문(請助文), 농민을 안도시키는 고시문, 유림을 격려하는 격고문 등을 보내어 거의를 준비하였다. 1907년 10월 입암전투에서는 중과부적으로 의병장

정용기를 비롯하여 손영각, 권규섭 등이 전사, 순국하는 패전을 겪었다. 公은 이때 체포되어 수년간 옥고를 치렀다.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최차돌**(崔杻鬃, 1889~1960)

영일 출신이다. 1906년 3월 산남의진이 조직되자 형 최돌이와 함께 그 휘하에 들어가 항전을 개시한 이후 정용기를, 정용기의병장 사후에는 아들 정환직을, 정환직 사후에는 다시 최세한 의병장을 따라 활동을 계속하다가, 1908년 3월 산남의진의 해체와 더불어 활동을 종료한 뒤 형과 함께 중국 동삼성으로 망명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김만수**(金萬守, ?~?)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윤영복, 오용간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같은 해 4월 28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김유곤**(金有坤, 1920~1987)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18일 청하면 덕성리 덕성교회에서 윤영복, 오용간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모인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일본 헌병의 발포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시가행진을 계속하다가 체포,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으나 고문의 여독으로 1920년 10월 3일 24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1992년 건국포장이 추서 되었다.

● **김윤선**(金允先, 1865~1932)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18일 송라면 대전리에서 윤영복, 오용간 등이 주도하는 독립만세 시위계획에 참여하고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아들 김유곤과 함께 만세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김종만**(金鍾滿, 1887~1967)

송라면 대전리 출신으로 1919년 3월 18일 대전리에서 윤영복, 오용간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3월 22일 청하 덕성이 장터에서 군중 수백 명을 모아 태극기

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대전학원을 설립하여 항일사상을 고취하고 비밀결사대 3.1회를 조직, 지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송문수** (宋文壽, 1882~1940)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8일 포항교회(현,제일교회)의 최경성, 장운환 이기춘, 이봉학 등과 비밀리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11일 포항장날을 거사일로 정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경에 발각되어 독립선언서 등 인쇄물을 압수당하고 주동인물들이 체포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3월 11일, 12일 양일간 1천여 명의 군중들이 장터에 모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나 일경에 의해 해산되고 그 때 公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 되었다.

● **김진봉**(金鎭奉, 1890~1959)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18일 송하면 대전리에서 윤영복 오용간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22일 청하 덕성리 장터에서 군중 수백 명을 모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안도용**(安道用, 1893~1921)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18일 송라면 대전리에서 윤영복 오용간과 함께 독립만세를 계획하고 3월 22일 청하 덕성리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안상종**(安常鍾, 1893~1925)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18일 송라면 대전리에서 윤영복, 오용간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다가 3월 22일 청하 덕성리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안천종**(安千鍾, 1870~1940)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 청하 덕성리 장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3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안화중**(安和鍾, 1888~1965)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18일 송라면 대전리에서 윤영복, 오용간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22일 청하 덕성리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윤영복**(尹永福, 1896~1943)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 송라면에서 교회 동지 23명을 규합,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일경에 검거 되어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1933년 1월 만주로 망명, 봉천성 개원현에서 대한독립단에 입단,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37년 3월 일본군의 탄압으로 지하운동을 통해 재만(在滿)동포에게 배일사상을 고취시켰다. 봉천 흥농회장직과 북갑문 기독교회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윤도치**(尹道致, 1853~1929)

송라면 대전리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덕성리 장터를 비롯한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의 여독으로 1919년 5월 31일 옥사, 순국하였다. 1977년 대통령표창, 1991년 대통령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이명만**(李命滿, 1900~1986)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8일 송라면 대전리에서 윤영복, 오용간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22일 덕성리 장터에서 군중 수백 명과 독립만세운동을 고창,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이봉학**(李鳳鶴, 1896~1974)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11일 포항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포항교회(현, 제일교회) 장로 송문수 영흥학교 교사 장운환 (제일교회 영수), 제일 교회 장로(영흥학교 교감), 제일교회집사 이봉학 교인 이기춘 (영흥학교 교장) 등과 비밀회합을 갖고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거사준비 중에 일경에 발각되어 인쇄한 준비물 등을 압수당하고 주동 인물들이 모두 검거 되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포항읍 민들에게 알려지자 3월 11일 양일간 포항읍민 수백 명이 포항장터에 운집,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공은 이때 체포되어 징역 5월의 옥고를 치렀다. 1999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이영섭**(李永燮, 1898~1960)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18일 송라면 대전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이상호**(李相浩, 1876~1954)

영일 출신이다. 1906년 영천일대에서 의병장 정용기를 중심으로 산남의진이 조직되자, 이상호는 예안, 안동에 배치되어 소모활동 및 거사계획을 추진하였다. 1907년 8월 산남의진의 본격적인 의병활동이 전개되었으나 10월 입암전투에서의 의병장이 적에게 살해되어 순국하자 나머지 의병을 이끌고 의방장의 부친 동업 정환직을 다시 의병장으로 추대하여 청송, 진보, 청하 등지에서 적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19년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1980년 건국포장,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정백용**(鄭伯用, 1891~1956)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 청하 덕성리 장터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김인수**(金仁秀, 1898~1939)

영일 출신이다. 1918년 10월 5일 제주도 남제주군 좌면 법정사에서 일어난 항일 무력시위에 참가하였다. 법정사의 스님인 김연일(金連日) 등은 1918년 9월 19일 신도 30명에 대하여 “왜노(倭奴)가 우리 조선을 병탄하였을 뿐 아니라, 병합 후에 관리(官吏)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불원 불무황제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니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사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들을 도외(島外)로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거의(舉義)를 촉구하였다. 마침내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김연일은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하고 박주석을 도대장으로 임명한 후, 김인수 등에게 각각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김연일은 도대장 이하 군직을 명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각 면,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해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이때 모인 항일봉기군은 400여 명이나 되었다. 김연일, 김인수 등의 주도자들은 봉기군을 지휘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서귀포 호근리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일경들이 미리 서귀포에서 무장한 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자 김연일은 박주석에게 그곳에서 일경과 대치하도록 하고, 그와 김인수는 봉기군 일

부를 데리고 중문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주재소장 길원은 갑작스럽게 닥친 봉기군을 방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주재소를 파괴, 소각하고 일경 3명을 포박하였으며, 13명의 구금자를 석방하는 등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징역 3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김헌술(金憲述, 1924~?)

영일 출신이다. 일본 경도중학교 재학 중인 1941년 5월에 교우 김연규와 함께 일제의 민족차별에 분개하고,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독립의 실현이 급선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항일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 하였다. 이들은 동년 6월부터 9월까지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쌓았는데 한편으로는 일본과 일전을 겨룰 것에 대비하여 군사교육에도 정진하기로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조선인 징병제도에 반대하여, 만약 징병을 당할 경우에는 조선인 병사들로 하여금 연합군에 투항케 함으로써 일제에게 타격을 주어 패전을 촉진케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에 앞서 그는 동지포섭에 힘을 쏟아 학우 또는 동향의 지기(知己)들에게 일제의 민족차별과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폭로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 그러던 중 이러한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42년 10월에 피체되었다. 피체 후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 되었다.

● 김홍진(金洪鎭, ?~1924)

영일 출신이다. 의성단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1923년 김홍진은 활발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의성단에 가담하여 서간도지역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무장투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자금의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김홍진은 김창진과 함께 군자금 모집을 위해 1924년 6월 9일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으로 파견되었다. 이 지역은 자신의 고향인 영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이곳의 지리나 인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홍진은 영덕경찰서 장사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다 경찰들과 교전 끝에 전사 순국하였다.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 되었다.

● 이정우(李正雨, 1923~1979)

영일 출신이다. 1940년 일본 장야현립농업학교 재학중 이태호와 함께 항일투쟁을 결의하고 우리말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계몽에 주력할 것을 다짐 하였다. 그 후 1941년 2월에는 고향선배인 이진호에게 편지를 보내 참씨제도, 지원병제도, 내선일체 등

일제의 통치방식은 우리의 정신을 용해시키는 수단이므로 우리도 단결하여 구체제의 개조, 국민교육실시 등으로 독립의식 배양을 주력하자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활동 등으로 공은 동년 4월 학교로부터 소행불량학생으로 근신처분을 받고 울산농업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하였다. 그러나 1943년 5월 공의 편지가 일경에게 발각되어 피체 되었으며, 1944년 2월 14일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83년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이재술**(李再述, 1901~1968)

영일 출신이다. 1920년 말 만주 길림성 무송현에서 항일무장단체인 흥업단의 단장 김호와 외교부장 김송규의 밀명을 받고 군자금 2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된 흥업단원 이만준을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1922년 2월 손기성, 권총락, 김연환, 최명해 등과 같이 이에 가입하였다. 그는 경북일대에서 군자금모집 활동 중 1922년 6월에 김창우와 함께 체포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68년 대통령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이주호**(李柱鎬, 1921~?)

영일 출신이다. 대구사범학교를 재학 중인 1940년 11월 30일에 동교의 비밀결사문예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문예부는 민족문화존중과 항일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결사로서 부원을 비밀업수 및 매주 토요일 작품 감상, 비판 등의 운동방침을 정하고 1940년 11월 말부터 1941년 3월까지 약 9회의 모임을 가졌다. 유흥수, 권패복 등 15명과 함께 당시 대구시 대봉정 소재 그의 하숙집에 (유흥수와 동일 하숙)모여 항일결사 다혁당을 조직하였다. 즉 다혁당은 위의 문예부 및 동교의 다른 비밀결사인연구회의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조직을 확대하여 타교생 및 일반 사회인까지 포섭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1941년 7월 대구사범학교 비밀결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도 일경에 피체되었으며, 그 후 2년여 동안 미결상태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11월에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77년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 **이태홍**(李泰鴻, 1922~?)

영일 청하면 출신이다. 일본 장야현 소재 상이나농업학교(上伊那農業學校)에 유학중이던 1940년 3월 같은 학교 기숙사에서 동향선배 이정우에게 “한민족과 일인은 도저히 융합될 수 없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위 내선일체론은 실현불가능한 일” 이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장차 독립된 조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사

용함으로써 민족교육에 대비할 것을 결의 하였다. 또한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특별지원병제 강제에도 적극 반대하기로 하였다. 1941년 2월 18일은 일제가 강행하는 한인 지원병모집과 창씨개명 등이 민족말살의 동화정책임을 규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 할 것을 더욱 굳게 다짐 하였다. 그 뒤 상이나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43년 1월 귀국하여, 항일, 반전의식을 유포하여 일제패망을 선전하던 중 같은 해 6월 일경(日警)에 피체되고 말았다. 1944년 2월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언도받고 출옥하였다. 1992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이준석(李俊石, 1896~1955)**

영일 청하면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의 청하면 덕성리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3월 22일 오후 1시경, 윤영복, 오용간, 윤도치, 안천중, 안상중, 이준엽, 이영섭, 안덕환, 김만수, 김유근, 정백용 등과 함께 장터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친 후, 덕성리 일대를 시위행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83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장해동(張海東, 1901~1927)**

영일 출신이다. 계성고등학교 재학 중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을 비롯한 계성학교 학생들은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서와 함께 기숙사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거사를 준비해갔다. 그리고 거사 당일 장해동 등 1백여 명의 계성학교 학생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각자 거사장소인 장터로 집결하였으며, 50여 명의 신명여학교 학생과 2백 여 명의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가세하는 가운데 오후 3시경 미리 준비해 온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이어 이들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7, 8백 명의 시민이 가세하여 시위대의 규모는 1천 여 명에 달했다. 이때 일제는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일본군 80연대를 출동시켜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탄압하여 1백57명을 체포하였는데 공은 만세현장에서 피체되었다.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정기복(鄭基福, 1919~?)**

영일 출신이다. 일본대학 예술학원 재학 중인 1940년 10월에 일제의 민족차별에 분개하고 당시 동경중앙대학 학생인 이진기와 동지적 결합을 맺고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하였다. 그 후 동지포섭에 힘을 쏟아 1841년 10월에는 명치대학 학생인 심달윤 등을 동지로 포섭하였다. 이들은 동지적 유대를 강화해가면서 독립운동의 방

안에 관한 토론을 갖고 조선민중의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쌓았다. 이때 그는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이를 독립의 기회로 삼을 것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대중들에게 알리며 패전기 일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항일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이러한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43년 3월에 피체되었다. 피체 후 그는 국내로 이송되었고, 모진고문을 겪다가 1944년 2월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1982년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채실건(蔡實健, 1922~1949)

영일 출신이다. 대구농림학교 재학 중인 1939년에 일제의 식민정책인 일어사용, 창씨개명, 황국신민화 등에 반대하여 국학서적을 수집하여 탐독하면서 민족의식을 길렀다. 또한 그는 동지를 규합하여 자신의 하숙집을 밀회장소로 정하고 민족전통 및 한글연구를 통하여 식민통치의 부당성에 항거하였다. 그 후 1941년에 학교를 졸업한 그는 영일군농회 기수로 근무하면서 계속 후배들과 연락을 갖고 항일의식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던 중 1942년 봄에 대구농림학교에서 한·일 학생 간의 유혈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때 그는 그 배후주동자로 지목되어 피체되었다. 피체 후 그는 1년여 동안 미결수의 상태로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1943년 7월에 기소유예처분으로 풀려나왔으나 고문의 여독으로 1945년 3월에 순국하였다. 1980년 대통령 표창,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허담(許澹, 1886~1972)

영일 출신이다 대구성경학교에서 성경강습을 받던 중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의 만세운동은 남산정교회(대구 제1교회) 유지인, 이만집이 서울로부터 선언서를 전달받은 3월 2일부터 계획되었다. 이때 만세운동은 기독교계의 인사들과 더불어 계성학교와 대구고등보통학교, 신명여학교, 대구성경학교등 대구지역의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대구성경학교에서는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경상도내에서 기독교도 50여 명을 선발하여 성경강습을 실시하였는데, 허담은 이때 선발생으로 성경을 강습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의 만세소식이 전해지면서 성경강습생들과 더불어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이들 각 학교에는 처음에는 각기 만세운동을 계획해 갔으나 추진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3월 8일 서문시장 날을 기해 합동시위를 열기로 하였다. 거사 당일 허담은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서와 함께 기숙사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거사를 준비해갔다.

그리고 거사 당일 거사장소인 장터로 집결하였으며, 50여명의 신명여학교 학생과 2백여 명의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가세하는 가운데 오후 3시경 미리 준비해 온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이어 이들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7, 8백명의 시민이 가세하여 시위대의 규모는 1천여 명에 달했다. 이때 일제는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일본군 80연대를 출동시켜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탄압하여 1백 57명을 체포하였는데 허담은 만세현장에서 피체되었다. 1919년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5년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정재선**(鄭在先, 1898~1971)

영일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 덕성리 장날을 이용하여 3.1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 하였다. 이때 그는 시위대에 참여하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장터를 행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2004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김진수**(金鎭淳, 1890~?)

송라면 대전리 출신, 1919년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전개,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뒤 199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안덕환**(安德煥, 1886~1924)

송라면 대전리 출신, 1919년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전개, 일경에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안도용**(安道鎔, 1892~1923)

송라면 대전리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전개,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이태원**(李泰元, 1896~?)

송라면 대전리 출신이다. 1919년 3월 22일 청하면 덕성리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전개,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 **김성룡**(金成龍, 1926~2002)

관은 김해, 장기면 모포리에서 출생, 격동기에 태어나 장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야마구찌(山口縣) 현립 중부중학교에서 수학, 해방을 맞아 귀국, 1948년 조선경비

대 항공부대에 입대하여 1949년 육군항공병 소위로 임관, 1949년 10월 공군 창설로 공군비행단에 배속되어 F- 51전투기 조종사로서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을 시작하여 꾸준하게 전술을 익혀 오던 중에 1950년 한국공군 단독작전에 출격을 시작한 뒤에 승호리 철교차단작전, 평양폭격작전에 참여하여 적을 교란시켜 핵심적인 시설파괴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1955년 제 10전투비행단장, 1961년 공군작전사령관, 1966년 공군사관학교 교장, 1968년 공군참모총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하여 예편했다 1974년 영남화학(주) 사장,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평생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을지무공훈장, 대통령 수장, 충무무공훈장, 1등 보국훈장, 2002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대전국립묘지 장군묘역에 안치되었다.

2. 효자. 열녀(孝子 · 烈女)

● 이관이(李官伊)

이관이 여사는 경북 영일군 대송면 동촌에 살고 있었다. 18세에 林씨 가문에 출가 하였으나, 가정형편이 빈한하여 결식하며 살다가 돌연히 남편이 양친부모와 자식 2男을 두고 죽은 후로는 설상가상으로 가계가 어렵게 되자 李女史는 청춘과부로 각 동리마다 가가호호 문전을 구걸하여 고령인 시부모와 어린 두 아들을 봉양중, 양친 시부모가 병석에 누워있는 10년 동안 병을 수발해 왔다.

효부 이 여사는 10년을 하루같이 구걸하여 약수밭과 지성으로 간호하여 왔으나 인명은 재천이라 당년에 양친이 모두 별세한 후 성장하는 2男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남 모르는 피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20년간을 구걸하여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니, 남편에게는 열부요. 시부모에게는 효성을 다하였다. 1940년 2월 2일 경북도와 영일군에서는 이여사의 효행사실을 뒤늦게 알고 표창식을 군 회의실에서 거행하고 표창과 상금을 하사하였다. (1940. 2. 15일자 동아일보 기사 참조)

3. 학행(學行)

● 김규학(金奎學)

자는 화중(華中) 호는 소초, 현감, 김희영(小焦, 縣監 金熙永)의 아들로 고종(高宗)을축년에 진사가 되고 경인년에 혜릉(惠陵)참봉을 지냈다. 사람됨이 너그럽고 성품이 중후하여 집을 다스림에 법도(法度)가 있었으며, 관직에 있으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하

여 향당(鄉黨)에 모범이 되었다. 명리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자연에 묻혀 살면서 후진을 양성하여 학계성첩인원(學契成帖人員)이 100여 명이 되었고 유고집(遺稿集) 2책이 전하고 있다.

● **김재운(金在玠, 1808~1893)**

자는 우흥(宇洪) 호는 운고(雲皐) 본관은 김해로 청하면 소동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품성이 영민호학(穎敏好學)하여 글을 배움에 회초리를 맞지 않고 경사와 자전(經史子傳)을 두루 탐독하였다. 정재(定齋)선생 문하에 들어가 이종상(李鍾祥)과 세한지계(歲寒之契)를 맺어 견문을 넓히면서 스스로 과거보는 계획을 버리게 되었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독송하며 구용구사(九容九思)의 글을 지어 마음을 닦는 요지로 삼았고, 부모를 섬김에 효성을 다하였으며, 仁을 체득함에 자연 사랑을 실천하여 후추가루로써 고기를 잡지 말며, 하찮은 청개구리나 개미 같은 미물(微物)도 밟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타일렀다. 한때는 청송 진보에 옮겨 살았으나 만년(晩年)에 고향에 돌아와 살면서 시문(詩文)을 지으며 후세 교육에 전념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운고문집(雲皐文集)2冊이 남아있다. 문집 목각판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안동 국학진흥원에 보관중이다.

● **최 학(崔嶽)**

호는 돈쌍(遯雙) 본관은 영천으로 재주가 뛰어나고 문행(文行)과 충효(忠孝)를 겸비하였으며, 국상(國喪)을 당해서는 시가(詩歌)와 주륙(酒肉)을 금하였다. 지천명(知天命)을 평생토록 지키며 지조를 지닌 선비로 추앙받았다.

● **이운기()**

호는 암재(巖齋)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질이 있더니 성인(成人)이 되어서는 이괴재공(李槐齋公)에게 글을 배웠고, 덕계 이정일(德溪 李貞一) 문하에 유학하여 측근으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다. 선대의 뜻을 받들어 학삼서당(鶴三書堂)이 있던 자리에 집 한 칸을 건립한 후 암재(岩齋)라 이름하고 존심양성(存心養性)하여 덕암십경(德岩十景)을 읊었으며, 삼강록(三綱錄)과 조선명륜록(朝鮮明倫錄)에 기록되고, 암재(岩齋) 창수록(唱酬錄)이 전하고 있다.

● **오형필(吳衡弼)**

자는 경은(景殷) 호는 놀암(訥庵)으로 총명 영리하여 한입헌 문하(韓立軒 門下)에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배우고, 조병덕(趙秉憲) 문하에서 성리학을 탐구하여 많은 제자를 배출시켰다.

● 허도(許 道)

자는 규오(奎五) 호는 금파(琴坡) 본관은 김해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여덟 살에 소학(小學)을 읽고 난 후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공경하더니, 성인(成人)이 되어서는 성리학과 시문(詩文)에 전념하여 향사(鄕士)의 추천으로 낙육재 입사(樂育齋 任司)로 강논 하니 이용직(李容直)이 한 번 보고는 남중호걸사(南中豪傑士)라 칭찬하고 조정에 품계(稟啓)하며 광영부도정(郭寧府都正)을 제수 받게 하였다.

● 이학기(李學基)

자는 석여(錫汝) 호는 죽와(竹窩)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천성이 명민하고 재기(才器)가 출중하여 열 살 되던 해에 한사(漢史)를 읽고 어린 나이에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섭렵한 후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실패하고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하였다. 재사(齋舍) 몇 칸을 지어 관선(觀善)이라 이름하고 향사(鄕士)들과 학문을 강마(講磨)하였으며, 향약계(鄕約契)를 만들어 예속(禮俗)과 덕업(德業)을 권장하며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전수하는데 공헌하였다.

● 김봉기(金鳳紀)

자는 윤고(允皐) 호는 오산(鰲山) 본관은 분성(盆城)으로 나천 김찬규(螺川 金瓚奎)의 아들이다. 천성이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효성이 지극하였고, 문장이 빛나 규장각직제학 민경호(奎章閣直提學 閔京鎬)가 그의 행적을 지었고 유집(遺集)을 남겼다.

● 이재록(李在祿)

자는 학경(學卿) 호는 병촉와(炳燭窩) 본관은 경주로 성품이 순수하고 올곧아 거짓이 없었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입헌 한운성(立軒 韓運聖)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이 빼어났다.

● 김기락 (金基洛)

자는 학원(學源) 호는 일계(逸溪) 본관은 경주로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더니 금암 이돈우공(肯庵 李敦禹公)에게 사사(師事)받아 문장이 대성하여 유고집(遺稿集)을 남겼다.

● 이능호(李能灝)

자는 화극(和克) 호는 상경헌(常敬軒)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천성이 순진 근면하여 어릴 때부터 유학에 뜻을 두어 회재(晦齋)선생의 태극서(太極書)를 연구하며 경(敬)으로

매사를 실행하여 인성(人性)의 진리를 터득하고, 효도로 아버이를 섬겨 효출어본성(孝出於本性)을 감지하였다. 경주 보문(普門)에서 태어나 죽장 상옥리에 옮겨 살면서 주경야독하며, 주자학에 잠심(潛心)하여 지위를 평가하는 강논(講論)을 펼치는 등 성리학에 탁월한 식견을 가져, 삼정록(三正錄)과 일건록(日乾錄) 등 7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 이능진(李能進, 1816~1878)

자는 겸수(謙叟) 호는 삼연(誦淵) 본관은 여강(驪江) 순조(純祖) 병자년(1816)에 기북면 오덕동에서 태어났다. 재예(才藝)가 출중하여 학문이 뛰어났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어 산수(山水)를 즐겨 유유자적하며 침간정(枕澗亭)을 지어 금서자락(琴書自樂)하였고, 만년에는 후진을 지도하며 연유고(淵遺稿)를 남겼다.

● 이규준(李圭駿, 1855~1923)

자는 숙현(叔玄) 호는 석곡(石谷) 본관은 월성으로 철종(哲宗) 을묘 11월 10일 동해면 임곡리(林谷里)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가세가 극빈함에 초로신무(樵勞辛務)하여 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해 학문을 닦을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공은 성장함에 큰 뜻을 품어 무사(無師) 독학으로 학문에 몰두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니 그 경지(境地)가 심오하여 경사(經史)로부터 제자백가에 이르기까지 무불통달(無不通達)하였다.

그러나 학문의 깊이란 무궁한 것으로 석곡(石谷)은 심중(心中)의 회의(懷疑)를 풀기 위하여 노사(老師)를 찾아 여러 번 전국을 순력하기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 저술에 힘쓰니, 당세의 거유(巨儒)로 공인되어 많은 제자(弟子)를 길러 내었다. 특히 공론과 가식을 싫어하고 실행과 진실을 좋아했으며, 서양의 실학에 관한 한역서(漢譯書)를 수입하여 탐독함으로써 서양의 형이하학적인 학문까지 그 식견을 넓혔으며, 육경(六經, 毛詩, 尙書, 周易, 春秋, 周禮, 儀禮) 26책, 전예(典例) 1책, 논어(論語) 3책, 노경(老經) 1책, 당송고시(唐宋古詩) 1책 등을 산정(刪正)하였고 서역의 법을 논한 포상기문(浦上奇聞) 1책, 당과의 시비를 논한 석곡심서(石谷心書) 1책, 수학(數學)을 논한 구장요결(九章要訣) 1책, 신교술세문(神敎術世文) 1책, 석곡산고(石谷散稿) 2책 등을 저작하였다.

● 서봉원(徐奉源, 1870~?)

자는 문일(文一) 호는 영모재(永慕齋) 본관은 달성이다. 石谷 이규준 문하에서 실학과 유학을 공부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이치와 자연의 순리를 기본으로 하는 실학을 익혔으며, 특히 한의학 분야에 각별한 지도를 받아 당시 한의원으로 의술을 펼쳐 병마

(病魔)에 시달리는 사람을 널리 구제 하였고, 만년에는 서당을 열어 후세교육에 힘써 통정대부를 증직 받았다.

● **서상선(徐相善)**

자는 성선(性善) 호는 일하(一何) 본관은 달성이다. 石谷 이규준 문하에서 학덕을 닦아 문장이 뛰어났으며, 중앙서원 창건에 앞장서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 **이 백(李 백)**

자는 명서(明瑞) 호는 서포(西圃) 본관은 영천(永川)으로 청하면 필화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예지하며 학문에 전념하더니 경서(經書)와 제자백가(諸子百家)를 통달하였고 위엄이 있어 이 지방 대학자로 이름이 높아 문하생이 수백을 헤아렸으며 公의 충국지절(忠國之節)을 본받아 문하생인 김진규(金鎭奎)는 청하지방에서 의병진을 결성하여 왜병과 싸웠다.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동몽교관 조봉대부(童蒙教官 朝奉大夫)를 증직받고 서포문집(西圃文集)과 서포정(西圃亭)이 있었으나 왜병에 의해 생가와 정자가 불타버리고 유고(遺稿) 일부가 전하고 있다.

● **권병락(權丙洛, 1873~1956)**

자는 항길(恒吉) 호는 하산(何山) 본관은 안동으로 죽장면 입암리(立岩里)에서 출생하여 조부 포암 권주욱(浦庵 權周郁)으로부터 한학을 수학한 후 문장이 대성하여 경향(京鄕)에 문명을 떨쳤으며 1929년 영일읍지 발간 당시 총재소임을 맡아 향토사(鄕土史) 기록에 공헌하였고, 동몽교관 승훈랑 유릉참봉(童蒙教官, 承訓郎, 裕陵參奉)을 지냈다. 저서로는 하산집(何山集) 3冊이 전하고 있다.

● **권병기(權丙基, 1876~1969)**

자는 성길(誠吉) 호는 농석(叢石)으로 권병락(權丙洛)의 친동생이다. 부친 권석한(權錫翰)으로부터 수학하여 문명이 영남에 떨쳤으며, 글씨를 잘 써 많은 유작을 남겼고, 산학에도 능하였다. 농석집(叢石集) 4冊이 전한다.

● **권석찬(權錫瓚, 1878~1957)**

자는 종서(宗瑞) 호는 시암(是岩) 본관은 안동으로 죽장면 입암리에서 출생하여 유졸수재(柳拙修齋) 문하에서 유학하여 문명을 떨쳤으며, 운오서당(雲塢書堂)을 열어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고 시암집(是岩集) 4冊을 남겼다.

● **최명호**(崔鳴鎬, 1900~1969)

자는 봉구(鳳具) 호는 회강(晦岡) 본관은 곡강으로 흥해읍 성곡리(馬坪)에서 태어났다. 성품이 쾌활하여 8세에 외삼촌 이창파공(李滄波公)에게 수학한 후 장회당(張晦堂) 선생 문하에서 효경(孝經) 논어(論語) 역학(易學)을 탐구하고, 글씨에 능하여 필명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35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집상중(執喪中)이었으나 왜병이 활보함에 분개하여 동지를 규합, 암약하다가 탄로되어 수개월 동안 옥중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후 세상에 뜻이 없어 은거자적하며 후진양성에 전념하였고, 유고집(遺稿集)을 남겼다.

● **이홍구**(李洪九)

호는 옥애(玉涯) 본관은 여강(驪江) 모와 이능기(慕窩 李能騏)의 아들로 고종(高宗) 무인년에 기북면 덕동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질이 있더니 학문에 전념하여 인도대요(人道大要) 이기찬요(理氣纂要) 등을 저술, 문집을 남겼다.

● **이대영**(李大榮, 1902~1974)

자는 염득(念得) 호는 묵암(默岩) 본관은 경주, 기북면 관천리(冠巖)에서 출생하였다. 품성이 영리하고 기골이 준수하였으며 특히 수염이 아름다웠다. 일찍 학문에 뜻을 두어 이계 이기희(伊溪 李紀曦) 문하에서 수학하여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이기학설(理氣學說)과 효경(孝經) 실학(實學)에 깊이 몰두하였으며 문장과 글씨가 뛰어나 동도거유(東都居儒)로 옥산(玉山) 구강(龜江) 동강서원(東江書院) 원장(院長)을 지냈으며 후세교육에 힘써 많은 제자를 길렀으며 유고집(遺稿集)을 남겼다.

● **김용제**(金鎔齊)

청하면 고현리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월성(月城)으로 신구(新.舊)학문에 뛰어났다. 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뛰어났으며 일제시대 나라 잃은 설움을 기록으로나마 전하고자 부군(府郡)통합으로 4개 고을로 나누어진 영일군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할 것을 계획하고 유림들과 의논하여 흥해향교에 편찬 본부를 두고 총독부 인가를 받아 1929에 영일읍지(迎日邑誌) 3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선생은 당시 편집주간으로 흠어진 자료들을 모아 읍지(邑誌)편성에 공헌하였으며 벼슬은 통정대부 참서관(通政大夫, 參書官)을 지냈다.

● **이은우**(李銀雨, 1893~1965)

자는 윤실(允實) 초휘(初諱)는 은우(殷雨) 호는 송람(松嵐) 본관은 경주로 고종(高宗) 계사년에 기계면 현내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청순하고 기품이 출중하

여 위엄이 있었다. 소년시절에는 집이 가난하여 독학으로 주경야독하여 학문이 대성하였으며, 성품이 봄날과 같아 사림(士林)들의 추앙을 받아 경주유도회장(慶州儒道會長)을 지냈다. 우애우독(友愛尤篤)하여 어려운 친척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무후(無後)한 집에 후사를 잇게 하여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고, 자수성가하여 가문을 번창시켰으며, 기계면장(1941~1945)을 지낸 후 동경지속편(東京誌續編) 편찬당시 주간을 맡았다.

● 정우택(鄭宇澤, 1889~1971)

자는 중언(仲彦) 호는 학강(鶴岡)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고종(高宗) 신묘년 4월 11일 흥해읍 성곡1리 마평(馬坪)에서 출생하여 병오년에 신광면 토성리에 이거(移居)하였다. 3세 때 부친을 여의고 편모를 모시고 살면서 효성을 다하였으며 학문에 뜻을 두어 시서경전(詩書經典)과 제자백가(諸子百家)를 통람하여 평생토록 수불석권(手不釋卷)하였고, 각 서원과 향교에 헌관(獻官)을 지냈으며, 학강의숙(鶴岡義塾)을 열어 후학교육에 힘써 문하생이 수백을 헤아리었으며 유고(遺稿)는 학강집(鶴岡集) 1책이 전하고 있다.

● 이명연(李明淵, 1903~1992)

자는 현석(峴石) 호는 지산(志山) 본관은 영천(永川), 기북면 오덕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경사(經史)에 박통(博通)하였으나 세상 어지러움을 한탄하며 주경야독하다가 왜놈이 활보하자 의분을 참지 못하고 숙부 월중(月中)공을 따라 산남 의진에 가담, 의병활동을 하였으나 연노하신 부모님 봉양을 위해 귀가하여 효성을 다하다가 양친이 세상을 떠나자 후진양성에 힘써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 정종락(鄭琮洛, 1906~1967)

일명은 덕선(德先), 자는 창길(昌吉), 호는 이당(怡堂),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1906년 병오(丙午) 11월 2일 흥해읍 성곡1리(馬坪里)에서 출생하였다. 공은 천품이 영리하여 글을 배움에 일람천편(一覽千篇)하여 학문이 뛰어났으며, 실학에 뜻을 두어 현대학문에도 조예가 깊었고, 국운이 쇠퇴함에 국권회복을 위해 서숙(書塾)을 열어 후진(後進)을 교육시키니 그 문하생이 백을 헤아렸으며, 당시 문우인 최명호(崔鳴鎬) 정태호(鄭兌鎬) 박유곤(朴綏坤) 최덕은(崔德殷) 등과 시문(詩文)을 논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유작으로 이당유고집(怡堂遺稿集) 1책이 전하고 있다.

● 편무설(片茂壽, 1858~1912)

자는 장오(章五) 호는 굴사(橘史) 조선조 철종(哲宗) 9년 12월 6일 신광면 반곡에서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아담하여 남과 더불어 사귀기를 잘 하였고 학행이 뛰어

나 광무 1년에 통훈대부 안기찰방(通訓大夫 安奇察訪)으로 천거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시문(詩文)에 뛰어나 스스로 지은 한시(漢詩) 일백여수를 수록한 굴사시초(橘史詩抄)를 남겼다.

● **박유곤(朴綏坤, 1899~?)**

자는 사기(士旂) 호는 만초(晩樵)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부친으로부터 학문을 익혀 문장이 뛰어났다. 1910년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한탄하고 흥해읍 학천리에서 은거자적하며 문우(文友) 회강 최명호(晦岡 崔鳴鏞) 이당 정종락(怡堂 鄭琮洛) 정태호(鄭兌鎬) 등과 시문(詩文)을 즐기며 지내다가, 만년에는 서당을 열어 후학을 지도하니 그 문도(門徒)가 수십을 헤아렸다.

● **곽종윤(郭鐘允, 1863~1940)**

자는 순필(舜弼) 호는 경軒(敬軒) 본관은 현풍(玄風)으로 철종 14년(1863)에 청하면 고현리에서 출생, 학문에 뛰어났으며 한의학과 지리풍수학에도 통달하였다. 한말(韓末) 위정척사론에 뜻을 두어 향리(鄕里)에 서당을 개설, 후진양성에 공헌하였으므로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학계(學契)를 조직하고 경수정(敬守亭)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고현리에 현존하고 있다. 예도(禮道)를 숭상, 미풍진작(美風振作)에도 힘을 기울여 유림향약소(儒林鄕約所)의 사무약장겸 영일군도헌(事務約長兼 迎日郡都憲)으로 활동하였다. 심성이 후덕하여 어려운 인근 주민들의 신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초당(草堂)을 설비하여 과객(過客)들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 **이종영(李鍾榮, 1861~1930)**

자는 계함(季涵) 호는 학고(鶴阜) 본관은 경주, 조선조 철종(哲宗) 신유년에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청아하고 재주가 뛰어나 문명이 높더니 34세 되던 해 고종갑오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찬하던 중, 갑오경장이 일어나자 개화내각에 불복하고 향리에 돌아와 은거자적하며 계전리(桂田里)에 학고정(鶴阜亭)을 지어놓고 자연과 더불어 생애를 같이 하니 세인들이 현포선금(玄圃仙禽), 中國 崑崙山에 사는 신선)이라 하였다.

● **이채영(李埰榮, 1819~1893)**

자는 주언(周彦) 호는 방산(方山) 본관은 경주이며 조선조 순조(純祖) 기묘년에 기계면 현내리에서 태어났다. 성품이 총명 예리하여 13세에 사서(四書)를 모두 읽고 15세 되던 해부터 당숙 학남공(鶴南公)에게 경서(經書)를 배웠는데, 효성이 지극하여 조석으

로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으며, 공부에 열중하여 종일토록 수불석권(手不釋券)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문장이 대성하여 존심양성(存心養性)을 위해 일일삼복(一日三復)하는 백규장(白圭章)과 사물잡(四勿箴,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조익모습잡(朝益暮習箴)을 좌우명으로 삼아 근신하였으며, 29세 때에는 친명(親命)으로 유정재(柳定齋)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며 화평강질록(花坪講質錄)을 저술하기도 했으며 유고(遺稿)로는 방산집(方山集)이 전한다.

● 이진국(李震國, 1906~1974)

자는 형오(亨五) 호는 면재(勉齋) 본관은 영천, 청하면 필하리에서 출생하였다. 천성이 영민(穎敏)하고 풍체가 준엄하였으며 침묵과언 하였다. 글을 배움에 있어 공부 하라는 독촉을 받지 않아도 뜻을 이해하고 질문을 잘 하더니 하루는 “스승에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 선생이 답 왈 “글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니 공이 즐거워하면서 공부는 꼭 해야 되겠군요. 하며 그 후로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집이 가난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 친척집 상점 점원으로 종사하면서 주경야독하여 경사(經史)에 통달하였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집을 다스림에는 근면과 검소를 법도로 삼아 가세가 점차 윤택했으나 사치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 친척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자금을 도와주고 제전(祭田)을 헌납하여 조상 섬기는 일을 정성을 다 하였다. 청하향교 전교 이순신을 모시는 존충사(尊忠祠) 헌관(獻官)을 지냈고 서당을 열어 수십 명을 가르치면서도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으니 유림의 중망(重望)을 얻었다. 유고(遺稿)로 면재시문집(勉齋詩文集) 1冊을 남겼다.

● 이석필(李錫弼, 1908~1938)

호는 동애(東涯) 본관은 여강(驪江) 기북면 덕동(德洞)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아버이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고, 학문에 뜻을 두어 궁행실천지도(躬行實踐之道)를 깨달아 수불석권(手不釋券)하더니 3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향리가 애통하여 만회문(挽誄文)을 지어 조상(吊喪) 하였으며 공의 문집이 남아있다.

● 백진수(白晉洙, 1896~1964)

자는 경수(慶守) 호는 죽전(竹田) 본관은 수원(水原)으로 흥해군 동상면 장성리에서 출생했다. 침촌(針村) 입향시조 백이현(白以玄)의 9세손으로 천성이 영오(穎悟)하여 사리에 밝았으며 소학교를 졸업한 후 한학에 뜻을 두어 경서를 통달하였고, 시문(詩文)에 능하여 유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실학에도 관심을 두어 임사(臨事)에 타의모범

이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장성리 일대가 포항시에 편입됨에 따라 시의원(市議員)으로 출마하여 두 차례(1952년 1대, 1956년 2대)나 당선되기도 하였으며, 의회진행 발언 시에는 농촌문제에 대하여 최다 발언하였다. 격동기 장성지역 어려운 농촌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미운동을 전개하였고 부락공동 정미소를 운영, 잘사는 마을로 육성하였으므로 부락민들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반공대열에 앞장서 이 지역을 수호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후세인들의 사표가 되었다.

● **이희연(李義演, 1887~?)**

자는 익삼(益三) 호는 죽운(竹雲) 본관은 창녕이다. 어려서 총명하더니 10세에 서당에 입문하여 소학을 읽다가 문리가 터서 학문에 통달하여 신동으로 이름이 났다. 과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향리(鄕里)에서 노천서제(魯川書齋)를 열어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장기향교 전교(典校)를 20년간 역임한 일사(逸士)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항거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며 민족문화 계승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4. 교육·문화(教育·文化)

● **최일수(일명 석구, 1902~?)**

흥해 죽천출신으로 해상업으로 성공해 당대 만석군의 재산을 모았고 일제 말기 어려운 시기에 죽천초등학교 설립이사장으로 춘궁기 학생공납금 전액을 부담하였고 해방 후 흥해중학교 설립이사로서 최 상당 논 50두락과 죽천방과제를 자비로 보수했으며 포항수교 교사 건립기금과 동지중학교 신축공사부지 매입경비, 포항여중·고등 수리보수비를 기부하는 등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지역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 **장기택(張基澤, 1908~?)**

강구어업조합 서기로 진출하여 양포와 구룡포어업조합 이사로서 근무하면서 해방을 맞았다. 재단법인 구룡포교육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취임, 1946년 구룡포수산중학교(5년제) 설립, 유능한 인재와 수산인 꿈을 키우기 위해서 경상북도 어업이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수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양조장을 운영, 그 수익금으로 학교유지비와 장학금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해 왔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구룡포의 큰 별이 떨어졌다고 애도, 지방 유지들이 학교법인에 지원이 중단되자 1972년 구룡포 교육재단을 해체하여 고인이 아낀 구룡포중, 수산고등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했다. 그의 업적을 한 조각의 돌에 새겨 교정에 건립하였다.

● **한흑구(韓黑鷗, 1909~1979)**

본명 한세광(韓世光), 호는 흑구(黑鷗) 1909년 평양시 하수구리에서 출생, 평양 송인상고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상과 재학중 부친 한승곤 목사가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압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할 당시 부모와 함께 도미. 시카고 노스파크대학과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 신문학과에서 문학수업을 하던 중 1934년 모친 숙환으로 귀국, 이때부터 활발한 집필활동을 했으며 1939년 흥사단사건으로 왜경에 검거, 1년간 투옥 되었다. 1948년 포항으로 이주, 1979년 타계할 때까지 포항을 떠나지 않고 순수문학으로서 손춘익, 박이득, 김일관 등 우수한 문인들을 길러냈으며 재생(再生) 이명석과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정신적지주로 인생을 불살랐다. 특히 1995년에 포항 대보 구만리에 펼쳐진 보리밭을 보고 창작한 명수필 ‘보리’는 한국 수필 문학의 최고의 송고미로 꼽혀 국정교과서에 오래도록 실려 학생들의 심금을 울렸다. 거짓을 싫어한 송고한 정신적 소유자로 진실한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진실하다는 인생관, 예술관을 간직하고 더러운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청백한 무소유의 정신세계를 간직한 분이다. 서상은, 빈남수, 손춘익, 박이득 등 제자들이 송라 보경사에 한흑구 문학비를 세웠다. 2009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1회 흑구문학상 수상자로 원로 수필가 김규련(전 포항고교장)이 수상했다.

● **박경호(朴京鎬, 1915~2005)**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후 고아들이 늘어나자 고아들을 돕기 위해 포항양육원을 설립했으며 또 이들의 공부를 위해 송도공민학교와 협성고등공민학교를 개설, 고아교육에 매진했다. 포항로터리 클럽 회장을 역임하면서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 **김 영(金 榮, 1920~2006)**

동지종고와 동지여자종고에서 교사와 교감, 교장을 46년간 역임하면서 강직한 성품과 투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등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해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각종 교육사회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지역발전에 정신적 공헌을 하였다.

● **권태한(權泰漢, 1926~2004)**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에서 출생, 남다른 애향정신으로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죽장중학교 교사로 출발, 죽장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산남의진발상기념비 발기인으로 참여, 비를 세우는 등 항일 의사들의 구국정신을 기리고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사회교육에 투신,

포항문화원 종합복지회관 등에서 시민의 소양교육을 위해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올바른 교육자로서의 일생을 살았다.

● **이명석**(李明錫, 1904~1979)

영덕 출생, 경주 이씨로 호는 재생(再生) 농촌에서 자랐다. 대구교남학교, 일본관서 미술학교를 나왔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고학으로 배움의 길을 걸었다. 해방이후 포항을 본향으로 삼고 포항예술인총연합회를 결성하여 향토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포항문화원장으로서 향토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또 포항문인협회를 조직,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문학강연회, 미술전람회 등을 개최해 지역문화장달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6.25전쟁 후 이 지역 전쟁고아들을 위한 ‘선린애육원’과 ‘애린고 등공민학교’를 설립하였고 ‘자립신생원’과 ‘애도원’을 잇따라 설립하여 의지할 곳 없는 사람에게 삶의 보금자리와 글을 가르치며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등 사회복지사업에 헌신 노력하여 정부로부터 ‘인간상륙수봉황금문장’을 받았다. 일제치하에서부터 1970년대 말까지 문화의 불모지로 알려진 이 지역에 향토문화의 싹을 틔운 개척자이며 포항시민의 정신문화창달에 전 생애를 바쳤으므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았다. 포항개항제를 창설했으며 수도산에 그의 문화 공덕비가 세워졌다.

● **이도갑**(李道甲, 1920~2000)

본관은 전주, 연일읍 유강리 80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42년 대구사범 심상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투신하여, 대구 칠성, 서부, 경산, 금곡, 청통, 하주초등 교장을 비롯, 영천, 영일군 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하고, 영일군, 의성군 교육장을 지내면서 근세 교육의 선구자로서 평생 동안 후세교육에 헌신하였으며,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하였다.

● **금인석**(琴仁錫, 1921~1992)

본관은 봉화이며, 호는 운봉(雲峰)이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에서 태어났다. 동경상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였다. 1989년 2월에는 동경대학에서 수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일본 계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여 심계원 검서관 및 과장을 역임하였다. 국회 재경위 및 예결산 위원회 전문위원(차관급)을 역임하였다. 계리사 고시위원(재무부)을 지내고, 재단법인 5.16 장학회 상임감사,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임감사(부사장급)을 역임하였고,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서예작가로서의 주요 경력은, 조선미술전람회 서도부 연4회 입선(1935~1938), 정부수립 5주년 기념전 대통령상 수상(1953), 5.16혁명기념 100일전 최고회의 의장상(1961)을 수상하였다.

한일서예문화교류협회(1976~1985) 한·일·중국제전(1976~1985), 자유중국정부초청 작가(1977~1979) 서예백일장 3회 참가, 행정원장 대상 3회 수상, 제1회 한국미술대상 전 초대작가(1978), 경상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1983~1985)을 지냈다. 저서로는 당시선(唐詩選), 삼체천자문(三體千字文), 추사소전(秋史小傳) 등이 있다. 평생을 공부하는 관료로서 자신에겐 엄정하였고, 꾸준히 노력한 이름 높은 서예가였다.

● 김병권(金秉權, 1921~?)

청하에서 출생, 포항에서 살았다. 호는 이숙(以淑) 사람됨이 어질고 과묵하며 인내심이 강했다.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입신했다. 의사(醫師)가 되기를 희망하더니 당시 총독부의사검정시험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합격했다. 어렵고 불우한 사람을 돌봐주며 의원을 개업한 후에는 흥해에서 인술을 베풀었다. 교육에 관심을 쏟아 1개면에 1개 학교를 설립케 되어 있으나 당시 흥해, 달전, 곡강 3개면 가운데 곡강면에는 학교가 없었다. 그 후로 학교장학회를 조직하여 후세 교육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학교 지정의원으로 건강과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영일군보건진료소장, 경북의사회대의원, 농민협동조합장, 대송면 포항지구공의를 역임했다.

● 정봉섭(鄭奉燮, 1915~1988)

본관은 영일이며, 흥해읍 옥성리에서 출생했다. 천성이 고매하여 인정이 많고, 남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섰다. 대구농림(大邱農林)을 졸업한 후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척식대학예과(東京拓植大學豫科)를 거쳐 상학부(商學部)를 졸업하였다. 1948년 흥해중학교 설립당시 교감으로 취임한 후 교육계에 투신, 1950년에 교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고, 경상북도교육위원으로 활약하면서 흥해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만년에는 영일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월문화제, 제남헌 이건, 영일민속박물관 개관 등 지방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 김경섭(金炯燮, 1913~1987)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호는 명오(昭吾) 포항사람이다. 1939년 평양의학강습소에서 2년간 수학한 후 조선총독부시험 의사검정시험에 합격, 1941년 충북 괴산군 공의(公醫)로 재직하다가 1949년 포항으로 이거하여 동인의원을 개원 이 지방 의학계에 명성을 떨쳤다. 경제적 기반이 조성됨에 육영의 뜻을 두어 포항중고등학교 기성회장을 역임하였고, 5·16군사혁명 이후에는 재건국민운동 포항시지부장에 취임하여 재건 학교설립 등 자조, 자립,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사회봉사활동에 주력

하였다. 1968년 동인교육재단을 창립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대동중학교 설립 후 1972년 대동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후배교육에 전력하였다. 빈부(貧富)격차 없는 교육 평등이 지론이었고 함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학교교육에 힘썼다. 1967년 포항로타리클럽회장, 포항시의사회장, 포항시행정자문위원장, 포항시 새마을협의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의술과 교육 등 사회봉사활동에 공헌하였다.

● **박일천(朴一夭, 1915~1995)**

흥해 출생, 성품이 호탕하고 청빈 고매하였다. 일본중앙대학법전학부, 1946년 대한노총 포항지부장을 역임하고, 1952년 초대 민선 포항시장에 당선, 혼란기 자치행정책임자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바닷가 불모지를 개발키 위해 포항제철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도적 역할을 맡아 포항을 철강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초대회장, 포항공대설립 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남다른 애향심과 고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향토사 연구에 몰두하여 1967년 일월향지(日月鄉誌)를 발간하였고 포항시사 편찬위원, 영일군사 편찬위원, 경상북도향토사연구협의회 회장, 포항·영일문화재보존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포항의 행정과 경제기반 포항공과대학 유치, 향토사 연구 등 지역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한 향토의 큰 인물로 세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생전의 몇 유품은 포은도서관에 기증하여 전시되고 있다.

● **강신우(姜信雨, 1926~2005)**

영덕군 우곡리에서 출생, 일찍이 포항으로 이주, 1960년대 초부터 삼일운수를 설립해 포항경제발전을 촉진시켰고, 1960년대부터 향토문화예술단체, 특히 연극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제8대~12대 까지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상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고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1989년 포항영신중·고등학교(벽산학원)를 설립,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 했으며 삼일문화재단을 설립, 문화예술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 **최진완(崔眞完, 1926~?)**

무용가로 서울상대를 졸업하고 동지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예총경북 부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7회에 걸쳐 포항, 대구에서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무용대회를 통해 많은 제자들을 길러 내었다.

● **박영달**(朴榮達, 1913~1986)

대구에서 출생, 1938년 대구일보 포항특파원으로 포항에 정착, 포항의 사진예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원로 사진작가와 1958년, 1963년, 한·일 (아사히)국제사진살롱에 입선한 것을 비롯해 1967년 동아사진콘테스트, 1972년, 1973년 국제사진살롱등 유수한국내외 공모전에 입상했다. 특히 순간운동의 역동적인 선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대상을 부동화 혹은 경직시키는 사진 예술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형예술의 본질론에 입각한 갖가지 창조의 법칙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진예술이론을 정립하였다. 초대 포항사협지부장을 역임한 순수하고 강인한 예술인으로 존경받았다.

● **박원식**(朴元植, 1924~2008)

1953년 포항 최초의 사진 동우회인 포항사우회 초대총무와 1960년 새빛클럽 총무, 1962년 오광회 총무를 역임하면서 포항사진 발전의 기틀을 놓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했으며 3대와 10대, 12대, 13대 포항사협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사협발전은 물론 포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온화한 성품과 깨끗한 정신, 투철한 예술혼을 가지고 국내외 각종 사진콘테스트에 입상하였으며 평생을 사진작가로 살았고 제자들에게 큰 스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김상용**

포항사진협회 2대, 4대, 5대, 6대, 8대, 9대, 11대 등 지부장을 8번을 역임하면서 포항사진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며 각종 사진콘테스트에 입상했으며, 1965년 포항사협 창립인준시 박영달, 박원식, 김덕수와 함께 산파역을 담당했다. 특히 사진작가이면서 예술행정가로서도 면모를 갖추 1960년대 포항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 **최규한**(崔奎漢, 1934~2001)

동아대학 응용화공과 출신으로 경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칠광사진동우회 창립회장, 형산사우회 창립회장, 서경사진동우회 지도위원, 전국사진공모전 입. 특선 90회, 경북미술사진 100년전에 수록되는 등 창작과 지역사진작가 양성에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 **빈남수**(賓南洙, 1927~2003)

경남 사천 출생으로 1976년부터 포항에서 의사활동을 하면서 형산수필문학회를 창립, 왕성한 작품 활동을 전개했으며, 초대 포항문협회장및 포항예총회장을 역임하면서 포항문화예술 발전에 끼친 공헌이 지대하다. 활달하고 인정 많은 성품과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수필을 남겼다. 특히 손춘익, 박이득, 서상은 등과 함께 송라 보경사 소재 한학구문학비 건립에 공헌하였다.

● **손춘익**(孫春翼, 1940~2000)

1966년 조선일보와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동화와 동시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가활동에 들어갔다. 1960년대 이명석선생과 한학구 선생의 사랑을 받으며 문학을 통해 포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썼으며, 개성이 강한 성격과 불같은 열정으로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으며, 포항문학을 창간, 국내 권위 있는 문학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중앙문단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했으며, 김일광 등 우수한 문인들을 배출시켰다. 은사인 한학구 선생으로부터 문학수업을 받으면서 학구선생의 진실한 문학정신과 이명석 선생의 향토사랑 정신과 진실한 정신세계를 전수받았다. 소천문학상 등 각종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환호공원에 문학비가 세워져있다.

● **신대식** (申大植, 1918~?)

경북의과대학을 졸업 후 포항도립병원 소아과 과장을 시작으로 포항에서 제일소아과 의원을 개업하고, 포항의사회 회장 7년, 경북의사회 회장 3년을 역임하면서 포항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했고, 일찍이 서예에 입문, 석재 서병오 선생에게 사사 받아 정통서예의 길을 걸어왔으며 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 **황보 균**(皇甫均, 1916~1992)

구룡포 놀태리에서 출생, 대구사범 학교를 졸업, 만학으로 대구 청구대학(영남대학) 국문과를 졸업, 큰 뜻을 품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일제 말기 악랄한 식민지 정책으로 민족문화 말살과 신사참배로 우리의 혼을 빼앗아가는 시기에 조선어교육에 치중해왔고, 일헌(日憲)의 감시와 탄압을 당하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였으며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고진감래(苦盡甘來) 정신으로 탄압을 이겨냈다. 1950년 중등학교로 전환하여 경북일원에 근무하면서 교감, 교장으로 많은 인재를 육성해왔다. 대구중학교를 끝으로 정년, 한 시대의 구국교육에 정신을 쏟았고, 우리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다대하다. 공의 산하에 매향학계(梅享學契)가 결성되어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 **김병석**(金丙錫, 1915~1992)

장기 산서리에서 출생, 장기초등, 영덕농림학을 졸업, 영천 이남산선생 문하에서 한문 수학, 산서학숙을 설립하여 산서초등학교 설립에 주역이 되었고, 농촌문맹퇴치운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유교의 고장 장기에서 충효사상과 예절교육에 헌신 봉사해

왔으며, 경주 송혜전 참봉을 역임하면서 전통예절이란 책을 편찬했고, 부산 태종대 태종무열왕기념비 건립추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평생 동안 농촌 계몽운동과 충효예절 교육에 봉사해왔다.

5. 덕행(德行)

● 이덕명(李德命, 1655~1723)

연일현 지곡동에서 출생, 명문후손이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였다. 어질고 강인하여 마음에 결정하면 실천에 옮기는 부지런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지곡동 지역은 토질이 좋지 않아 사흘만 비가 오면 큰 물이지고 사흘만 가물면 한밭이 있는 곳으로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 먹고 살기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덕명이 귀한 스님 한 분을 만나 가뭄과 홍수가 해결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은 후 이덕명과 부인 수원 김씨는 목욕재계하고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곡뚝을 막기로 결심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필사적으로 일을 했다. 그 후 마을사람들의 정성어린 협조로 3년 수개월 만에 준공을 보게 되어 그 뒤로는 안전하게 농사를 지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한다. 이 사실을 조정에서 듣고 이덕명에게 징수권한과 엽전 오백 냥, 쌀 오십 석을 하사하였으나 수세권한을 끝내 사양하였다고 한다.

● 서석우(徐錫祐, 1824~1887)

자는 국원(國元) 본관은 달성으로 성품이 인자하여 “재물은 하늘이 준 것이다” 라고 하며, 순박 성실 근면하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救恤)해 왔으며, 병자년(1886)에 흉년이 들어 굶어 죽어가는 이웃주민들을 정성껏 도와주고 식량을 배급하여, 아사자(餓死者)를 살려내니,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선행자로 포상하였다.

● 나인옥(羅仁玉)

나봉윤(羅鳳綸)의 딸이며 삼봉(參奉) 김해 김종기(金鍾基)의 아들 김재하(金載河)의 아내이다. 성품이 어질고 착해서 평생토록 남을 도우는 일에 힘썼다. 가난한 집안이나 이웃을 내 형제처럼 보살피며 외로운 홀아비·홀어미·무자녀 어른, 고아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돌보아 주었고 어려운 사람이 죽으면 장례까지 지내주는 등 도울 수 있는데 까지 덕을 베풀었다. 집 근처에 교량이 훼손되어 물 건너기가 고을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였는데 혼자서 큰돈을 들여 다리를 놓아주니 그 다리 이름을 나씨(羅氏)가 놓아준 다리라고 하여 나교(羅橋)라 불렀고 그의 선행을 나라에서 표창했다.

● **김종기(金鐘基)**

자는 윤여(允汝) 호는 농은(農隱) 지릉참봉(智陵參奉)을 지냈다. 김수로왕의 50세손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김녕군(金寧君)의 22세손으로 품성이 공손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을 양지양체(養志養體)하였으며 형제간에 우애가 대단하였고, 문종과 이웃에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친형제처럼 돌보아주니 고을 전체가 칭송하였다.

● **오실광(吳實光, 1919~1993)**

포항 죽도에서 출생, 인품이 어질고 너그러웠다. 애국심이 강하고 모든 일에 의욕적이며 활동적이었다. 1946년 영일군 애국동지회 후생회장을 역임하고 이 지역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삼정산업과 광명한천공장을 건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후세교육을 위해 1963년 서경학원(협성고등공민·협성상업전수학원)을 설립·운영하였고 포항시의회 1, 2대 의원,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5대 역임, 포항개항장 지정추진위원장, 포항시립도서관추진위원장, 포항종합제철유치 추진위원장, 포항로타리클럽 회장 4대 역임, 1968년 일월향지 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서경도서관(현 포항문화원시립도서관)을 개관하여 열람석 150석 장서 2천권을 기증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치·문화·사회봉사활동 등 평생 동안 이 지역의 개발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오늘의 포항을 있게 한 선구자로서 존경받을만한 업적을 남겼다.

● **정명방우(鄭命方禹, 1918~?)**

삼화압맥공장을 설립해 포항상업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포항개항지정 추진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포항항 개항에 공헌하였으며 장학회를 조직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김재학(金在鶴, 1909~?)**

근면한 정신으로 열심히 상업에 종사, 포항백화점을 설립 운영하면서, 포항문화원(덕수동 소재) 2층과 3층 증축공사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구 문화원 벽면에 동판으로 그 공적이 새겨져 있다.

● **김유(金 濼, 1918~2005)**

흥해읍 성곡리 출신으로 제2대 포항시의원을 역임, 포항시교육위원으로서 포항지역 교육에 힘을 기울였으며 남일도정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포항상공회의소 초대위원과 제2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포항상공발전에 이바지 하였고 계림장학회를 설립, 극빈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부모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 **장병규(張炳圭)**

만인의 입에서 그의 언행과 덕망을 칭송하였고, 부지런하게 닦은 공이 있으니 공은 참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다고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 100여 명의 대표들이 나서 그의 송덕을 읍지(邑誌)에 기록토록 하였고, 이 지방 유생과 사림(士林)들이 공의 선행을 모범으로 학계를 닦아 수백 명이 운집하고 해마다 춘추로 추모하고 있다. 특히 향교 전교시 사유재산을 희사 헌납하여 공교육에 투자하였으며, 남다른 선견지명으로 교육에 힘써 후손들이 석·박사가 배출되기도 했다.

● **정경율(鄭景律)**

어려운 시기에 구룡포에서 태어나 수산업을 경영하면서 행만고각고근면(行萬苦刻苦勤勉)으로 어업판매망을 전국으로 구축하여, 富를 얻어 구룡포읍 지역발전에 회사를 했고, 중용중도(中庸中道)에 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식처로 공원조성과 구룡포 교육재단 이사로 재직하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물론, 구룡포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 **문영출(文榮出, 1922~?)**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을 1965~1968까지 역임하고 또 1971년부터 1973까지 두 번을 역임하면서 어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을 쏟아 어민들에게 신임을 얻었다.

● **이종린(李鍾麟, 1924~?)**

배재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산업을 경영, 포항시교육위원, 대보어협조합장, 포항수협조합장을 3번 역임했으며, 포항시의원을 역임하면서 어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 **김종원(金鍾元, 1914~2007)**

평북 초산 출신으로 1933년 평양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학대학 소아과 이사를 거쳐 대구 동산기독병원 소아과 의사, 1953년 포항 미해병기념 소아과 진료소장을 거쳐 1960년 포항에서 선린의원을 개원, 1962년에 재단법인 선린병원을 설립, 원장으로 취임한 후 200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질병 치료에 헌신했다. 1983년 포항간호대학을 인수, 선린대학 이사장에 취임, 대학운영에 참여하여 대학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고결하여 사랑과 박애정신으로 환자들을 대했으며, 어린이들의 질병치료에는 한국 소아과계의 권위자였다. 밀려드는 환자들로 재력도 축적할 수 있었으나 물욕이 전혀 없어 재단 법인으로 병

원을 운영, 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으며, 지역민들로부터 한국의 슈바이처로 존경받았다. 1999년에는 제14회 인간상륙수상을 수상했으며 1990년 포항시민상, 제14회 월남장을 수상했다. 6.25 전쟁 중 1953년 선명회와 미해군의 지원을 받아 포항 동빈동 2층 목조건물에 고아들을 위한 미해병기념 소아진료소를 열고 무료진료를 시작으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질병에서 구해냈다. 2007년 공이 타계하자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이 진정어린 애도의 뜻을 표하고 김 박사의 영면을 안타까워했다.

● **이원만**(李源萬, 1904~1994)

신광면 우각리에서 출생, 일찍이 (주)한국나이론 (현, 코오롱그룹)을 창설해 대기업으로 육성해 50년대부터 70년대 한국경제 부흥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향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장도수**(張道洙)

장기면 양포리에서 출생, 일본 중앙대학 법대 졸업, 해방후에 귀국하여 제2대 민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한 뒤에 장기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후진양성에 주력해왔다. 교육목적을 충효에 바탕을 두었으며 몸소 아침저녁으로 어른에게 문안을 드리고 자식의 도리와 정성으로 효성을 다해 왔다. 1962년 영일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교육목적을 도덕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충·효·예로 사회규범과 질서유지에 노력해왔다.

● **김사암**(金泗巖, 1919~1985)

포항시 대도동에서 출생, 대구농림학교 졸업 후에 포항읍사무소 농업경제계 근무, 수리조합 조합장, 선거관리위원장 역임, 농경사회에서 농업에 대한 업무를 시작했고, 수리조합으로 직장을 옮겨 근무하면서부터 성품이 온유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으며 남의 어려운 사정을 잘 도와주었다. 1956년 吾魚池 농지개발조합 조합장에 선임, 1970년대 포항개발당시 대도동은 띄엄띄엄 몇 가구씩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저지대에는 갈밭이 우거져 사람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개발 당시 저습한 곳을 매몰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면서 기존 주민과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나 어려움을 스스로 찾아 협력하고 없는 사람을 도우면서 전입한 지역민을 환영했다. 지역민이 선임한 제11지구 구획정리 조합장으로 공평정대하게 처리해 주민의 칭송을 받았다.

● **이규연**(李龜演, 1901~ ?)

자는 성락(聖洛) 호는 운암(雲庵) 본관은 창녕(昌寧) 중직대부를 지낸 이귀춘(李貴春)의 후예로 죽계 이대임(竹溪, 李大任)의 10세손이다. 1901년 장기면 창지리에서 출

생, 公은 평소 성품이 관후하고 면민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었고, 선대의 학문을 전수 받아 광산 김영의(光山, 金永毅)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혀 소시 적부터 시문을 작성하여 고을 사람들이 재동이라 칭해왔다. 실학사상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꾸준히 연구하여 여러 고을과 지역을 순회하며 많은 덕행을 쌓았다. 광복 후에 백범 김구선생과 교분이 두터워 왕래하며 새로운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힘써 왔다. 학삼서원 경충묘호를 선생의 친필로 제액(題額)했고 公이 부산에 기거할 때 부산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이 찾아와서 한약에 대한 연구 질의와 강학요청으로 개별수강하면서 영남의 인물로 널리 알려졌으며, 학술의행(學術懿行)과 많은 유고(遺稿)가 남아있다.

● 서석주(徐錫柱, 1930~1995)

육군대령 군의관으로 예편, 학교법인 장기중학교 재단이사장, 포항시 공무윤리위원장 역임, 경북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진학했다. 그 뒤에 군의관 중위로 임관되어 보건과 방역을 담당하면서 군사전술까지 익혀 젊음을 불태워 봉사하면서 통합병원 과장과 참모진을 역임했다. 대령 때는 육군병원장으로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체력 향상과 질을 높이는데 공헌했다. 예편한 뒤에 고향에 돌아와 의원을 개업하여 병원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었고 봉사를 계속 유지해왔다. 부친이 설립한 장기중학교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 전액 장학제도를 실시하면서 더욱 신망을 얻었다. 그는 평생 동안 청렴결백했다.

● 이동우(李東雨, 1910~2000)

호는 낙오(樂吾) 본관은 경주로 칭하면 서정리 출생이다. 선진 농업기술을 익히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동경인하농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일본 농업시험장에 취직한 후 농업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후 고향에 돌아와 농촌운동에 투신, 저수지 2곳을 축조하는 등 고질적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농어촌 부흥운동에 앞장서 일해 왔으며 이리농업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농업역군을 길러냈고, 청하 서부국민학교를 설립하는 공로로 학교 교정에 공덕비가 세어져 있다. 1970년 5.16 민족상을 수상 하였다.

6. 명관·청백리(名官·清白吏)

● 김 급(金 汲)

자는 옥여(玉汝) 호는 수월당(水月堂)으로 울주부사(蔚州府使)를 지낸 김을적(金乙適)의 아들이다. 천성이 근엄하고 청렴 강직하여 초지일관하였다. 조선조 세종때 호조정

랑(戶曹正郎)을 거쳐 울주부사(蔚州府使)를 지냈는데 백성을 다스림에 인애(仁愛)와 덕치로 선정을 베풀어 공덕비를 세웠다.

● 정선근(鄭善根)

호는 자산(慈山) 연일현 북면 도내동 출생으로 대지주이면서 제2대 포항면장을 역임했다. 재직 당시 부조시장 상인들이 일본사람에게 사채(私債)를 얻어 쓰게 되었는데 채권자의 횡포에 대하여 상인들을 대변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목민관으로 존경을 받았다.

● 한봉문(韓奉文)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포항으로 이주하였다. 성품이 강직, 정의롭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다.

한학자로서 포항읍장, 포항시축산협동조합장, 포항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다투어 부정을 막으려 힘쓰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위원장자리마저 사퇴한 선비정신의 실천자였다.

● 이술갑(李術甲, 1915~1998)

본관은 전주, 연일읍 유강리80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일찍 공직에 투신하여, 1960년 포항시 부시장을 역임하면서 해방 후 공직자의 표상으로 정의롭고 청렴하여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다. 대구시 총무국장, 중구, 남구, 북구, 서구청장을 역임하면서 격동기 지방행정의 틀을 다듬었다. 표창으로는 경북지사 표창을 비롯, 내무부장관상,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근조장을 수상하였다.

● 문달식(文達植, 1917~1978)

오랫동안 포항에서 살아온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사람됨이 과묵하고 성품이 따뜻해 남에게 호감을 샀다. 경북도청 위생과장 재직시에는 마약퇴치에 크게 공헌하였고 포항읍장으로 재임할 때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그 후 포항해운조합을 창설 해운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등 지역경제를 위한 노력이 대단하였다.

4.19혁명 이후 과도정부시 민선 포항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5.16군사혁명으로 시장 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났다. 정치에 뜻을 두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거대한 체구로 유도 6단의 실력을 갖춘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포항지역 체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 **이영구** (李榮久, 1911~1981)

기계면 관천리 65번지에서 출생, 자는 유근(維謹) 호는 청암(靑巖), 본관은 월성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독학으로 배움의 열정을 지켰다. 20세에 영일군 촉탁으로 공직에 투신하였으며, 1960년에는 면려포장을 받았다. 1961년 5.16 군사정권 때 현역군인이 포항시장에 부임하여 아무런 죄과 없이 징계하여 내무부훈령 제152호 제3조에 의한 면직처분을 당하였다. 그러나 국가재건위원회최고회의에서는 이를 재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잡한 회신만 받았을 뿐, 일생동안 단칸 셋방살이로 전전하다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퇴직을 강요당한 채 평생을 몸담아오던 포항시 청사를 떠났다. 그러나 일생을 정의와 청빈, 기개로 깨끗하게 살다간 청백리 정신은 오늘날 공직자의 귀감이 되고 있다.

7. 정계(政界)

● **김익노**(金益魯, 1905~1962)

호는 죽곡(竹谷) 본관은 수원으로 연일읍 태전 2리에서 출생하여 영일을구(迎日乙區)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제헌의원에 당선한 후 4대 의원을 역임하였다. 국회의원 재임시 오천읍 오어지(吾魚池)를 국비로 준공하여 농업용수개발에 공헌하였고, 제3대 의원시절에는 국회정계분과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1951년 영일교육재단을 만들어 영일중학교, 영일고등학교, 장기중학교 재단이사장에 취임하여 지역개발과 교육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 **김용주**(金龍周, 1902~1986)

광무(光武) 9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 호는 해촌(海村) 본관은 김해이다.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식산은행 포항지점에 근무하다가 포항 삼일상회를 창립 후 경제계에 투신하였다.

일제가 3.1만세 사건이 있는 후 상호를 고치라고 강요했으나 끝까지 바꾸지 않고 버티었다. 1929년 포항운수주식회사를 창립하고 1935년 포항사립영흥보통학교를 설립 후 해방이 되자 공립학교로 헌납하였다. 경북도의회의원 3선, 1945년 조선운수협회장, 조선우선(郵船)주식회사 사장을 지냈다.

그 후 국산자동차주식회사 창립,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상임위원, 1948년 한국해운공사 창립하여 해운업계에 크게 공헌하였고 1950년 주일 특명전권공사로 부임, 한국외교사절단장으로 6.25때까지 한일국교정상화 기초를 닦고, 1951년 유엔총

회한국대표, 1960년 참의원 국회의원에 당선 민주당 원내총무를 지냈으며 1972년 한일협력회장을 역임 198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이 밖에 6.25전쟁 중 일본에서 한국지폐제작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고, 전쟁 중 동경에서 대한방송창설과 대한신문발간, 주야로 한국 상황에 대처 하는 등 불타는 애국심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 강주석(姜疇錫)

동해면 마산리에서 출생, 진주 강(姜)씨로 호는 운산(耘山)이다. 일본에서 고송(高松)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에 돌아와 낙동금융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도정업(摺精業)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경영하였고, 1933년 스물일곱의 나이에 포항읍 의원에 당선 3선의원을 지냈다. 어업조합 감사와 어민총대 영일수리조합 평의원, 영일군농회 특별의원겸 통상의원을 지내면서 농민의 대표와 어민대표로서 농어촌 발전과 소득증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마침내 상공인의 대표격인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경북연안교역협회 이사장, 포항의용소방대장, 소방서장, 포항청년회장, 경북도국민회부회장, 경상북도의회의원을 역임했다.

● 최해용(崔海龍, 1920~1986)

일제시대 구룡포읍 구룡포리 378번지에서 출생하여 창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민족운동에 앞장서 격동기의 사회안정과 올바른 정치이념을 구상해 오다가 영일군 을구(乙區) 민주당지구당위원장으로 정계(政界)에 투신하여 제5대 민의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재임기간(1960. 7. 29~1961. 5. 16) 9개월 만에 5.16군사혁명이 일어나 국회가 해산되어 청년시절에 구상해오던 정치소신을 피력치 못한 채 낙향하여 고향에서 지내다가 1986년 세상을 떠났다.

● 박순석(朴順碩, 1904~1960)

기계면 화봉리 430번지에서 출생하여 기독교 목사로서 제헌국회의원 선거 당시 영일갑구(甲區)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2대의원으로 활동 지역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근면 정직한 정의과로서 지방민의 지지도가 높았고, 평생을 애국충정으로 살았다.

● 최태능(崔泰能, 1909~1986)

본관은 경주이며 흥해읍 중성리에서 출생했다. 천성이 안온(安溫)하여 인정이 많았으며, 서울휘문고를 졸업한 후 국민운동을 하다가 제5대 민의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5.16군사혁명으로 재임기간(1960. 7. 29~1961. 5. 16) 9개월 만에 국회가 해

산되어 낙향하고 말았다. 향리에 돌아온 후 후진양성을 위해 흥해중학교 재단이사장에 취임하여 (1965. 11. 16~1984. 6. 12) 많은 인재를 배출시켰다.

● **최원수**(崔遠壽, 1912~1989)

본관은 경주로 흥해읍 약성리 189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인품이 고매하고 인물이 빼어나 남의 이목(耳目)을 끌었으며, 재주가 뛰어나 공부를 잘했다.

대구상보(大邱商普)를 졸업한 후 국민운동에 가담하다가 제3대 영일군수로 재임(1949. 1. 8~1950. 4. 20)하면서 정치기반을 다져, 영일 갑구(甲區) 국회의원에 출마, 제2대 민의원에 당선된 후 청하 해아중학교, 기계중학교, 죽장중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수리(水利)시설을 위해 신광 용연지(龍淵池) 저수지를 축조한 후 흥덕수리조합을 설립하여 초대조합장을 역임하였다. 만년에는 서울에서 서예에 심취하여 서실을 운영하면서 정신을 수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 **정무식**(鄭茂植, 1924~1988)

흥해읍 남성리 174번지에서 정기용(鄭基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질이 청렴 강직하였고 매사에 침착하였다. 흥해초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육사에 들어가 제8기생으로 졸업한 후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다가 준장으로 임관된 후 중앙정보부장원, 경북, 충남지부장을 역임하고 본부 제3국장 재직 시 예편하였다. 그 후 정계에 투신하여 민주공화당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입후보, 제8대 9대 의원에 당선되어 지역개발과 지역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공적을 남겼다.

● **김장섭**(金長涉, 1910~1994)

흥해읍 중성리 1171번지에서 출생, 인물이 출중하고 성품이 호탕하며 재주가 뛰어났다. 1938년 일제 때 일본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40년 고문사법과에 합격, 1943년 신의주지방법원 판사, 1945년 광주지검 검사, 1953년 대구변호사회장, 법무부 검찰국장겸 대검찰청 검사, 1954년 서울지검 검사장, 1958년 내무부차관, 1959년 농림부차관, 1960년 제4대 민의원 국회의원, 초대참의원 6, 7대 국회의원(1963~1971)국회법사위원장을 역임했다.

● **하태환**(河泰煥, 1916~1991)

포항시 해도동에서 출생, 8살 때 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가난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였다. 정열적인 성격과 건강한 신체를 갖추어서 운동을 좋아하고 모험심이 대단하여 17세 되던 해에 넓은 세계로 뛰어들기 위해 자전거로 북한 여행길에 나서는 등 대

담성이 있었다. 함흥까지 갔다가 귀향하는 길에 서울 한강변에 다다랐을 때 사각모를 쓴 대학생들의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문배달을 하면서 양양(兩洋)중학 2학년에 입학한 후 불굴의 투지로 양양(兩洋)중학을 졸업하고 1937년 4월 입명관(立命館)대학 전문부 법학과에 입학, 1940년 4월 동대학 법학부에 진학하였다. 당시 태평양전쟁이 시작될 무렵이라 일본의 호전적 군국주의가 극에 달했다. 조선유학생 독립운동에 가담 1940년 9월 동아연맹사건에 연루되어 경도(京都)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루고 1942년 입명관(立命館)대학에 다시 복학했다. 1943년 학교를 마치고 귀국, 포항읍사무소 임시직 근무, 포항여중교사, 8.15해방 후 1946년 대송면 송정리에 동지상업학교를 설립한 후 후진양성을 위해 힘썼으나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다. 사회적 혼란기였으나 탁월한 학교경영으로 동지중학, 동지고등, 동지여중, 동지여상, 포항수산초급대학(현, 포항대학)을 설립하여 생활철학 이념으로 삼은 “無에서 有”를 창조한 신화적인 육영사업을 이룩하였다.

30대 후반에는 정치에 뜻을 두어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방분과위원회에 배속되어 자유당시절임에도 군내부 탈모비누사건, 부정간장 납품사건, 국방부원사부정사건 등을 폭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정의로운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에 당선 국방분과위원장을 맡아 군대부정을 추궁 군의 기강확립에 힘썼으며, 1959년 “사라호태풍”때는 국회태풍피해 조사단장으로 이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5.16군사정변 후 두 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정계를 은퇴하고 후진양성을 위해 학계로 복귀하였다. 1975년 미국 Union University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청년기에는 후세교육, 장년기에는 국회의원으로 국정에 이바지한 “교육과 정치분야”의 큰 인물로 존경받고 있다.

● 이성수(李聖秀, 1926~?)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고 교사 등을 역임한 후 국회의원을 3번 역임했으며, 포항공고와 포항간호전문학교 설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영중고등학교 재단이사를 역임하는 등 후세 교육이 힘썼다.

● 이용득(李龍得, 1935~1994)

흥해 학성리에서 출생, 일명 희덕(義德), 호는 오당(梧堂) 본관은 영천이다. 명가후예로 가난하였으나 가정교육은 철저하여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힘입어 학업에 열중, 포항 동지상업고등학교와 수산초급대학을 졸업하고 만학(晩學)으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원을 수료하였다. 배움의 성취와 사업의 성공이 곧 향토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봉사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 1983년 이후 경북사격연맹회장,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 포항 중앙아리온스클럽 회장, 경상북도생활체육회장, 동지중고등학교총동창회장,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장 등을 역임 각종사회단체를 육성 이끌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원년을 맞아 포항시의회에 진출하여 제4대 전·후기 포항시의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청림구획정리지구 건축제한 해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시·군 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등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제10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기중인 1994년 10월 28일 과로로 순직하였다.

● 조만제(趙萬濟, 1930~1996)

청송군 안덕면 감은동에서 출생, 자는 광오(光五) 호는 송학(松鶴) 본관은 함안, 조 선조 생육신 조려(趙旅)의 18세손으로 할아버지 때 포항시 학잠동으로 이거하였다. 광복전후 어려운 가세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여 동지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부단한 노력으로 1953년부터 20년 세월동안 포항전매서에 봉직하다가 1975년 우성토공사를 설립하고 1981년 (주)양학시장을 창설하는 등 자수성가하였다. 양학동 단체위원장, 포항 문화원이사, 포항시정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헌신적인 사회활동을 하다가 1991년 포항시의회에 진출하여 제4대 포항시의회 전기(前期)부의장으로 선출되어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였다.

● 신수한(申壽漢, 1939~1996)

월성군 안강읍 양월리에서 출생, 자는 송암(松岩) 호는 月山 본관은 평산이다. 집이 가난하여 고향을 떠나 부산에 이거하여 주경야독으로 웅지(雄志)를 품고 원대한 포부와 이상을 키워오다가 1967년 포항에 옮겨와 상원, 죽도동을 거쳐 대도동에 정착하였다. 가난과 무지의 극복을 통한 사회적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보성전업사를 세우고 만학(晩學)으로 1984년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사회단체 활동으로 포항·영일 반공연맹위원, 포항시발전협의회 이사, 제18대 포항청년회의소 회장, 범민족올림픽 포항시추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포항시 간사장 등을 역임한 후 1991년 새로이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원년에 포항시의회에 진출하여 시·군 통합 포항시의회 초대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

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고 모범적인 사회활동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생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으로 점철된 생애였다.

8. 기인(奇人)

● 권달삼(權達三, 1881~1952)

본명은 천만(千萬), 본래는 안동사람이나 어릴 때 흥해읍 옥성리 56번지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남성리로 옮겨 살았다. 우리나라에서 기인(奇人)으로 명성을 가진 붕이 김선달, 하원 정수동에 버금가는 이 고장이 낳은 대표적인 해학자로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재치와 기지(機智), 임기응변이 뛰어나 술한 일화를 남겨 삶에 찌든 못사람들로 하여금 배꼽을 잡게 했으며, 특유의 독설로써 세상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가 남긴 일화들은 내용에 따라서 비현실적인 것도 있고 이야기꾼들이 꾸며낸 것도 있으나 각박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웃음과 함께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임에 틀림없다. 그가 생존해 있을 당시, 이 지방에는 그의 재담과 유창한 화술로 인해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육지에는 달삼”이란 속설이 전해질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참고문헌

- 김용제, 《영일읍지》, 흥해향교, 1929.
 경상북도경찰부, 《폭도사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 경상북도 경찰청, 1934.
 박일천, 《일월향지》, 일월향지편찬위원회, 1967.
 이종익, 《보경사의 사적과 사화》, 보연각, 1983.
 경북대인문과학연구소, 《경북위인전》, 경상북도, 1987.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영일군, 1990.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99.